

2013 한국사전학회 제23차 전국학술대회

전문용어 연구와 전문용어 사전의 현황과 과제

- 일시: 2013년 8월 31일(토)
- 장소: 연세대학교 외솔관 110
- 주최: 한국사전학회
- 후원: NHN(주), 국제영어대학원대학교,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

이 자료집은 NHN(주)의 지원에 의해 제작되었습니다.

목 차

[주제 발표]

<개방형한국어지식대사전(우리말샘)> 분야 분류

설성수(한남대학교) ----- 1

의학 전문용어 순화, 제작과 관련된 갈등 및 해결 방안

발표: 은희철(서울대학교) ----- 15

전문용어사전의 이론적 배경과 그 흐름

- 뷔스터(Wüster) 사전부터 TERMIUM까지-

발표: 이현주(서울과학종합대학원) ----- 25

[기획 발표]

전문용어의 정의와 지식표상

발표: 김현권(방송대학교) ----- 41

토론: 조태린(대구대학교) ----- 66

<개방형 사전>에서의 전문용어 표제어 선정과 처리에 관하여

발표: 방영심(이화여자대학교) ----- 69

토론: 이승재(국립국어원) ----- 81

<연세 현대한국어 사전>의 전문용어 처리의 현황과 과제

발표: 김선혜(연세대학교) ----- 83

토론: 도원영(고려대학교) ----- 97

[일반 발표]

교육용 물리 용어의 선정 연구

발표: 윤은정, 박윤배(경북대학교) ----- 101

토론: 안의정(연세대학교) ----- 112

예문으로 재구성해 본 영어 사전

발표: 정철(다음커뮤니케이션) ----- 113

토론: 배연경(국제영어대학원대학교) ----- 119

신문 사설에서 나타나는 어휘 사용의 증감도 분석

발표: 김혜영, 강범모(고려대학교) ----- 121

토론: 손현정(연세대학교) ----- 134

중한 웹사전의 용례 연구

발표: 황은하(배재대학교) ----- 137

토론: 범기혜(건국대학교) ----- 148

2013 한국사전학회 제23차 전국학술대회

전문용어 연구와 전문용어 사전의 현황과 과제

- 일시: 2013년 8월 31일(토)
- 장소: 연세대학교 외솔관 110
- 주최: 한국사전학회
- 후원: NHN(주), 국제영어대학원대학교,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

일 시		발 표 및 내 용	비 고
제1부 09:40 ~ 13:40	09:40~ 10:00	등록	
	10:00~ 10:20	개회식 개회사: 정영국(한국사전학회 회장, 국제영어대학원대학교) 축사: 김하수(연세대 언어정보연구원 원장, 한국사전학회 전 회장)	사회: 남길임 (경북대)
	10:20~ 11:00	주제 발표 1 개방형한국어지식대사전(우리말샘) 분야 분류 발표: 설성수(한남대학교)	사회: 송영빈 (이화여대)
	11:00~ 11:40	주제 발표 2 의학 전문용어 순화, 제작과 관련된 갈등 및 해결 방안 발표: 은희철(서울대학교)	
	11:40~ 11:50	휴식	
	11:50~ 12:30	주제 발표 3 전문용어사전의 이론적 배경과 그 흐름 - 뷔스터(Wüster) 사전부터 TERMIUM까지- 발표: 이현주(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12:30~ 13:40	점심시간 및 휴식	
제2부 13:40 ~ 15:30	13:40~ 14:10	기획 발표 1 전문용어의 정의와 지식표상 발표: 김현권(한국방송통신대학교) 토론: 조태린(대구대학교)	사회: 강현화 (연세대)
	14:10~ 14:40	기획 발표 2 <개방형 사전>에서의 전문용어 표제어 선정과 처리에 관하여 발표: 방영심(이화여자대학교) 토론: 이승재(국립국어원)	
	14:40~ 15:10	기획 발표 3 <연세 현대한국어 사전>의 전문용어 처리의 현황과 과제 발표: 김선훈(연세대학교) 토론: 도원영(고려대학교)	
	15:10~ 15:30	휴식	

제3부 15:30 ~ 17:50	15:30~ 16:00	일반 발표 1 교육용 물리 용어의 선정 연구 발표: 윤은정, 박윤배(경북대학교) 토론: 안의정(연세대학교)	사회: 박만규 (아주대)
	16:00~ 16:30	일반 발표 2 예문으로 재구성해 본 영어 사전 발표: 정철(다음커뮤니케이션) 토론: 배연경(국제영어대학원대학교)	
	16:30~ 17:00	일반 발표 3 신문 사설에서 나타나는 어휘 사용의 증감도 분석 발표: 김혜영, 강범모(고려대학교) 토론: 손현정(연세대학교)	
	17:00~ 17:30	일반 발표 4 중한 웹사전의 용례 연구 발표: 황은하(배재대학교) 토론: 범기혜(건국대학교)	
	17:30~ 17:50	폐회식 폐회사: 정영국(한국사전학회 회장, 국제영어대학원대학교)	사회: 남길임 (경북대)

I. 주제 발표

개방형 한국어 지식대사전(우리말샘) 분야 분류

설성수
(한남대학교)

<차 례>

- I. 서설
- II. 이론적 검토
 - 1. 언어사전
 - 2. 지식과 지식활동
- III. 언어 및 지식 사전의 분야분류
 - 1. 한국어 대사전과 분야분류 (명칭은 다르나 유사 내용은 통합)
 - 2. 대표 외국어 사전과 분야분류
 - 3. 온라인 사전 Wikipedia의 분야분류
- IV. 지적어휘 집합체 - 국가표준과학기술분류
 - 1. 개요
 - 2. 기본철학
 - 3.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 V. 개방형 한국어 지식대사전의 분야분류 (안)
 - 1. 개요
 - 2. 분야 구분 - 대분류/중분류 (안)

I. 서설

□ 국립국어원 보유 기존 종이사전 - 표준국어대사전

○ 특징

- 1999년 발간한 국내 3대 대사전 중의 하나
- 영어권의 Oxford English Dictionary, 일본의 大日本國語辭典 등과 비교됨

○ 특징 (송길룡, 민경모, 서상규, 2003)

- 1. 현행어문규정 적용
- 2. 북한 말 포함
- 3. 기존 사전의 부족한 점 보완: 발음정보, 체언과 용언의 활용정보

○ 자체 평가 (심재기 국립국어연구원장 머리말)

- “다른 나라의 사전과 비교하면 아직도 초라”

□ 국립국어원의 새로운 개방형 한국어 지식대사전

○ 사업개요

- 1단계 2010-2012년
- 2단계 2013-15: 일반 전문가 참여, 국가/전문가 집단 검증
- 3단계 2016 이후: 응용 확산
기존 50만어 + 실생활어 50만 추가

○ 새로 구축할 개방형 지식대사전의 특징

(권재일, 2010; 이승재, 2012; 이현주, 2012; 이유원, 손지은, 2012)

1. 종이사전이 아닌 온라인사전이고,
2. 과거와 달리 이용자들도 내용을 가감할 수 있으며,
3. 가감된 내용은 전문가 집단과 함께 이용자들도 검증할 수 있고,
4. 언어사전과 백과사전 중간형임.

□ 사전 개념 전환의 시대적 배경

○ 온라인사전(?)의 기술적 배경

: 정보처리기술과 통신기술의 발전으로

1. 보통의 사람들도 온라인 접근이 가능하고
2. 쌍방향 처리가 가능해짐.

○ 인터넷사전(?)의 보편화

- 영어권에서는 이미 종이사전인 브리태니카사전보다 온라인사전 위키피디어가 보편적임.
- 과거 사전은 구축팀과 출판팀에 의한 사전이나
- 위키피디아와 같은 온라인 사전은 구축팀과 분야팀 및 이용자가 상호작용하는 구조임.

○ 온라인사전의 특징

		종이사전	온라인사전
출 판	구축	총괄팀 (분야별 구축/관리팀)	총괄팀 (총괄, 서버) 분야별 구축/관리팀
	어휘감수	분야별 감수자	분야별 관리팀/감수자 일반인
	인쇄	출판팀	-
	어휘 수정/추가	새로운 출판 시에만 가능	상시
	사용자 역할	-	어휘 추가/수정 분야 창출

내 용	오류	대응불가	신속 개정
	신조어	대응불가	신속 반영
	멀티미디어 콘텐츠	대응불가	가능
	어휘 연계성	대응불가	자유 표현

II. 이론적 검토

1. 언어사전

11. 일반적인 유형 구분

☐ 일반 유형 구분

○ 보통 (도원영, 차준경, 2009)

- 통시형 vs 공시형
- 정규형 vs 특수형
- 대사전 vs 중사전
- 전문가용 vs 일반인용

○ 추가: 순수 언어형 vs 백과사전 추가형

12. 기록형과 선별어휘형

☐ 기록형 - 실용주의

○ 어휘론 연구자의 사명

“어휘론 연구자의 1차 사명은 어휘자료를 온전하게 보전하는 일이다. 그것이 문헌에만 남아 있는 전시대의 언어일 경우에는 문헌자료를 세밀하게 검토하여 하나의 단어라도 소홀함이 없이 색인으로 작성하는 일이며, 당대의 언어일 경우에는 가능한 한 모든 어휘를 수집하되 하나의 어사(語辭)에 대하여도 광범한 지역에 걸친 모든 방언형태들을 할 수만 있다면 수집기록하는 일이다. ... 어휘자료론은 한 언어 내의 총어휘목록을 작성하고 그 어휘의 증감상을 명백하게 파악하는 일이다.” (심재기, 국어어휘론, 1982, 집문당, 12쪽)

○ 어휘론 연구방법 (김종택, 국어어휘론, 1991, 탑출판사.)

: 자료학의 성격 / 체계학의 성격 / 실용학의 성격

□ 선별어휘형 - 용례주의

○ 한국의 과거 언어관

“.. 우리 선조들은 ... ”언어“는 ”문자 곧 한자로 표현될 수 있는 것“에 국한. 한자로 표기하되 중국의 옛날 전적(典籍)에 기록된 적이 있는 것만이 안심...” (심재기, 국어어휘론, 1982, 집문당, 83쪽)

○ 표준 국어사전 비판 (유현경, 2010)

1. 양적으로는 『大日本國語辭典』, OED와 비교 => 양적으로는 세계수준
2. 국가기관이 편찬하고 맞춤법 기반의 규범사전 역할 => 민간시장 축소
3. 백과사전과 언어사전 중간, 규범적 => 질적 비판 가능

○ 선별언어형 예 - 프랑스대사전 (하영동, 2004)

- 어휘수 100,000, 어휘수보다 기술하는 정보의 양에 중심
- 일반인보다는 언어분야 전문가 그룹을 중시한 사전
- 용례로 뒷받침되지 못하는 단어는 사전에 오를 자격이 없음

2. 지식과 지식활동

21. 언어/언어사전과 유사 분야

□ 지식유형과 집대성

○ 사전형: 언어사전, 백과사전, 분야별 정보사전

○ 비사전형 - 분류체계를 통한 종합

- 정보: 포털형(종합)
- 도서: 도서분류
- 학문: 학문분류
- 학과: 학과분류
- 지식활동: 21세기형 새로운 구분, 예-한국의 표준국가과학기술분류 (설성수, 송충한, 2002)

22. 지식활동에서 본 어휘

□ 정의

○ 언어와 지식의 관계

- 아는 것(지식)의 한 표현수단

○ (언어사전 + 백과사전)에서도 어느 어휘까지가 포함되는가?

- 표준어, 방언
- 조사
- 일상용어 vs 전문용어

○ 전문용어에 대한 기존 연구 총괄과 정리 (강현화, 2010; 2011)

- 전문어 정의: 특정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

□ 전문어에 대한 추가 질문

○ 질문

1. 시간이 흐르며 전문용어가 다른 분야에서도 널리 사용된다면 전문어, 일반어?
2. 사전에서 전문어는 언제부터 확대되기 시작하는가?
 - 18세기 백과사전과의 등장

○ 백과사전파(encyclopédistes)의 역사적 의미 (Darnton, R., 2009)

- Diderot와 d'Alembert 주도로 160여 명이 참여한 백과사전 집필 프랑스인 집단
- 1751-1772년에 28권 발간
- 르네상스 이후 인간정신이 성취한 지식의 발전 - 지적언어의 집대성

○ 백과사전파의 등장 배경 - 과학혁명과 전문적인 학회의 등장 (설성수, 송충한, 2002)

- 1660년 영국 Royal Academy of Science 설립
- 1666년 프랑스 Académie des Sciences 설립

□ 언어발전 가설

○ 언어이해 방법 (심재기, 이기용, 이정민, 1984)

1. 형태론적 접근
2. 어휘계통적 접근
3. 논리학적 접근
4. 기호론적 접근

Q 언어발전론적 접근은 불가능한가?

○ 어휘발전 과정

1. 언어는 기초어휘, 사회어휘 및 지적어휘로 구분가능하다.
 - 기초어휘
 - * 원시사회의 언어에서 부터 출발
 - * 사람, 동작, 감각/인식, 의식주, 자연, 상태, 기초적인 사회관계
 - 사회용어: 사회, 종교, 교육, 문화, 군사, 경제
 - 지적용어: 이공계 과학, 사회과학, 인간과학, 고급예술, 스포츠, 복합영역
 - 지적어휘 발전은 특히 계몽사조 혹은 과학혁명기 이후라 판단.
2. 어휘는 기초어휘, 사회어휘, 지적어휘 순서로 발전해 왔을 것으로 예상됨.
 - 사회가 복잡해지며 지적어휘 부문에서의 어휘증대가 커지고, 커질 것임.
3. 사회용어나 지적용어도 시간이 흐르며 일상용어화되어 왔을 것이고, 일상화되지 않고 있는 분야별 어휘를 전문용어라 할 것임.

○ 지식의 발전 (설성수, 송충한, 2002)

- 철학적 지식: 예 - 고대 그리스
 - * 일상의 문제가 아닌 형이상학적 지식의 등장
- 실체적 지식: 초기의 사전편찬
 - * 중세 암흑시대를 벗어나며 부여된 질문
 - * 인간이 안다는 것의 시작과 끝에 대한 정리
- 실체적 지식
 - * 인쇄술의 발전과 실체로서의 책의 확대, 그리고 식민지 운영
 - * 책 형태로 가진 지식
- 경제적 지식
 - * 보통교육과 매스컴이 활발해진 2차 대전 이후 지식이 산업화됨
 - * 지식활동의 중요성이 커지기 시작함.
- 기능적 지식
 - * IT기술의 발전으로 지식의 복제, 변형이 자유롭고, 지식의 위계성 파괴
 - * 접근성, 관심성이 지식판단의 가장 큰 기초

Ⅲ. 언어 및 지식 사전의 분야분류

1. 한국어 대사전과 분야분류 (명칭은 다르나 유사 내용은 통합)

	표준대사전	고려대	큰사전
3개 사전 공통	전기 컴퓨터/전산 건설/건축 경제 공업 광업 기계 농업 수산/어업/해양 약학 항공 해양/해사/항해 화학 심리 언어/언어학 지리/지학/지명 역사 교육 군사 법률 사회/사회학 수공/공예/조각 정치 불교 종교 문학 미술 민속/예술 연극 예술 음악 출판/인쇄 논리 동물 물리 생물/생물학/생리 학 수학 식물 (연영)무용 (연영)영화 의학 천문/천문학 철학 운동/오락/ 체육 기독교/예수교 천주/천주교 책명 패션		
표준 / 고려대 공통	교통 언론/신문/방송 통신 인명		
표준 단독	임업 환경 국방 행정 고유명사 지명		
고려대/큰사전 공통		토목 기상 대중교/천도교 사진 고적/고고	
고려대 단독		식품 의류 한의/한의 학 지질	
큰사전 단독			성경 신화신학 윤리

주: 3개 사전 모두 분류에 있어서의 특별한 철학이나 원칙이 발견되지 않음.

2. 대표 외국어 사전과 분야분류

2.1 국내외 주요 대사전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독일어	불어
사전명	표준국어대사전	Oxford English Dictionary (OED)	현대한어사전	大日本國語辭典	Deutsches Wörterbuch	TLF
주관기관/ 편찬자	국립국어원	영국문화학회/옥스포드출판사	중국과학원 연구소	소학관 출판사	다수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소(CNRS)
편찬기간	1992~99 (8년)	1860~1928 (68년)	1956~78 (22년)	1961~76 (15년)	1838~1960 (122년)	1961~94 (23년)
표제어 수	510,268개 (2008년판)	615,100개 (2판)	56,000개	50만 개 (제2판)	35만여 개	91,534개

자료: 유현경 (2010), 235쪽, 부분적으로 요약 인용

주: 독일어사전은 통일성 결여 (안삼환, 2004)

2.2 외국어 사전의 분야분류

○ 주요 국가 대표 언어사전 비교

	표준국어사전	OED	일본 국립국어원	Roget
구분	학문: 전체 산업: 19 사고: 3 사회: 10 종교: 4 문화예술: 11 자연: 4 호칭: 7	학문: 13 산업: 45 사고: 1 사회: 20 종교: 3 문화예술: 9 <u>자연: 0</u> 호칭: 2	추상적관계 29 인간활동주체 8 인간활동 정신및행위 25 생산물및용구 8 자연물및자연현상 19 기타 6	추상적관계 6 공간 4 물질 3 지성 2 의지 2 감성 5
분야 수	58개	93개	95개	22개

주: 표준과 OED는 연구팀의 구분, 일본국어원과 Roget은 자체 구분

○ 특징

1. OED에 자연분야 없고, 호칭 적음.
- 영어권은 이 부분은 주로 백과사전에서 다루어짐
2. 일본어 분류는 명사분류 중심

○ Britanica 백과사전 (Encyclopædia Britannica, Inc., 2010)의 분야 분류

- 백과사전의 대명사로 2010년 인쇄본이 단종되고, 온라인본만 유통
- 86개 분류를 다시 재조정하면 59개로 압축
- 내용분포 (<http://en.wikipedia.org>) 2013. 05. 13

○ 브리태니카 백과사전의 분야분포 - OED와 보완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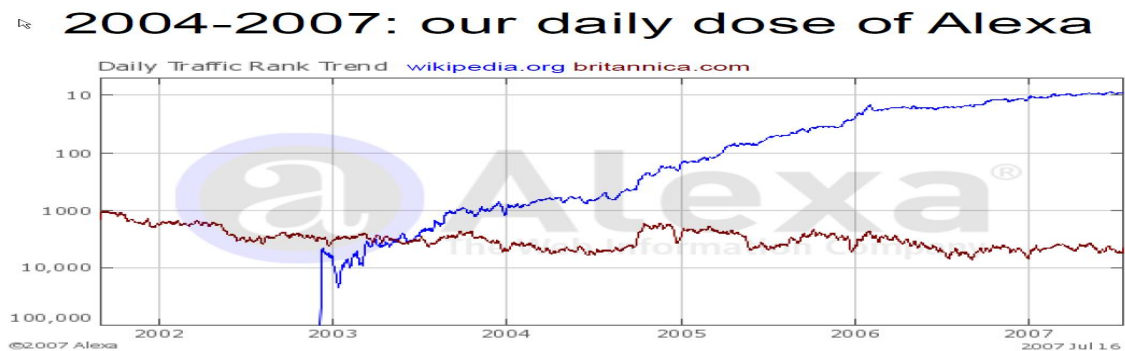
- 브리태니카사전의 분야는 여러 형태로 구분가능하나 지리와 사람정보 두 분야가 40%에 달함.
- 여기에 생물/의학분야를 추가하면 51%가 됨.

3. 온라인 사전 Wikipedia의 분야분류

○ 개요

- Wikimedia Foundation 운영, 위키책, 위키참고, 위키인용, 위키뉴스, 위키대학 등이 있음.
- Wikipedia는 백과사전, Wikitionary는 언어사전 형태임.
- 2008년 9월중 트래픽은 Wikipedia가 96%이고 Wikitionary는 1%에도 미치지 못함.
- 중요한 점은 이들에 대한 트래픽의 대부분이 Google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임.

○ 2003년부터 트래픽이 종이사전 Britannica 추월



○ Wikipedia의 분야분류 (Category:Main topic classifications)

- 분야는 2008년에는 7개이었음. 즉, 분야도 시간이 흐르며 진화되고 있음.
- 주제분류 24

▶ Agriculture (47 C, 170 P)	▶ Language (27 C, 66 P)
▶ Arts (35 C, 57 P)	▶ Law (51 C, 68 P)
▶ Belief (19 C, 69 P)	▶ Life (20 C, 19 P)
▶ Business (60 C, 120 P)	▶ Mathematics (18 C, 3 P)
▶ Chronology (20 C, 57 P)	▶ Medicine (53 C, 78 P)
▶ Culture (51 C, 81 P)	▶ Nature (19 C, 10 P)
▶ Education (54 C, 106 P)	▶ People (29 C, 3 P)
▶ Environment (41 C, 62 P)	▶ Politics (37 C, 68 P)
▶ Geography (26 C, 106 P)	▶ Science (33 C, 28 P)
▶ Health (32 C, 130 P)	▶ Society (68 C, 33 P)
▶ History (19 C, 41 P)	▶ Sports (38 C, 7 P)
▶ Humanities (27 C, 72 P)	▶ Technology (52 C, 107 P)

주: C: categories, P: pages

IV. 지적어휘 집합체 - 국가표준과학기술분류

1. 개요

○ 공식적인 목적

1. 국가과학기술의 기획·평가·관리의 기본체계로 활용
2. 과학기술예측조사, 국가기술지도, 기술수준평가, 과학기술연구활동 조사 등의 분류기준
3. 과학기술지식·정보 관리와 유통에 활용

○ 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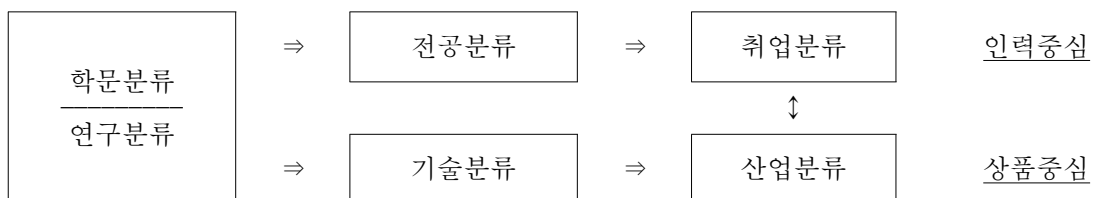
- 1999년 과학재단과 학술진흥재단의 분류체계를 통합 (설성수, 송충환, 1998; 1999가; 1999나)
- 2002년 과학기술기본법 제27조에 의하여 국가표준화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주관하여 2-3년에 한번 갱신하였으나 5년 주기 갱신
 - * 갱신 시에도 지속성을 위해 대분류 이상의 변화보다 중소분류의 변화
- 현재 2013년판 사용

2. 기본철학

○ 특징

1. 국가표준
2. 정책적으로는 국가 전체의 지식활동에 관한 상세한 지도작성이 가능
3. 경제적으로는 연구와 산업, 연구와 직업 연계 가능
4. 학문적으로는 기술융합이나 학제연구 표현이 자유롭고 새로운 분야 장려
5. 형태적으로는 연구분야 분류와 적용분야 분류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2차원 분류체계임.
 - 연구분야 분류는 분야(6개)-대분류(33개)-중분류(369개)-소분류(2,899개)의 4계층 구조.
 - 적용분야 분류는 분야(2개)-대분류(33개)의 2계층 구조로 구성됨.

○ 학문과 산업 및 취업의 연계 (설성수, 송충환, 노환진, 2007)



3.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연구분야		적용분야	
분야	대분류	분야	대분류
자연	수학 물리학 화학 지구과학	공공	X01.지식의진보(비목적연구) X02.건강 X03.국방 X04.사회구조및관계 X05.에너지 X06.우주개발및탐사 X07.지구개발및탐사
생명	생명과학 농림수산물보건의료		X08.교통/정보통신/기타기반시설 X09.환경 X10.사회질서및안전 X11.문화,여가,종교및매스미디어 X12.교육및인력양성 X99.기타공공목적
인공물	기계 재료 화공 전기/전자 정보/통신 에너지/자원 원자력 환경 건설/교통		
인간	역사/고고학 철학/종교 언어 문학 문화/예술/체육	산업	Y01.농업,임업및어업 Y02.제조업 Y12.전기,가스,증기 및수도사업 Y13.하수처리,재생및 환경복원업 Y14.건설업 Y15.출판,영상,방송 통신및정보서비스업
사회	법 정치/행정 경제/경영 사회/인류/복지/여성 생활 지리/지역/관광 심리 교육 미디어/커뮤니케이션/문화 정보		Y16.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 Y17.교육서비스업 Y18.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Y19.예술,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Y99.기타산업
인간과학과 기술	뇌과학 인지/감성과학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임시	인력 및 인프라		
계	7분야 33 대분류 (임시 외)		2분야 33개 대분류

V. 개방형 한국어 지식대사전의 분야분류 (안)

1. 개요

□ 새로운 사전 구축을 위한 분야분류의 필요성

○ 분야분류에 대한 초기 전산학자들의 반대

- 전산화 초기에는 지식사전 등을 만들 때 일부 전산학자들이 분야를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기도 하였음.
- 단어뭉치만 만들어 놓으면 검색에 아무런 손해가 없다고 본 것임.
- 그러나 단어가 많아지고 단어와 단어가 결합된 어휘들이 등장하며 검색에서도 효율적이고 빠른 검색이 가능하다는 인식이 확대됨.

- 또한 사전의 구축, 관리, 운용, 확장에서의 장점이 부각되며 인터넷사전에서도 분야분류는 필수임.

○ 사전에서의 분야의 역할

1. (구축) 초기에 사전의 내용을 채워야 하는 각 분야 전문가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함.
2. (운용) 각 분야 전문가들이 해당분야를 체계적으로 지켜보고 가감되는 내용을 검증할 수 있게 됨.
3. (관리) 또한 각 분야별 내용의 폭이나 깊이 차이를 파악해 전체 분류체계의 건전성 점검을 할 수 있음.
4. (확장) 새로운 내용이 추가될 때 그 내용을 담을 그릇으로 작용함.

□ 분야 분류의 이론적 기반

1. 언어발전 반영: (기초언어 -> 사회언어 -> 지적언어)
2. 사회 및 지적언어 부분에서는 다른 분야와 연계되도록 설정
3. 활동성 (2013년 7월 기준 국립국어원 보유 어휘 수 2,000-40,000어)
4. 특히 지적언어 중 한 분야만으로 설명이 쉽지 않은 경우 적용분야 개념을 추가
 - 예: 중력댐 => 분야분류 건설, 적용분류 전기 (Y12)

□ 분야분류의 철학과 원칙 - 개방형 별집의 구축

○ 기본 철학

1. 온라인 이용자가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 구축되어야 함.
2. 분야분류 체계는 구축할 때와 관리할 때의 원칙이 달라야 하고 개별 단어의 분야배정 원칙이 존재해야 함.
3. 분야분류 체계는 고정된 체계가 아니라 확장과 변형이 가능한 별집과 같은 체계이어야 함.
 - 일반 공개 전 구축단계에서는 고정된 분야분류를 채택하여야 할 것임.
 - 공개 후에는 해당 분야의 단어 수, 활용도에 의해서만 분야분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4. 국립국어원은 전체 구조 설정의 원칙, 관리원칙을 제공하고, 세부 정보는 국립국어원이 인정하는 전문기관, 이용자 집단 등에서 제공되는 형태가 되어야 함.
 - 어느 누구도 모든 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하부 분야는 해당분야 전문가가 판단해야 함.

○ 분류체계 구축 원칙

1. (분류체계 기반) 국가표준분류체계를 바탕으로 한다.

2. (구축용 분류체계) 분야를 대분류-중분류-소분류-세분류-세세분류(삭제) 등으로 단계화
3. (이용자용 분류) 사전에 표기되어 이용자들이 인지하는 분야는 중분류로 국한
4. (분야배정 혼란방지) 중분류는 혼란을 막기 위해 수십 개 이하로 설정하고, 분야정의.
5. (분야구축 책임) 중분류 이하 분류체계는 해당 분야 전문가 관리, 균형은 국립국어원 조정
6. (사회갈등 배제) 사회적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는 분류는 사전에 조정

○ 분류체계 운영 원칙

1. (국립국어원 역할) 대분류와 중분류까지만 관리, 그 이하는 각 분야별 전문기관이 관리, 전체적인 균형 담당
2. (구축과 운용 원칙 구분)
 - 일반 공개가 되기 전까지는 중분류까지는 고정형태로 운용한다.
 - 일반 공개 직전 점검에서 특정분야의 어휘가 특히 많을 경우는 해당분야의 분리를 점검한다.
3. (구축 후 이용자 참여) 공개 후 이용자 참여 가감수정 작업 허용

○ 분야배정 원칙

1. 한 어휘는 사용되는 여러 분류에 포함가능
 - 예: 원격처리: 전자원리이나 전기전자, 기계, 의료 등 어느 곳에서도 적용
2. 이용자가 볼 수 있도록 표기되는 분야는 중분류가 원칙이지만, 여러 중분류에 포함될 수 있어 대분류가 적용될 수도 있는바 이 경우는 색깔 등으로 구분 표시한다.
3. 단어가 복합된 경우는 보통 적용되는 분야에서 세부분류가 이루어지고 용어가 구축되는 경향이 있으나, 원리분야에 우선적으로 감안하여 배치되어야 한다.
 - 예: 건설IT -> IT원리이나 건설부문에서 주로 관심을 갖고 용어정의를 시도하는데, 구축은 IT분야에서 담당해도, IT분야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함.
4. 3항과 같이 적용되는 분야에서 구축된 용어는 원 분야에도 다음과 같이 포함되어야 함.
 - 예: 건설IT -> IT분야 > 분야별 IT > (건설IT, 전력IT, 의료IT 등).
5. 적절한 하위분류가 없는 내용은 큰 분류 밑에 배치한다.
 - 이후 해당분야 정보가 누적되면 분야배정 가능

2. 분야 구분 - 대분류/중분류 (안)

제안 (9-56)		표준국어대사전 (57)
1 종류		
2 개인과 생활	인명 생활 2	수학 물리 천문 화학 해양 5
3 지리와 지역	지리 지명 2	생물 동물 식물 <u>농업</u> 임업 수산 <u>의학</u> 약학 8
4 인간	역사 민속 고적 역사적사 건 철학 종교 언어 문학 8	전기 컴퓨터/전산 통신 건설/건축 <u>공업</u> 기계 <u>광업</u> 항공 교통 환경 10
5 사회	사회안전 군사 법률 정치 행정 경제 산업 경영 사 회 심리 교육 매체 12	역사 민속 철학 <u>논리</u> 종교 <u>불교</u> 기독교 <u>천주</u> <u>교</u> 문학 언어 10
6 자연	수학 물리 천문 화학 지 구 5	법률 행정 사회 정치 경제 심리 교육 언론 국방 군사 10
7 생명	생명과학 농림수산 동물 식물 공중보건 의학 약학 한의학 8	패션 미술 수공 연극 음악 <u>출판</u> 무용 영화 운동/오락/체육 9
8 인공물	기계 재료 전기 컴퓨터 전자/통신 자원 화공 환 경 건설 교통 10	인명 1
9 문화예술 및 체육	미술 디자인 수공 음악 연극 무용 영상 콘텐츠 체육 9	지리/지학 지명 2
		<u>책명</u> <u>고유명사</u> 2

○ 적용분야

공공	표준산업분류 단순화
X1. 지식진보 X2. 건강 X3. 국방 X4. 질서 X5. 탐사 X6. 인프라 X7. 환경 X8. 문화 X9. 인력 X10. 기타	A 농림어업 B 광업 C 제조업 D 전기가스수도업 E 환경건설업 G 도소매운수업 I 음식숙박업 K 금융보험임대업 M 전문서비스업 O 공공서비스업 P 교육서비스업 Q 보건복지서비스업 R 여가서비스업

* 국가 과기표준분류의 산업분류는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 분류를 그대로 활용하는 것이나 일부 생략된 형태임.

의학 전문용어 순화, 제작과 관련된 갈등 및 해결 방안

은희철
(서울대학교)

1. 서론

최근 20년 간 의학 전문용어는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특히 2001년에 발간된 의학용어집 4판은 과거에 발간된 1, 2, 3판과는 내용에서 많은 혁신적인 변화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그 후 의학계 뿐 아니라 다른 전문 분야에도 영향을 주어 나름대로 이 분야 발전에 기여하여 왔다고 본다.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의학계 자체의 지속적인 관심 뿐 아니라 국어학자들의 직간접적인 꾸준한 자문이 큰 역할을 하였다고 생각한다. 이 기간 동안 저자는 의학 전문용어 제작 및 순화와 관련된 여러 작업에 참여할 기회가 있었다. 피부과학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교육학회의 용어집 제작에 직접 관여하였을 뿐 아니라 『Stedman 의학대사전』을 번역한 『우리말 의학사전』의 제작 및 최근 국립국어원에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개방형지식대사전의 의약학 분야에 참여하여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 국어학자들과 직간접적으로 교류하게 되었으며 이는 오늘의 발표 기회를 갖게 된 동기가 되었다고 본다. 그간 저자가 경험한 다양한 실제 사례들을 정리 발표하고 특히 의학 전문용어의 순화와 제작 과정에서 겪은 여러 갈등과 이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2. 의학용어 순화와 저항

최근 20년 간 수행되어 온 의학 전문용어의 순화 과정은 크게 몇 가지 방향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어려운 한자어, 특히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소위 상용한자에 없는 것들로 구성된 많은 전문용어들을 비교적 평이한 한자어나 고유어로 바꾸었다. 둘째로는 평이한 상용한자로 구성된 용어라도 동음이의어로 인하여 이해도가 떨어지는 여러 용어들을 보다 이해하기 쉬운 고유어나 쉬운 한자어로 바꾸었다. 셋째로는 점차 확대일로를 걷고 있는 음차 용어로 된 전문용어들을 우리말로 바꾸었다. 그밖에 다양한 기법에 의하여 새로이 창출된 용어들을 기존용어들과 함께 병기하거나 권장용어로 추천하는 작업이 있었다. 이러한 작업은 단순히 기존용어의 순화로 그친 것이 아니라 현재도 무수히 제작되고 있는 새로운 용어들의 제작에 응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큰 의의를 두어야 한다고 저자는 지적하고 싶다.

어느 분야나 마찬가지로이지만 개혁과 개선에는 고통과 갈등이 따른다. 과거 20년 간 이 분야에서 있었던 일들을 시기적으로 크게 둘로 나누어 볼 때 전반 10년 간은 주로 진보적 용어 순화에 대하여 반발이 심했던 시기이고 후반 10년 간은 이미 순화된 용어들에 대한 보수적 회기에 대해 갈등을 겪고 있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갈등은 아직도

완전히 종결된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2001년에 발간된 『의학용어집』 4판과 이를 바탕으로 10,000여 개 핵심적인 의학용어를 정리하여 2005년에 발간된 『필수 의학용어집』에서는 한 용어에 두 가지 용어가 존재할 경우 앞에 있는 것을 권장용어로 추천하여 왔다. 반면 2009년에 발간된 『의학용어집』 5판에서는 4판과 체제는 거의 같으나 권장용어의 개념을 없애고 권장용어이든 기존 용어이든 임의로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서문에 명시하여 그동안 애써 만든 권장용어를 부정하려고 하고 있다. 나아가 고유어나 쉬운 한자어로 바꾸어 하나의 용어로 통일한 용어에 대해서도 삭제되었던 한자용어를 일부 부활시켰다. 이와 더불어 2006년도부터 수행되기 시작한 의학한림원 원탁토론회는 꾸준히 모임을 계속하면서 점차 보수 회기가 토의의 중심을 차지하게 되었고 중요 권장용어를 최종 조율한다고 만들어진 의학용어 표준화 심의위원회를 같이 운영하면서 의사협회 의학용어 실무위원회를 실질적으로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이로 인하여 원탁토론회에서는 최근까지 보수와 진보 사이에 매년 치열한 논쟁이 있었으며 급기야는 작년 말 의학용어 표준화 심의위원회가 해산되기에 이르렀다. 그 후 2013년에 결성된 의학한림원 용어위원회는 현재 보수 회기의 중심이 되고 있으며 한자를 다시 써야한다는 정책을 끈질기게 추구하고 있는 반면, 진보 진영은 그간의 용어 철학의 확산에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고 자부하고는 있으나 대부분 동일한 내용의 장기간 토의에 염증을 느끼고 이러한 보수화에 대해 점차 외면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갈등과 저항이 왜 쉽게 종결되지 못하고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가?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의학 전문용어 순화과정의 골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의사협회의 용어 위원회에는 약 20년 전부터 과거에 일본 학자들이 만들어 한국어에 차용된 대부분의 의학용어를 근본적으로 혁신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의학용어집 4판의 제작 과정을 통하여 이 같은 필요성은 각 산하 분과학회(해부학, 생리학, 피부과학, 외과학등)에 전달되었고 검토 요청을 의뢰하였으나 기존용어들에 대해 익숙한 약 40-50개로 구성된 의사협회 각 산하 분과학회에서는 이에 대해 많은 반발을 하였다. 그 후 수차례 반복적 되먹임과 교육 과정을 통하여 공감대가 어느 정도는 형성되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위로부터의 개혁이었음으로 저항은 필연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학용어 순화가 각 의사협회의 각 분과학회에 어느 정도 호응을 불러일으킨 것은 최근 20-30년간 의료보험의 급속한 확대와 정보화로 인해 난해한 의학전문용어들에 대한 일반인들의 개선 욕구를 전적으로 외면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이 분야의 문제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의사협회내의 많은 산하 분과학회는 의학전문용어 순화에 적극적인 성향을 보이는 곳이 있는가 하면 매우 보수적 방향을 추구하는 학회들까지 다양하다. 일부 학회는 용어위원회도 구성되어 있지 않으며 전혀 의협 정책에 호응하지 않는 학회들도 있다. 일반적으로 각 학회 용어 위원회의 구성과 선임은 우연한 기회에 주요 보직자에 의해 관행적으로 구성되는 것이 보통이며 이나마도 임기제로 운영되어 영속성을 추구하기가 힘들다. 따라서 용어위원들은 특별히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효율적인 정보 수집도 단절되는 경우도 많다. 또한 최근 사회 발전 속도는 상상을 초월함으로 자신의 고유 업무를 접어두고 이 같은 용어 작업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은 가장 인기가 없는 업무라고 간주되고 있다. 그나마 이 분야에 활기를 불어넣은 것은 의사 국가고시에 새로운 순화용어를 의무적으로 쓰게끔 한 출제 원칙의 마련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대부분의 전문의 시험이나 교과서 작성에 순화용어들이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어 효율적 정착은 험난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쓰는 사람 개개인들의 성향에 용어 선택이 크게 좌우되기 때문이다.

저자는 최근 『아름다운 우리말 의학 전문용어 만들기』라는 책을 언어학자 송영빈과 해부학자 정인혁과 함께 출간한 바 있다. 이 책을 만든 주된 목적은 무엇보다도 앞에서 언급한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인 지침서가 필요하고, 아울러 그 동안 용어 순화나 제작에 문제가 되어 왔던 모든 용어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예시하는 것이 갈등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책에 수록된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을 오늘 발표 자료로 사용하고자 하며 몇 가지 범주로 나누어 소개하고자 한다. 앞으로의 기술에서 각 용어들의 화살표 왼쪽에 있는 것은 순화되기 전 원래의 용어를 말하며 화살표 오른쪽에 있는 것은 순화된 용어를 말한다.

새로 만들어진 용어가 비교적 큰 저항 없이 잘 정착되는 예로는 일반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익숙한 고유어를 의학용어에 채택하여 어려운 한자어들을 대체하는 경우이다. 이와 관련된 대표적 예로는 좌창 → 여드름, 가피 → 딱지, 반흔 → 흉터, 개선 → 움 등이다.

어려운 한자어를 동일한 의미의 쉬운 한자어로 사용한 경우에도 쉽게 정착될 가능성이 높다. 대표적인 예로는 심상성 → 보통, 심상성좌창 → 보통여드름, 길항작용 → 대항작용 등이다.

기존 한자어가 상용한자에 벗어나 있어서 매우 난해한 경우 고유어 혹은 고유어와 한자어의 조합에 의해 창의적으로 용어를 만들 때 초기에는 다소 반발이 있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정착될 가능성이 높다. 대표적인 예로는 루 → 셋길, 횡혈조갑증 → 손발톱세로갈림, 어린선 → 비늘증, 경성하감 → 굳은케양 등이다.

반면 저항이 심한 경우를 몇 가지 유형으로 살펴보면, 새로 만든 고유어 용어가 일반인에게도 생소한 경우 한자용어가 어렵더라도 의사들은 이미 익숙한 용어들을 잘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 대표적인 것이 사구체 → 토리이다.

또한 기존 한자어 자체가 상용한자어로 구성되며 친숙한 경우도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인 예가 보채 → 도움채, 복막염 → 배막염 등이다.

고유어 사용에 의해 음절이 길어지는 경우도 저항을 일으킨다. 대표적 사례로 실조증 → 조화운동못함증, 무갈증 → 목마름없음 등이 있다. 저자의 개인적인 생각이기는 하나 이 경우 초기에 ‘조화상실증’이나 ‘갈증없음’으로 순화하였다면 더 정착될 가능성이 높았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용어가 어렵지만 이미 방송 매체를 통해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경우도 순화된 용어가 정착되기 어렵다. 대표적인 예가 골다공증 → 뼈영성증이다. 비슷한 예로 거의 기호 수준에 가까운 바보라는 의미의 치매나 혈떡인다는 의미의 천식도 이미 고치기 어려운 용어들로 보여 손대지 않는 편이 낫다고 본다.

제시된 번역어가 원어의 개념 전달에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나 제시된 번역어가 관련 용어들과 파생어 형성에서 통일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도 순화에

대한 저항이 매우 심하다. 다른 예이기는 하지만 개원의의 수입과 연관이 깊은 용어들 중에 이미 익숙한 것들도 쉽게 고쳐지지 않는데 대표적인 것들로 제모술->털제거술, 레이저박피술->레이저벗김술 등이 있다. 이와 비슷한 예로는 과거에 피부과에서 좌창을 여드름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한 때 모낭염이라고 부른 적이 있었다.

일반적으로 각 분과학회에서는 다른 과 용어들에 대하여는 비교적 진보적인 견해를 보이거나 자신들이 속해 있는 과의 용어들에 대하여는 보수적인 견해를 고집하는 경우는 흔히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정형외과 의사들은 다른 과 의사들보다 ‘무릎관절’보다는 ‘슬관절’을 고집하는 경향이 크며 비슷한 예로 이비인후과의 와우->달팽이, 피부과의 모낭->털집, 신경과의 연하곤란->삼킴곤란 등이 있다. 따라서 의협용어위원회에서 분과학회 주장을 무작정 들어줄 경우 용어 순화가 실패할 가능성이 높으며 한자어를 주장하는 보수적인 견해를 선호하는 일부 인사들은 이 같은 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어 소모성 토론을 유도하여 장기적으로는 한자 용어로의 회기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음을 밝히고 싶다.

과거 의학전문용어는 일본 학자들의 작업 결과를 그대로 여과 없이 복사한 것들이 문제였다면 최근에는 오히려 끝없이 출현하고 있는 전문용어들을 적극적으로 번역하지 않고 음차용어를 쓰고자하는 점이 큰 문제이다. 국어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음차용어 사용의 부당성을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번역하지 않으려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저자는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싶다.

1. 번역에 심혈을 기울이고 싶지 않다. 시간 낭비이다.
2. 번역하려고 하는 사람의 언어 감각내지 지식 경험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3. 음차용어를 쓰면 초기에 이를 모르는 사람들은 항시 묻게 됨으로 일시적 지적 우월감을 갖게 된다.
4. 후에 타인이 좋은 말을 개발하여 번역하더라도 잘 사용하지 않으려 하는데 이는 자신이 주도가 되어 용어를 만들지 못했다는 열등감이 바닥에 깔려있다.
5. 음차용어를 오래 쓰다보면 그것이 진정으로 좋다고 느끼며 더 나아가 익숙하다고 하여 이의 사용을 계속 주장하게 된다.
6. 번역어는 언어장벽으로 원어의 의미를 충분히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음차용어 사용에 정당성을 부여하고자한다.

어쩔 수 없이 음차용어를 쓰는 경우(물질명, 효소명, 균명 등)도 있겠으나 이러한 것들을 제외하고 실제로 음차용어를 써서 하등 이점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습관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대표적인 예는 미오필라멘트 → 잔섬유, 룡저 → 뼈집게, 에리트로포이에틴 → 적혈구형성인자, 시냅스 → 연결, 카테터 → 도관, 이끝관 등을 들 수 있다.

3. 의학용어 평가를 위한 지표

많은 용어들을 순화하는 과정에서 보수적 견해와 진보적 견해가 충돌하는 것은 흔히 본다. 이 경우 합의에 이르면 좋지만 끝까지 팽팽하게 대립할 경우 어떤 인위적인 평가표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 경우 평가 사항을 대개 10여 가지 항목(일의성, 의미 투명성, 언어적 정확성, 일관성, 통일성, 생산성, 적합성, 친숙성, 쉬운 말, 경제성, 간결성, 원어와의 대응성)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는데 저자는 이를 보다 단순화시킨 간이 평가표가 유효할 수 있다고 저자의 책에 이미 기술한 바 있다(표1).

표1. 간이 평가표

원래의 순화 지침	단순화된 순화 지침	가중치
일의성, 의미투명성, 언어적 정확성	의미전달성	2배수
일관성, 통일성	체계성	1배수
적합성/친숙성, 쉬운말	친숙성	1배수
파생성/생산성	생산성	1배수
경제성,간결성	간결성	1배수
원어와의 대응(대응어)	개념일치성	1배수

각 항목당 점수: 바람직함(3), 보통(2), 미흡(1)

즉 몇 가지 유사한 지표들을 합쳐 보다 단순화된 6개의 지침 항목 (의미전달성, 체계성, 친숙성, 생산성, 간결성, 개념일치성)으로 구분하고 각 항목당 1점에서 3점을 부여하고 이중 가장 중요시되는 의미 전달성에 2배의 점수를 가산하면 최저 6점부터 최고 21점에 이르는 간이평가표를 만들 수 있다.

이러한 평가표를 사용하여 모와 털을 실제로 비교하여 예시하면 모의 경우는 20개의 서로 다른 동음이의어가 사전에 등재되어 있으나 털이 경우는 단하나의 의미 밖에 없음으로 의미 전달성 항목에서는 털에 모 보다 많은 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고 본다. 반면 체계성에서는 모가 다소 우세하다고 판단되나 친숙성에서는 털이 우세하다고 판단되며 간결성과 개념 일치성에서는 같은 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최종 집계 점수는 모가 16점, 털이 20점으로 판정할 수 있다(표2)

표2. 모와 털의 간이 평가표

순화지침	모	털
의미전달성(2x)	1x2=2	3x2=6
체계성	3	2
친숙성	2	3
생산성	3	3
간결성	3	3
개념일치성	3	3
총점	16	20

각 항목당 점수: 바람직함(3), 보통(2), 미흡(1)

물론 이러한 평가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여러 가지 다른 대상 집단에서 시행하면 결과가 다르게 나올 가능성이 많다. 그러나 어떤 용어를 최종적으로 확정할 경우 계량적인 기준이 필요할 때가 있음으로 순화에 어려움을 겪는 용어들을 최종적으로 선별할 경우 용어위원들의 판단 지표로 이러한 반 계량적인 평가표를 선택적으로 사용하여 갈등을 조율할 수 있다고 본다.

4. 의학용어 순화를 위한 언어학적 지식

의학용어의 순화과정에서 터득한 많은 기법들은 그대로 의학 용어 제작에도 활용될 수 있다. 문제는 의학용어에 관심이 있는 의학자 들이 언어학의 지식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국어학자 들은 언어학 지식은 많으나 의학용어의 세부적인 개념을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으로 용어 제작 및 순화의 실제적 주체는 의학자 들이다. 따라서 의학자 들을 대상으로 용어 만들기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필요한 것은 자명하다. 이를 위해 기존에 있는 교육 자료를 나누어주거나 새로운 교육 자료를 개발하여야 할 뿐 아니라 실질적이며 체계적 교육을 위해 워크숍(연구집회) 형태를 취하는 것이 보다 좋다고 생각한다. 어문규정에 대한 교육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밖에도 저자가 판단하기에 의학전문용어 만들기에 필요한 언어학과 관련된 바람직한 교육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접사의 활용
2. 성, 적, 양, 상과 같은 관형사 기능을 하는 접미사류의 생략
3. 동사, 형용사의 관형형
4. 명사형 어미
5. 피동동사와 사동동사
6. 관형사
7. 부정의 여러 유형
8. 어근, 어간 + 명사
9. 은유와 직유
10. 의성어와 의태어 활용
11. 음절 생략 및 음절 추가
12. 기타: 체계 통일, 낙인과 혐오, 한 용어의 복수 의미 부여

위에 열거한 내용은 이미 의학 분야와 관련된 전문용어들을 모아 체계적으로 분석한 저자의 책 『아름다운 우리말 의학전문용어 만들기』에서 자세히 기술하였으므로 이곳에서는 지면 관계상 구체적인 것은 생략하고자 한다. 단지 위에 언급한 많은 실제 용례들을 검토하는 수준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며 자기가 속해 있는 세부 전문 분야의 용어 들을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자유자재로 제작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제시한 내용들에 대한 교육은 물론이고 추가적으로 의학자 들과 국어학자 들 간에 적극적인 토론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앞으로 우리나라 전문용어 확립에 크나큰 과제로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5. 새로 제안하고 싶은 용어

결론을 내리기 전에 위에 언급한 교육 내용과 관련시켜 새로 제안하고 싶은 용어들을 몇 가지만 예시하고자한다.

risnse-off product란 비누나 샴푸와 같이 피부에 바른 후 물로 씻어 버려 피부에 남아 있지 않는 화장품류를 말하며 leave-on product란 반대로 크림이나 로션처럼 피부에 남아 있는 화장을 말한다. 씻다, 남다라는 동사의 명사형과 사동형이나 피동형을 사용하여 ‘씻김화장품’, ‘남김화장품’이란 용어를 창출하고 싶다.

aphasia란 언어장애의 일종으로 한 가지 단어나 구만 반복적으로 말하는 병이다. 외래나 응급실에서 환자의 부모에게 병명을 이야기할 경우 ‘일어증’이나 ‘홀단어증’보다는 한단어증이 더 자연스러울 것이다. 물론 여기서 홀이란 접사를 사용한 홀단어증이 반드시 나쁘다는 것은 아니나 관형사 ‘한’을 쓰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부정은 전문용어 제작에 매우 중요하게 취급되어야할 사항의 하나이다. 많은 전문용어들은 ‘비, 미, 불, 미’와 같은 한자 접두사와 연결시켜 단어를 활발히 형성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것들의 유용성을 부정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의미 전달에 문제가 있을 경우 고유어 ‘없다, 안, 못’ 이외에도 다른 기법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nonvascularized bone graft는 ‘비혈관뼈이식’보다는 ‘혈관없는뼈이식’으로 ununited fracture는 ‘비유합골절’보다는 ‘안아문골절’로 고유어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보며 경우에 따라서는 이중 부정의 경우 긍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 athrombocytopenic purpura는 ‘비저혈소판자색반’보다는 ‘혈소판정상자색반’이 좋다고 본다.

음절을 추가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음절을 생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alternating generation같은 말은 세대교번이라고 쓰고 있으나 음절을 원래대로 살려 ‘세대교대번식’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반면에 inspiratory expriatory ratio와 같은 말은 들숨날숨비율 보다는 들날숨비율이라고 해도 의미 전달에 큰 영향이 없다고 보아 오히려 음절을 생략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전문용어에서 이러한 음절 생략과 음절 추가에 대하여 일률적인 지침을 정하기가 어려워 매우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으며 이는 조속히 정비하여야 할 과제의 하나로 보인다.

어근+명사의 형태는 최근 의학 전문용어에서 음절 절약 차원에서 조어가 시도 되고 있고 이러한 유형은 앞으로 자주 활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머릿피부와 같이 거친 털이 있는 부위가 아니라 얼굴 같이 솜털만 있는 피부를 현재 ‘매끈한피부’라고 부르고 있으나 저자의 생각으로는 ‘매끈피부’가 더 간결하면서도 좋다고 본다. 음절 절약은 전문용어 중 특히 합성어들을 만들 경우 매우 중요시 되어야 하는 기법이다. 이와 비슷한 예로 과거 경구개, 연구개로 부르던 것들을 현재 의학용어에서는 ‘단단입천장, 물렁입천장’ 등으로 이미 정리한 바 있다.

같다, 다르다는 가장 평범한 우리말 형용사이다. 이의 관형형인 ‘같은’, ‘다른’을 전문용어 합성에 사용한다고 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에 입각하여 ‘비등방성’, ‘이방향성’과 같은 어색한 말을 ‘다른방향성’으로 수정하고 싶고 ‘등장성성장’과 같은 말도 ‘같은 길이성장’으로 수정하고 싶다.

morcellation은 종양과 같은 크고 단단한 병적 조직을 잘게 썰어 제거하는 수술을 말하므로 ‘세절제거술’보다는 고유어 명사인 토막이란 말을 이용하여 잘게 토막을 내어 제거한다는 ‘토막제거술’이란 말을 새로 제시하고 싶다. 실제 신문에서도 ‘토막살인’이란 말은 간간히 보게 되므로 명사인 토막이 뒤의 말을 수식하여 새로운 합성어를 창출하는 것은 매우 간단하면서도 유용한 방법으로 생각된다.

최근 일반 의약품으로 지정되는 문제로 신문 지상에 오른 피임제로 morning after pill이란 약이 있다. 이는 에스트로겐 혹은 합성에스트로겐이 들어 있어 성교 후 임신을 피하기 위하여 성교한 다음날 바로 복용하는 알약이다. 현재 『의학용어집』 5판에 올라가 있지는 않지만 인터넷에도 ‘사후피임약’, ‘응급피임약’으로 기술되어 있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현재 ‘-약’이란 말은 상황을 제거시키는 것으로, ‘-제’라는 말은 상황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그동안 의학용어에서 통일되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이 말도 ‘사후피임제’나 ‘응급피임제’로 바꾸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피임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zymography는 전기이동법을 이용하여 효소를 구분하고 이를 조직화화학으로 식별하여 종이나 겔 내에 표현시키는 많이 사용되는 실험 기법이나 아직 적절한 번역을 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 이 방법을 사용하는 사람들과 토의한 결과 zymogram은 ‘효소활성조직화학구분도’로, zymography는 ‘효소활성조직화학구분법’이 적합하다고 의견을 모았으나 이와 같은 말을 그대로 제시할 경우 음절이 길기 때문에 음차 용어를 대체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것은 자명하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음절수를 줄이고자 하는 생각을 해야 하며 이 경우는 조직화학이란 말을 생략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보는데 이는 음절도 4개일 뿐 아니라 이 방법의 원리를 아는 사람들은 생략해도 의미 전달에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위에 언급한 것에 근거하여 zymogram은 ‘효소활성구분도’로 zymography는 ‘효소활성구분법’으로 최종 추천하고 싶다.

paraphimosis는 현재 ‘감금포경, 감돈포경’으로 번역되어 있다. paraphimosis는 음경 꺼풀이 뒤로 젖혀졌다가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며 심하면 부기와 국소적으로 혈액순환 장애가 오는 상태를 말한다. ‘감돈’이란 무슨 말인지 알기 어려운데 감금이 갇힌다는 의미여서 흡족하지는 않지만 부분적으로 이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말로 보인다. 이 두 말을 제시한 분들은 뒤의 포경을 수식하는 앞의 수식어를 찾느라고 애썼을 것이다. 이 경우 오히려 동사를 생각하며 말을 만들어 볼 필요가 있다. 핵심적인 내용은 ‘뒤로 젖혀졌던 포경이 원래대로 되돌아가지 않는다’이다. 여기에서 ‘포경’이란 단어가 꼭 들어가야 한다고 모두가 인정하기 때문에 앞의 수식어가 문제점으로 볼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되돌아가지 않는 → 되돌리지못하는 → 못되돌리는 → 못되돌린 → 못되돌림’과 같이 순차적으로 말을 만들어 보아야 한다. ‘감금포경’과 ‘못되돌림포경’을 비교할 때 후자의 음절

수가 4개에서 6개로 늘어난 것에 대해 저자도 불만스럽게 생각한다. 문제는 ‘감금포경’과 ‘못되돌림포경’ 중 어느 쪽이 원래의 의미를 더 잘 전달할 수 있는가이다. 만약 의미 전달이 우월하다고 생각하면 긴 음절을 감수할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원래대로 ‘감금포경’을 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 경우 감돈이란 어려운 말을 쓸 필요는 없다고 본다. 또한 가지는 주체적 관점을 바꾸어 다시 한 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즉 타동사인 ‘되돌린다’만 의식하지 말고 자동사인 ‘돌아온다’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 포경의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돌아오지 못한 상태이므로 ‘못돌아온포경’이 더 적당할지 모르겠다.

6. 결론

결론적으로 의학 전문용어가 올바르게 정착되기 위해서는 용어위원회가 합리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위원들을 지속적으로 교육하여야 하며, 컴퓨터를 활용하여 자료 수집, 토의과정, 용어 확정 방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야 하며, 국어학자와의 교류는 마지막 감수에 그칠 것이 아니라 초기부터 적극적인 교류가 있어야 한다. 아울러 만들어진 용어들의 적극적인 사용 방안에도 힘써야 할 뿐 아니라 약간의 재정 확보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비단 의학 뿐 아니라 모든 전문분야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국어학자 들에게 부탁하는 말은 다음과 같다.

보다 바람직한 전문용어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국어학자들의 적극적인 개입이 요망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각 분야 전문용어에 대한 의무적 자문과 최종 권한을 갖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각 대학 저학년에 기초적 전문용어 제작기술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각 전문분야 용어위원들과 유기적 관계를 설정하고, 여러 전문 분야 학자들과 함께 공동 순화 과정 및 공동 제작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좋으며, 아울러 모든 전문용어들을 전산화하여 모든 분야의 학자들이 전문용어 제작에 수시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고 싶다.

참고문헌

- 은희철,송영빈,정인혁(2013), 『아름다운우리말의학전문용어만들기』, 커뮤니케이션북스.
국립국어원·이화여대 국어문화원(2009), 『전문용어 정비지침』, 도서출판독수리사.
국립국어원·이화여대 국어문화원(2009), 『2009 전문용어 지원사업 최종보고서』, 도서출판독수리사

전문용어 사전의 이론적 배경과 그 흐름

- 뷔스터(Wüster) 사전부터 TERMIUM까지-

이현주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0. 머리말

흔히 전문용어 사전이라 하면 사전의 한 특수한 형태로서 사전학의 영역에서 다루는 사전류의 하위 집합으로 구분하게 된다. 그러나 사전학의 관점에서 전문용어 사전의 개념과 특징을 밝히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 문제이다. Humbley(1997)의 논문 제목 *Is terminology specialized lexicography?*이 시사하듯이, 많은 관련 연구자들이 전문용어학과 사전학의 관계를 정립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전문용어 사전에 대한 연구를 일컫는 표현 중에는 terminological lexicography도 있지만, terminography라는 보다 최근에 만들어진 신조어도 있다. 우리말로 이 둘을 변별할 만한 번역어가 마땅치 않으나, 서구의 연구 전통에서 이 두 표현은 많은 학자들에게 골치 아픈 연구 주제였다. 일부 학자들에게는 완전 동의어였으며, 또 다른 학자들에게는 방법론은 다르되 지향점이 같은 것이었고, 어떤 학자들에게는 전적으로 상이한 개념이었다. terminography와 terminological lexicography 이외에도, specialized lexicography, LSP lexicography, technical lexicography, lexicography of special languages 등 여러 가지가 혼재되어 사용되는데, 1990년대에 와서야 사용이 활성화된 terminography는 일반적으로 전문용어학의 관점에서 말하는 용어사전학을 뜻하고, 이보다 훨씬 오랜 역사를 지닌 *X lexicography* 유형의 경우는 일반 사전학의 관점에서 일반언어 사전 이외의 사전으로서, 특수 사전학, 전문어 사전학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일반사전학 관점에서 보는 전문용어 사전은 일반사전이 갖는 상위특성을 공유하는 사전의 한 유형이되, 전문용어학의 관점에서 전문용어 사전은 일반사전과의 차이를 통해 그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하였기에 일반사전학과의 공통점보다는 차이점을 더 내세우고 있다. 이들은 극명한 대조와 이분법적 시각을 서슴치 않으며, 이러한 입장은 전문용어학을 하나의 학문분야로 세우고자 한 초기 시대에 두드러졌고 현재까지도 그 영향 하에 있는 국제표준화기구(ISO) 등의 표준규범에서 잘 드러나 있다. 아래에서 살펴 볼 첫 번째 사전이 이러한 관점을 반영한 것으로서, ISO의 원리를 세우고자 한 뷔스터에 의해 만들어진 기계공학 분야 사전이다(이하 ‘뷔스터 사전’).

본 발표에서는 전문용어학과 사전학의 접경지대에서 전문용어 사전의 이론적 바탕과 그 흐름을 정리하고 특징적 사전의 사례를 분석한 후 앞으로 전문용어 사전의 나아갈 바를 전망해보고자 한다.

1. terminology, terminography vs. lexicology, lexicography

1.1 용어론과 용어 사전학

lexicology와 terminology, 그리고 lexicography와 terminography는 서로간의 형태적 유사성 때문에 상호 대응되어 이해되곤 한다. 그러나 lexicology와 lexicography의 관계와 terminology와 terminography의 관계는 서로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 어휘론과 사전학이 자립적인 학문분과를 이루고 있으면서 독립적인 연구가 가능한 반면, 용어론과 용어사전학의 경우는 따로 떼어 생각할 수가 없다. terminography라는 단어는 1970년대 초에 처음 사용되었지만, terminology는 그 태동기에서부터 실제적이고 활용의 측면까지 포함하여 사전, 데이터베이스 등의 결과물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용어의 실질적이고도 이론적인 영역이었다. terminography라는 말이 정착되기 이전에 이를 practical terminology, terminology management 또는 단순히 terminology로 불리기도 하였다.

Wüster 논문들의 원제를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문용어학 또는 전문용어 이론(Theory)이라고 번역하는 단어를 Terminologielehre로 쓰고 있는데, 독일어에서 Theorie가 많이 사용되는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보다 실질적인 지침으로의 의미가 강한 Lehre를 사용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일 것이다.¹⁾

이렇듯, 용어사전학은 용어론과의 관계 하에서만 정의될 수 있으므로, 우선 용어론에서 말하는 연구분야들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고 용어사전학의 특징을 기술하고자 한다.

ISO 1087-1 (2000)

전문용어 작업(terminological work) : 개념 및 그 명칭의 수집, 기술, 처리 및 제시의 체계화에 대한 활동

용어 사전학(terminography) : 전문용어 작업의 일부로써 용어 자료의 수록, 제시와 관련된 부분

용어론(terminology) : [...] ② 여러 전문영역에서 쓰이는 용어들의 구조, 형성, 발전, 사용, 관리 등을 연구하는 학문

"용어 사전학은 용어-개념의 대응관계 및 개념 체계 내에서의 개념들의 위치를 기록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활동이다. 즉, 한 개념 및 그 개념과 다른 개념들 사이의 관계 기술을 명확하게 제공하는 것이다." (Felber, H., 1987: 159)

"용어 사전학은 용어의 획득, 축적, 관리의 다양한 활동을 포괄한다." (L'Homme, M.-C., 2004:15)

위의 정의들 중 Felber²⁾의 것을 보면, 적어도 초기 용어론의 관점에서 용어 사전학과 용어론의 개념이 서로 중첩됨을 알 수 있다. 이는 용어 사전을 용어론의 모든 개념과 원리에 대한 집약적인 산물로 간주한 전통적인 용어론자들의 시각 때문이라 할 수 있다.

1) Cabre, M.T. (2003: 165) 참조.

2) Felber, H.는 Wüster의 제자이자, Wüster와 함께 Infoterm의 창립멤버이다. 전통적 전문용어론의 개념이 정리된 『전문용어 지침서(Manual of Terminology)』(1982, UNESCO)를 편찬하였다.

용어론의 기본원리라고 알려져 있고 현재에 와서는 많은 용어론자들의 비판의 대상이 된 항목들을 나열하면 아래와 같다.

1) 언어와 관련하여³⁾

- 개념의 우위
- 개념의 정확성 (일의성)
- 용어의 일의성 (동의어의 부재)
- 명칭에 대한 기호학적 이해
- 다른 언어 층위를 배제하고 어휘 층위에의 배타적 관심
- 용어에 대한 공시대 관점
- 구어보다 문어 층위에의 우선

2) 언어 진화와 관련 가정

- 언어 진화에 대한 의식적 제어 (계획, 통일화, 표준화)
- 명칭의 국제적 형태에의 우위
- 문어만을 관심의 대상으로 삼음

3) 작업 방법에 관하여

- 명칭론적 방법론의 배타적 이용⁴⁾과 그에 따른 주제별 정리에 대한 선호

위의 용어론 원리들은 언어학보다는 개념론, 논리학, 존재론 등에 바탕을 두고 있어 매우 추상적이라는 지적을 받기도 하고, 자연언어의 속성을 무시하거나 언어학의 기본 전제에 반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특히 다의어와 동의어를 인정하지 않는 점이나, 개념(즉, 기의)을 언어기호인 용어와 분리하여 용어를 단순히 개념에 대한 명칭, 즉 기표로 간주한다는 점 등은 지속적인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현재 ISO 등을 위시한 전통 용어론자들은 동의어에 대한 기준을 보다 완화하거나 현장에서 쓰이는 구어를 반영하는 등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개념의 용어에 대한 우위, 일의성, 표준화의 규범적 속성 등은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있으며, 이것이 용어 사전 속에 반영되고 있다. 아래 2절에서 이러한 과정이 가장 잘 반영된 뷔스터의 사전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 이전에 전통적인 용어론에서 말하는 용어 사전학과 일반 사전학의 차이점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1.2 용어 사전학과 일반 사전학

H. Felber(1982), G. Rondeau(1983), F.W. Riggs(1989), M.T. Cabré (1998) 등은 용어 사전학과 일반 사전학의 공통점보다는 차이점을 더 강조한다. 용어 사전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⁵⁾

3) Cabré, M.T. (2003: 166)

4) 이는 일반 사전학에서의 어의학적(semasiological) 접근방법과 대조된다.

5) Bergenholtz & Tarp (1995: 10), Bergenholtz & Kaufmann(1997: 92~93) 참조

	TERMINOGRAPHY	LEXICOGRAPHY
대상어	전문어만을 대상으로 삼음	일반언어
정보원	전문가	모국어 화자
사용대상	전문가	일상생활 속에서의 모든 화자, 일반대중
목적	텍스트 산출 용어 표준화	텍스트 수신 의미의 기술 및 설명
기술 방식	규정, 규범적	기술적
방법론	명칭론적 접근 방식	어의론적 접근방식
다의어 처리	한 개념에 여러 용어가 대응될 수는 있으나 다의어에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음	다의어를 적극적으로 다룸
분석 방식	모든 작업이 체계적(개념적) 범주화에 기반	개념적 범주화와 관련 적음
정의 방식	개념 기반의 정의 (백과사전적 정의 포함)	언어적 용례에 따른 정의 (언어내적 정의)
거시구조	체계적 거시구조를 선호	알파벳 순으로 나열하는 방식 선호
대상	개념과 용어	언어기호

이러한 이분법적 관점에 따라서 두 사전 유형을 비교해 보면, 표제어의 범위에 있어 용어사전의 경우 렉시(lexie), 즉 복합 용어 단위가 표제어로 등장하며, 표제어의 정보는 전문분야와 관련된 것만 취급하고 일상적 의미나 타 분야에서의 사용의미는 배제하여 해당 용어에 관여적인 내용만을 기술한다. 또한 존재론적 접근방식을 이용하여 각 분야의 개념체계를 구성하는 개념의 목록을 우선 구축하고 이 후 이것을 가능한 한 중의성 없게 환기할 수단을 선택한다. 용어론자들은 이를 위해 기존 용어들을 수집, 비교하기도 하지만, 필요할 경우 대안을 제시하기도 한다. 사전이 표준 규범을 제시해야 한다는 특징으로 인해 용어의 다양성을 보여주지 못하는 한계도 지닌다.

반면, Rey, A.는 일반 사전학의 한계를 명칭론적 방식을 수용하지 못 한 점으로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용어 사전에서 충족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용어사전학의 가장 독창적인 부분인, 명명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의미에 대한 연구가 일반적으로 일반사전학에서는 부재한다.” (Rey, A. 1995: 129~1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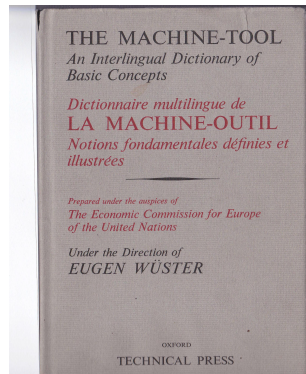
“전문용어학과 사전학의 관계는 매우 오래되고도 명백한 부분이 있다. 기술의 대상은 유사하거나 동일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식과 활동 영역의 명명 체계가 전문용어학의 특수한 목적인 반면 일반사전학은 사회 속에서의 단어의 기능과 행태와 관련이 있으며 이들은 전혀 다른 성질의 문제이다.” (Rey, A. 1995: 120)

2. Wüster의 사전과 그 특징

뷔스터의 기계학 사전 『*The Machine-tool. An Interlingual Dictionary of Basic Concepts/Dictionnaire multilingue de la Machine-outil. Notions fondamentales définies et illustrées (En-Fr)*』(1968)은 UN 산하의 유럽경제위원회(ECE)의 지원으로 출판된 사전이다. 이 사전은 총 11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8장에서 용어에 대한 본격적인 기술을 보여주고 있다. 1장은 본 사전이 편찬되기까지의 역사, 2장은 사전학적 주석이라는 제

목 하에 사전의 특징 및 자료 출처, 인용 등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3장은 참고문헌, 4장은 사전 부록의 활용 방법, 5장은 사전에 사용된 다양한 부호 및 약호, 6장은 본 사전이 대상으로 하는 전문분야도, 7장은 사전 어휘부의 개념도식(개념의 분류 목록), 8장은 본격적인 용어 사전 부분, 9장부터 11장은 인덱스에 해당한다.

<그림 1> 뷔스터 사전의 겉표지



특히 본 사전의 특징으로는 표준용어를 제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전의 틀 자체를 표준화하여 전문용어 사전의 형태적 표준화를 꾀한 점이 눈에 띈다. 사전의 특징을 간략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이개어 사전 : 전통적인 용어사전학은 국제적 소통을 위한 다국어 사전을 선호
- 표준화 : 용어, 용어의 정의, 제시 방식 모두 표준화
- 개념 지도: 상호 참조 기능을 통해 개념적 연관성을 제시, 삽화에서도 각 부분들에 대한 명칭을 용어 번호를 통하여 명시
- 문헌정보학 :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문헌 분류 체계인 UDC(범용십진분류체계)의 번호를 각 용어마다 명시하여, 관련 문헌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각 개념의 개념체계 내에서의 위치를 알 수 있게 함.
- 도록 : 뷔스터 사전은 언어사전보다 오히려 부품 카탈로그와 유사. 카탈로그 역시 표준화된 용어와 설명만을 수록하며 사진이나 그림이 풍부.

<그림 2> 뷔스터 사전 중 표제어의 개념 도식

UDC/CDU	Concept	Notion	Key Number Numéro de série	[7]
5/6	PHYSICS AND ENGINEERING (Common Concepts)	PHYSIQUE ET TECHNIQUE (Notions Communes)		
5/6	device outil ¹	dispositif outil ¹	1	
53	PHYSICS	PHYSIQUE	2	
53.08	MEASUREMENT (IN GENERAL)	MESURES (EN GENERAL)		
53.08	measuring device	appareil de mesure	3	
.085.3	reading device	dispositif de lecture	4	
.311	index ¹	index ¹	5	
	pointer; < index ¹	aiguille indicatrice	6	
.322	setting mark cross hairs	repère réglable; index ¹ croisée du réticule	7 8	
.323.1	vernier	vernier	9	
.341	spot of light	spot (lumineux)	10	
.4	scale ¹	échelle	11	
	graduation line; division ¹ graduation; scale ¹ division ¹	trait de la graduation; division ¹ graduation; division ¹ intervalle de graduation; division ¹	12 13 14	
.41	straight scale	échelle rectiligne	15	
.42	circular scale	échelle circulaire	16	
.088	measuring error	erreur de mesure	17	
.088.3	measuring accuracy	précision de mesure	18	
.6	correction	correction	19	

Classified List of Concepts

<그림3> 용어 정의 및 용어 배치 관찰

[8.136] Vocabulary *Vocabulaire*

484 UDC 621.833.1.062.2 f25
back gear shaft: The intermediate shaft (272) of a back gear (483), which can be either solid or hollow. A hollow back gear shaft ("quill", see 295) often turns on an axle having eccentric end journals (216); this allows the back gear to be disengaged (394) by the simple rotation of a handle.
arbre de harnais: Arbre de renvoi (272) d'un harnais (483), plein ou creux (295). L'arbre creux de harnais tourne fréquemment sur un axe à tourillons (216) excentrés permettant de dégager (394) le harnais par simple rotation d'une poignée.
Vide fig. 483

485 UDC 621.833.1.062.2-214
change gear case [box]: A housing (848), generally made of metal, intended to receive a train of change gears (466).
carter du train de roues amovibles: Logement (848), en général métallique, destiné à recevoir un train de roues amovibles (466).

86 UDC 621.833.12
sector gear: gear sector; toothed segment; segment gear: An oscillating gear wheel (379) which has been reduced to a sector only of a full circle so as to take up less space when mounted.
secteur denté: Roue dentée (379) oscillante réduite à un secteur de cercle pour diminuer son encombrement.

487 UDC 621.833.2
gears with intersecting axes; bevel gears ASA, BS: A toothed gearing (374) in which the axes of the gear wheels (379) intersect ~ vsm. The wheels (see 488) are conical (447); their envelope is a theoretically exact cone (1043).
engrenage à axes concourants NF; engrenage concourant VSM; "engrenage conique" NBN, NF, VSM: Engrenage (375) dans lequel les axes des roues (379) se coupent ~ vsm. Les roues (voir 488) sont coniques (447); leur enveloppe est un cône (1043) théoriquement exact.

488 ASA
381
380
Vide not. fig. 489, 490, 491

[8.137] Vocabulary *Vocabulaire*

488 UDC 621.833.2
bevel gear ASA, BS: A conical gear (447) forming part of a gearing with intersecting axes (see 487).
roue d'engrenage concourant VSM; "roue d'engrenage conique" NF; "roue dentée conique" NBN; "roue conique" dentée NF; "roue conique" NF, VSM; "Roue dentée conique" (447) faisant partie d'un engrenage concourant (487).
Vide fig. 487

489 UDC 621.833.22
straight bevel gear ASA, BS: A bevel gear (488) which constitutes a straight-toothed gear (440).
roue conique à denture droite VSM; "Roue conique" (488) qui constitue une roue à denture droite (440).

490 UDC 621.833.23
skew bevel gear ASA; "spiral bevel gear" BS (with straight teeth); A bevel gear (488) which constitutes a gear with straight oblique teeth (442).
roue conique à denture hélicoïdale VSM; "roue conique" hélicoïdale VSM; "Roue conique" (488) qui constitue une roue à denture hélicoïdale (442).

491 UDC 621.833.23
"spiral bevel gear" ASA; "spiral bevel gear" BS with curved teeth; curved-tooth bevel gear BS: A bevel gear (488) which constitutes a gear wheel with curved teeth (443).
roue d'engrenage concourant à denture courbe; "roue conique" à denture courbe; "Roue d'engrenage concourant (488) qui constitue une roue à denture courbe (443).

3. 그 밖의 전문용어 데이터 베이스

3.1 Infoterm의 IATE(구 EURODICAUTOM)

Land transport [CdT]

Result 1- 10 of 1058 for bearing

[Full entry](#)

EN mounting

bearing

	bush	-	-	-	
	portée de roulement	-	-	-	
	moyeu	-	-	-	
	alésage	-	-	-	
FR	roulement	-	-	-	
	palier	-	-	-	
	coussinet	-	-	-	
	bague	-	-	-	
Mechanical engineering, Technology and technical regulations [COM]					
EN	bearing	-	-	-	
FR	palier	-	-	-	
TRANSPORT, Land transport [COM]					
EN	bearing	-	-	-	
FR	appareil d'appui	-	-	-	
Mechanical engineering, Building and public works [COM]					
EN	bearing	-	-	-	
FR	appareil d'appui	-	-	-	
Communications [COM]					
	bearing	-	-	-	
EN	relative bearing	-	-	-	
	direct bearing	-	-	-	
FR	gisement	-	-	-	
Electronics and electrical engineering, Communications [COM]					
	elevation measurement	-	-	-	
EN	automatic range	-	-	-	
	bearing	-	-	-	
FR	détermination automatique des coordonnées	-	-	-	
Technology and technical regulations [COM]					
EN	bearing	-	-	-	
FR	coussinet	-	-	-	

en

Domain Electronics and electrical engineering, Communications

Domain note Communications:Applications:Radar,radiolocation

Definition the automatic determination of range,bearing,or angle of elevation of an object by a mechanism actuated by the echo

Definition Ref. IEV 60-72-120

Term **elevation measurement**

Reliability 3 (Reliable)

Term Ref. IEV 60-72-120

Date 24/09/2003

fr

Term automatic range
Reliability 3 (Reliable)
Term Ref. IEV 60-72-120
Date 24/09/2003

Term bearing
Reliability 3 (Reliable)
Term Ref. IEV 60-72-120
Date 24/09/2003

Definition détermination d'une ou plusieurs coordonnées d'un objectif par l'intermédiaire d'un servo-mécanisme commandé par les échos renvoyés par cet objectif

Definition Ref. VEI 60-72-120

Term détermination automatique des coordonnées
Reliability 3 (Reliable)
Term Ref. VEI 60-72-120
Date 24/09/2003

3.2 TERMIUM Plus

2009년부터 캐나다 번역청에서 제공하는 용어 데이터베이스로, 400만개의 표제어가 수록되어 있으며,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의 3개국어 사전이다. IATE와 마찬가지로 언어간 의사소통을 위해 디자인되었으며 용어의 정의(DEF)뿐 아니라 백과사전적, 문맥/화용적 의미(CONT)가 기술되어 있다. 또한 예외적 특성이나 특이점이 있을 때 이를 따로 명시하기도 한다.(OBS) 해당용어가 표준용어일 경우 이 또한 명시하도록 한다.

The screenshot displays the TERMIUM Plus website interface. At the top, there are navigation links for English, Français, and Español. The main content area shows search results for the term 'bearing' (English), 'relèvement' (French), and 'marcación' (Spanish). The results are organized into columns for each language, with sub-columns for '1. Subject Field(s)', '2012-08-31', and 'DEF'. The 'DEF' column provides detailed definitions in each language. The website also features a sidebar with various tools and resources, including 'Bureau de la traduction', 'Portail linguistique du Canada', and 'Mon TERMIUM'.

English	Français	Espagnol
1. Subject Field(s) - Aircraft Piloting and Navigation - Cartography 2012-08-31 bearing [Source] CORRECT, NORMALISÉ, UNIFORMISÉ BRG [Source] CORRECT, NORMALISÉ, UNIFORMISÉ bg [Source] CORRECT, UNIFORMISÉ DEF - The horizontal direction of an object or point usually measured clockwise from a reference line or direction through 360°. [Source] OBS - Magnetic North is the reference line generally used. [Source] OBS - bearing; BRG: term and abbreviation standardized by the Glossary for Pilots and Air Traffic Services (Glossaire des termes, abréviations et définitions d'uniformisation de la terminologie aéronautique (GITA)).	Domaine(s) - Pilotage et navigation aérienne - Cartographie 2012-08-31 relèvement [Source] CORRECT, MASC, NORMALISÉ, UNIFORMISÉ rel [Source] CORRECT, MASC, UNIFORMISÉ BRG [Source] CORRECT, MASC, NORMALISÉ, UNIFORMISÉ DEF - Azimut d'un objet ou d'un point, habituellement mesuré dans le sens des aiguilles d'une montre à partir d'une droite ou d'une direction de référence, de 0 à 360°. [Source] OBS - Le nord magnétique sert généralement de direction de référence. [Source] OBS - relèvement : terme uniformisé par le Comité d'uniformisation de la terminologie aéronautique (CITA).	Campo(s) temático(s) - Pilotaje y navegación aérea - Cartografía 2012-08-31 marcación [Source] CORRECT, FEM, UNIFORMISÉ BRG [Source] CORRECT, FEM, UNIFORMISÉ DEF - Dirección horizontal de un objeto o punto medida, usualmente, en sentido de las agujas del reloj con respecto a una línea de referencia o dirección, a través de 360°. [Source] OBS - La línea de referencia que se usa normalmente es el norte magnético. [Source] OBS - marcación; BRG: término, abreviatura y definición acordados oficialmente por la Organización de Aviación

4. 전통 용어론의 비판 및 그 이후 전문용어 사전의 경향

4.1 용어 이론의 변화, 일반언어학, 사전학의 영향

J. Humbley (1993), Bergenholtz & Tarp (1995), Bergenholtz & Kaufmann (1997) 등은 일반 사전학과 용어 사전학의 경계가 모호하며 거의 동일하다고 주장한다. Humbley(1997: 23)의 경우⁶⁾, 용어와 일반어휘 간에는 종류의 차이가 아니라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하면서 전통적인 용어론의 관점에서의 용어사전학을 지양한다. 이들은 용어론의 기여를 배척하지 않으면서도, 일반 사전학이 전문용어를 포괄하고 알파벳 순과 주제별 정리 방식을 모두 소화할 수 있다고 말한다. 또한 용어사전이 순전히 전문인들의 소통 도구가 아니라 해당 분야를 습득하고자 하는 비전문가를 대상으로 할 수 있으며, 산출과 해석의 두 목표를 추구할 수 있음을 설파한다. 모든 사전은 어떤 유형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삼는가에 따라 그 모습과 내용이 달라진다. 어떤 상황에 놓인 사용자가 이 사전을 펼쳐들며, 사전을 통해 사용자는 어떤 점이 충족되기를 바라는가 즉, 사용자의 유형과 요구되는 정보가 무엇인지에 따라 사전의 기능이 정해지게 된다. 용어사전 또한 사용자의 유형과 주요 목적에 따라 여러 다른 역할을 맡게 될 것이다. 근래에 이러한 관점을 수용하여 다양한 전문용어 사전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대표적인 사전을 아래에서 소개하고자 한다.

TERMIUM Plus는 번역의 도구로, DAFA는 학습의 도구이므로 해석과 산출의 사전 모습을 띠고 있다.

4.3 『프랑스어 경영용어 학습사전Dictionnaire d'Apprentissage du français』 (DAFA)

2000년 DAFA의 발간은 사전학적 측면과 용어학적 측면에서 모두 의미심장한 것이었다. 용어사전은 일반적으로 그 분야의 전문가가 집필하고 언어학자의 검수를 받는 과정을 거치는 반면, DAFA는 거꾸로 언어학, 용어학자들이 주집필자를 이루고 경영분야 전문가에게 검수를 받았다.⁷⁾ 그렇기에, 용어사전이 수록하는 용어와의 개념적 관련어, 상·하위어 정보를 담는 것은 물론이고 생성형 사전에 걸맞게 어구, 연어구성, 굳어진 표현들을 그 어떤 프랑스어 학습사전보다도 세밀하게 기술하고 있다. 사전의 서문에 이해와 산출의 사전임을 표방하면서 이를 사용할 독자에 대해서도 언급하는데, 프랑스어권 화자와 비프랑스어권 화자를 모두 아우르며, 경제와 경영 부문의 프랑스어를 더 잘 이해하고자 하는 학생, 직업인, 번역가, 비서 등 넓은 독자층을 대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프랑스어를 외국어 또는 제2외국어로 삼는 화자들이 실제 경영, 경제 부문의 의사소통 상황에서 그 분야 언어를 잘 사용하도록 돕고자 한다고 강조한다.

DAFA는 크게 4개의 주분야(기업, 상업, 재무, 노동)와 6개의 기타 관련 분야(보험, 경기, 자원, 교통, 성장, 경제) 그리고 어떤 분야에 속하는 전문용어라기보다는 경영 현상을 기술하거나 연구하는 데 필요한 어휘들이 속하는 도구어mot-outil의 범주로 구성되어 있고⁸⁾,

6) “단어가 어떤 문맥 하에서는 용어가 되고 또 다른 문맥에서는 용어가 될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 단어와 용어를 구분하기 위해 학자들이 제시한 여러 기준들은 종류의 문제라기보다는 정도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Humbley, J. 1997: 23)

7) DAFA는 안트워프 대학의 교육 사전학 연구소와 루벤대학의 언어 간 연구소가 합작하여 비농(J. Binon), 베를린드(S. Verlinde), 반다이크(J. Van Dyck), 베르텔(A. Bertels) 등이 기술하였다.

8) 도구어의 예로는 contrat, courbe, cycle, effet, fluctation, flux, indicateur, indice, montant, taux 등이 있

총 710쪽에 3200개의 표제어를 수록한 프랑스 경영 용어 학습사전이다.

전문어 학습사전에 대한 연구는 거의 불모지와 다름없는 상태이지만, 일찍이 무넝(Mounin 1983: 149~150)은 전문어 학습사전의 이상적 미시구조에 대해 연구하였다. 그에 따르면, 전문어 학습사전은 7가지 항목을 포함해야 하는데, 그 중에서 외국어 대응어를 제시하고 뜻을 풀이를 할 때, 표제어가 쓰이는 전형적인 (i)문맥과 계열체 정보에 해당하는 (ii)유의어, 반의어 등을 함께 제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⁹⁾ 레이(Rey 1992: 63)가 언급한 것처럼 “용어의 정의와 그 전형적 용례는 원칙적으로 개념체계를 알 수 있도록 제시”되어야 하는 것이다. 전문용어의 고유한 특성상 용어는 이웃하는 다른 개념과의 관련 하에서 더욱 그 개념이 명확해 지므로, 개념망을 구성하는 유의어(synonymie), 대립어(antonymie)는 표제어 및 부표제어의 의미 이해 및 보완의 기능을 할 것이다. 무넝이 강조한 문맥 역시 예문과 연어, 어구를 통해 풍부히 드러낼 수 있는데, DAFA의 미시구조를 통해서 위의 두 가지 특징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하겠다.

아래 표 4에서 인용한 épargne의 항목에서 볼 수 있듯이, DAFA는 주제어로 상정된 표제어(대문자로 표기) 아래에 파생어들을 부표제어로 두고 각 부표제어의 항목마다 그것이 포함된 어구들, 합성어, 연어 등을 상세히 제시하고 있다. 주제어 EPARGNE의 부표제어로는 épargne 자체와 épargnant(e), épargner가 제시되었고 각 부표제어에 뜻풀이와 어구 정보가 기술되어 있다. 어구의 유형으로는 숙어 및 관용표현에 해당하는 [expressions], 형용사와 결합한 하위용어[+adj.], 명사와 결합한 하위용어나 관련어[+n.], 동사와 결합하는 연어정보[+v.], 그리고 앞의 어구에서 다루지 못한 기타 합성어, 파생어 정보를 제시한다. 각 어구 정보는 뜻풀이에서 제시된 의미에 따라 구별되어 기술된다. 즉, 통사적 잣대로 나눈 후 그 하위에 의미적 범주를 구분하고 있다.

어구의 통사적 유형과 의미적 유형을 보다 자세히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expressions]** : 어느 정도 굳어진 응결구조로써 아래의 연어나 합성어 부류에 속하지 않는 숙어 및 관용어구가 포함된다. 예를 들어 주제어이자 부표제어인 profit에 대해서는 mettre à profit qqch., au profit de qqn, d'une oeuvre, Il n'y a pas de petits profits와 같은 구문이 뜻풀이 및 예문과 함께 제시되어 있다.
2. **[+nom]** : 이 범주에는 [nom+ prép.+ ~] 또는 [~+ prép.+ nom]의 형태가 속하며, [nom+ nom]의 형태도 종종 다루고 있다. offre de crédit, ligne de crédit; crédit d'escompte, crédit à vue; crédit clients, crédit fournisseurs. 그러나 [nom+ nom] 형태 중에 의미 변화와 불임표(-) 등의 철자법상의 변화를 동반하며 합성어가 된 경우, 본 범주가 아닌 [기타 합성어나 파생어] 범주에 속한다. 예를 들어 crédit-bail나 crédit-pont의 경우, 본 범주로 분류되지 않는다. 이 범주에서는 의미적 분류도 동시에 이루어지는데, 그 유형은 다음과 같다 : TYPE DE mot, MESURE DE mot, NIVEAU DE mot, CARACTERISATION

다.

9) 무넝이 제시한 7 가지 항목은 (1)표제어 (2)발음정보 (3)문법 규칙 (4)외국어 대응어 (5)정의 (6)예문 (7)삽화이다.

DE mot, LOCALISATION DE mot 등. 부표제어 bilan을 예로 들면, TYPE DE BILAN : bilan d'entrée, NIVEAU DE BILAN : équilibre du bilan, MESURE DE BILAN : le total du bilan; travail의 경우, CARACTERISATION DU TRAVAIL : travail de qualité, LOCALISATION DU TRAVAIL : travail à domicile.

3. [+adjectif] : 이 범주에서는 형용사나 형용사를 강조하는 부사와 함께 쓰인 명사구 연어가 포함된다. ouvrier spécialisé, ouvrier (hautement) qualifié, ouvrier non qualifié. 위의 범주와 마찬가지로 의미적 분류가 적용된다.
4. [+adverbe] : 이 범주는 표제어 또는 부표제어가 동사일 경우 기술된다. coûter cher.
5. [+verbe. qui fait quoi?]¹⁰⁾ : 어떻게 알맞은 언어구조를 사용하여 생각이나 문장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부표제어와 함께 쓰이는 동사뿐 아니라 주어, 목적어, 보어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의미 범주를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부표제어 excédent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동사구 연어를 제시한다.

X	enregistrer un ~	l'enregistrement d'un~
	dégager un ~	
un Etat,	(ac) cumuler un ~	l'accumulation des~
une entreprise		
l'~(de X)	atteindre + un montant	—
une mesure	accroître l'~(de X)	un accroissement de l'~(de X)

어형 및 문형에 따른 연어의 제시 외에 DAFA는 [기타 파생어 또는 합성어]라는 항목을 두어 표제어 및 부표제어들로부터 형성된 파생어와 합성어를 다루고 있다. 표제어 production에 대한 파생 및 합성어 란에는 그의 부표제어인 production, produit, produire와 관련된 surproduction, semi-produit, sous-produire 등과 파생어 productique가 정의, 예문, 동의어 등의 정보와 함께 기술되어 있다.

전문어 학습사전은 일반어와 용어, 일반 학습사전과 전문용어사전이 융화되어 있는 텍스트로서 전문어와 일반어 사이의 경계를 허문다. 가급적 쉬운 뜻풀이나 용어사전에는 등장하지 않을 연어나 표현(*C'est du beau travail. C'est un travail d'amateur* 등)이 수록된 것은 전문어 학습사전의 복합적 성격을 잘 반영한다고 하겠다. 또한 전문용어의 이해에 핵심이 되는 주제어, 개념에 의한 분류방식, 개념망 구축 등은 용어사전과 공통된 속성임에 반해 개념적 관련어를 알파벳 순서로 나열하고 그 관련성을 정의나 주석을 통해 보여주는 용어사전과 달리, 문형구조와 언어형태적 계열을 기준으로 제시하는 것은 전문어 학습사전만의 고유한 구조라 하겠다. 이러한 전문어 학습사전의 이중적 속성을 다음의 표로 정리할 수 있겠다.

10) 표제어가 동사일 경우 [+verbe]는 생략된다.

전문어 학습사전의 용어사전적 특성	전문어 학습사전의 학습사전적 특성
i) 용어의 일상적 의미 다루지 않고 분야 내 특수 의미를 다룸. ii) 분야의 지식체계, 개념구조를 반영함. 한 용어는 단독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용어와의 관계 하에서 의미가 완전해지므로 이를 사전의 미시/거시구조 속에 반영함. (용어의 상위어, 하위어, 연관어를 한번에 파악할 수 있는 구조.) iii) 표제어를 명사로만 채택. 다른 품사의 표제어(동사, 부사, 형용사)는 대표형이 핵심용어 또는 주제어의 부표제어로 처리.	i) 정의문을 통한 개념 전달방식 외에 실제 사용예와 문맥을 제시함. 사용시 주의사항 등도 주석으로 다룸. ii) 일반적으로 전문용어 사전은 발음기호 등 언어 정보를 생략하지만, 외국어 화자 등을 고려해 수록. iii) 언어정보와 세부 문형 정보, 언어의 유형별 배치. iv) 외국어 대역어를 통해 외국어 화자들에게 자국어와 연결할 수 있도록 함. (용어집은 보통 대역어를 제공하므로 이를 용어사전적 특성으로 볼 수도 있음.)

5. 맺음말

본 발표에서는 용어론의 관점에서 용어사전학을 정의내리고, 그 속성을 잘 반영한 사전으로서 뷔스터 사전과 IATE, Termium Plus 등을 살펴보고 일반 사전학의 관점에서 전문용어를 다룬 예로 DAFA 사전을 살펴보았다.

뷔스터의 전문용어 이론은 현실의 용어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어의학적으로 분석, 기술한 것이 아니라, 실제 엔지니어로서 소통의 어려움을 경험한 뒤 비중의적이고, 국제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용어 표준화를 주장한 것으로써, 독특한 언어 이론으로 발전하였다. 현대에 와서 동의어에 대한 입장 등 수정을 거쳤으나 표준화와 개념의 우위, 명칭론적 방법론 등의 주요 원칙은 계속 지켜지고 있으며 그대로 전문용어 사전에 반영된 것을 볼 수 있다. 뷔스터의 정신을 현대적으로 계승한 IATE나 Termium Plus가 이러한 모습을 하고 있다. 이후, 보다 언어학적이고 사전학적인 관점에서 전문용어의 사전이 개발되었는데, 특히 DAFA와 같이 형태론적, 통사적, 어휘론적, 화용적 차원을 두루 아우르는 사전의 시도는 새로운 전문용어 사전의 형태로써 환영할 만하다.

참고문헌

- Bergenholtz, H. & Kaufmann, U. (1997) "Terminography and Lexicography. A critical survey of dictionaries from a single specialised field", *Hermes, Journal of Linguistics*, n. 18, p.91~125.
- Bergenholtz, H. & Tarp, H. (1995) *Manual of Specialised Lexicography*,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Amsterdam/Philadelphia.
- J. Binon, S. Verlinde, J. Van Dyck, A. Bertels (2000) *Dictionnaire d'apprentissage du français des affaires*, , Didier, Paris.
- Cabré, M-T. (1998) *La terminologie. Théorie, méthode et applications*, Armand Colin, Paris.

- Cabré, M-T. (2003) "Theories of terminology. Their description, prescription and explanation" in *Terminology*, no.9:2, p.163~199.
- Humbley, J. (1993) "Is terminology specialized lexicography? The experience of French-speaking countries" in *Hermes, Journal of Linguistics*, no. 18, p.13~31.
- Kudashev, I. (2007) "Terminography vs. Lexicography Opposition Revisited", *VAKKI*, n. 34, p.157-166.
- Měchura, M.B. () "Finding the right structure for lexicographical data: experiences from a terminology project", *Computational Lexicography and Lexicology*, n. 2.
- Van Campenhoudt (2000) "De la lexicographie spécialisée à la terminographie: vers un 'métadictionnaire'", *Le sens en terminologie*, ed. P. Thoiron & H. Béjoint, p.127-152.
- Wüster, E. (1931) *Die internationale Sprachnormung in der Technik, besonders in der Elektronik* (La normalisation internationale dans les domaines techniques, particulièrement en électronique), Berlin, VDI-Verlag.
- _____ (1968) *The Machine-tool. An Interlingual Dictionary of Basic concepts*, Technical Press, Oxford.
- _____ (1971) "Begriffs- und Themaklassifikationen. Unterschiede in ihrem Wesen und in ihrer Anwendung"(Classification par concepts et thèmes. Différences dans leur nature et leur emploi), in *Nachrichten für Dokumentation*, No.3 & No.4, Frankfurt Mannheim.
- _____ (1974) "Die Allgemeine Terminologielehre - ein Grenzgebiet zwischen Sprachwissenschaft, Logik, Ontologie, Informatik und des Sachwissenschaften" (Théorie générale de la terminologie : point de rencontre de la linguistique, de la logique, de l'ontologie, de l'informatique), in *Linguistics*, No. 119, LaHaye, Mouton.
- _____ (1979) *Einführung in die allgemeine Terminologielehre und Terminologische Lexikographie*, Schriftenreihe der Technischen Universität Wien, Springer-Verlag.

Ⅱ. 기획 발표

전문용어사전의 정의와 지식표상

김현권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발표 요약>

전문용어의 정의를 위해 전문용어의 특성을 이해하고, 사전학적 고려를 통해서 전문 지식표상의 단위로서의 정의를 개념 분류체계에 따라 개념 부류별로 구조화, 패턴화하여 사전적 정의에 어휘 의미표상이론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한다. 이를 위해 <농생명과학대사전>의 사례를 인용, 분석한다.

1. 머리말

- 1) 문명과 과학기술의 발달, 산업과 직업의 분화, 신학문 탄생과 발달, 국제교류와 접촉, 인구 이동, 각종 매체 일상화, 삶의 다양화 : 일반어 어휘의 증가보다 전문용어의 폭증, 확산, 일반화
- 2) 전문 지식의 소통과 유포로 지식의 대중화, 생활화: 전문용어에 대한 이해와 사용 없이는 현대생활 자체가 불가능
- 3) 화자는 사회적 담론/담화의 생산, 유통, 소비에 직간접적으로 개입
- 4) 전문어는 분야 전문가의 문제만이 아니라 언어학자, 사전학자의 문제

1.1 전문용어(terminology) 또는 용어

- 1) 한 언어의 어휘부(Lexicon)의 한 부분을 구성: 어휘부=일반어(공통어)+ 특수어
 - 2) 특수어: 공간, 시간, 사회 영역에 따라 분화, 전문화
 - language for special purpose
 - jargon: 특수 직업어
 - terminology : 전문용어
 - 3) 일반어와 전문어의 경계의 불투명성
 - 전문용어: 분야 특정적인 의사소통에 사용되는 언어
 - > 학문의 융복합으로 여러 분야에 특정적으로 사용
 - > 분야 전문지식의 대중화로 일반어에 흡수
 - 일반어
- 분야 특정적 지식에 사용: 의미가 분화, 전문어로 등록

1.2 전문용어

- 1) 언어의 문법/어휘부의 규칙을 적용받는다.
 - 언어 화자가 사용하는 기호체계의 일부
- 2) 언어지식 표상보다는 세계지식의 표상
 - 언어 외적 사물, 사태에 대한 지시/개념을 지식 형태로 표상
- 3) 전문분야 특정적 지식을 표상
 - 전문용어는 전문지식을 표상하는 개념/지식체계의 구성요소
- 4) 언어사전 및 백과사전과는 거시/미시 구조에서 차이가 있다.
 - 지식의 내용과 범위; 의미지식-개념지식-세계지식
 - 표제항은 개념/지식체계의 한 요소이므로 언/백과사전보다 더욱 미시구조와의 관계가 밀접, 상호 의존적
- 5) 각 사전의 차이
 - 언어사전과의 차이: 언어지식을 표상한다.
 - 백과사전식 기술과의 차이: 세계지식의 기술이 열려 있음.
 - 전문용어사전: 미시구조 기술의 형식성이 필요
 - 제한된 개념/지식을 잘 표상하기 위해 개념을 엄밀히 정의, 이를 이용자가 가장 잘 식별하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해야
 - 개념/지식의 형식체계: ontology
- 6) 다양한 기호학적 표상
 - 언어기호뿐만 아니라 각종 비언어적 기호가 포함.
 - 수학기호, 화학구조식, 타언어의 기호체계, 도상 등

2. 전문용어 기술의 사전학적 문제

2.1 거시구조/미시구조

- 1) 전문용어의 특징을 잘 고려하여 거시구조를 결정: 여러 유형의 합성어와 통합체 (syntagme)가 표제항으로 사용
- 2) 개념/지식체계에 속하므로 비교적 상위, 동위, 하위 개념으로 잘 구성된 위계구조가 존재
- 3) 정교한 개념/지식 분류체계가 필요

2.2 의미표상과 지식표상

- 1) 전문지식체계 = {정의의 집합}
- 2) 전문지식 표상으로서의 정의는 언어지식의 일부 : 의미, 통사, 문법, 의미관계, 화용적 지식이 관여
- 3) 전문지식 이해에는 기지의 언어 배경지식이 기반

2.3 전문지식 표상으로서의 정의

- 1) 전문 개념/지식의 단위:

개념소/지식소(episteme): 명칭(denomination)+ 개념(concept)

cf. 언어기호= 기표(signifiant)+ 기의(signifié)

cf. 기호체계: 폐쇄체계

개념체계: 개방체계-외적 세계 참조

-> 외적 세계에 대한 지식이 개념 지식에 끊임없이 통합

2) 전문지식표상으로서의 정의:

- 정의 구성이 이질적, 다양
- 새로운 지식의 포함, 낡은 지식의 폐기, 새로운 발견과 해석 등등으로 끊임없이 표제항과 정의 내용이 변화

3) 개념/지식의 성분을 분류, 순서화, 위계화

- 핵심적 (속성) 지식+ 부차적 (관계) 지식+ 실용적 (응용) 지식 등등...
- 정의의 구조화, 패턴화가 필요: 동일 개념 부류에 속하는 성분은 동일한 정의 패턴으로 구조화
- 이를 통한 개념소의 공통성과 차이성을 식별하여 명료화
- 차후 언어처리 및 공학적 처리에 활용

4) 개념 체계와 분류

- 소위 지식체계학(ontology)의 적용
- 표제항의 개념분류체계: 분야에 따라 가변적, 차이
- 거시구조는 지식의 전문성(깊이)과 사용의 분포(넓이), 빈도 등 고려:
- 사전의 목적/목표, 대상(전문가, 비전문가, 교육용), 크기(표제항의 수)에 따라 가변적
- 표제항의 개념적 특성에 따라 정의 구성지식 표상이 달라짐

5) 정의 내 포함 정보의 다양성과 이질성, 개방성

- 정의 구성항 포함 요소의 이질성
- : 실체, 속성(성질), 형태, 색채, 양/무게, 과정, 작용, 변화, 기능, 양태, 전체/부분, 용도, 장소, 시간, 행위자, 수신자 등
- 이질적 요소: 동질적 지식단위(지식소/자질/속성)로 분할
- 동질적 지식단위의 모듈로 정의항을 분해해서 재구성

3. 생성어휘부(Generative Lexicon) 이론의 응용 가능성

3.1 사건구조(Event Structure)와 참여자(participant) 논항구조

- 상태, 과정, 변화, 상황(장소, 시간), 조건(기후, 온도),
- 실체, 행위자, 수혜자, 대상, 피험자,

3.2 특질구조(Qualia Structure)

자연 유형: 구성역, 형태역

인공 유형: 목적역, 작인력

- 1) 구성역(constitutive role): 대상과 구성 부분의 관계
물질/물리적 구성, 무게/질량, 전체/부분/성분 요소 등
- 2) 형태역(formal role): 개념을 구별하는 기본 유형
크기, 모양, 차원, 색깔, 위치, 구조
- 3) 목적역(telic role): 대상의 목적이나 기능
목적/목표, 내재적 기능, 역할, 용도(효용성)
- 4) 작인력(agentive role): 대상의 기원, 제작 등의 관여 요소
제작자, 인공/제조 결과물, 자연부류, 인과회로, 수단/방식/방법

3.3 관계구조(Relational structure)

분야, 영역, 세부영역, 실체 등 범주간 관계 기술, 범주내 관계 기술

4. 지식단위로 형식화, 기계적 처리

- 1) 템플릿(template) 구조의 적용 가능성 모색
- 2) 자연언어처리, 정보처리, e-business에도 다용도로 사용 가능
- 3) 해당 전문분야의 정보학(Informatics)과의 연계:

5. 일반어의 정의와 전문어의 정의

5.1 일반어의 정의

- 1) 일반어의 어휘는 수가 엄청 많고, 이질적
 - 2) 대부분이 다의적
 - 3) 복잡한 형태, 의미, 통사 관계
 - 4) 연어와 숙어 등의 통합체가 많다.
 - 5) 화자, 상황의 화시적 요소 개입
 - 6) 의미의 정의에는 모든 종류의 언어정보가 개입된다.
- cf. I. Meičuk의 설명결합사전(Explanatory Combinatory Dictionary, ECD)

5.2 전문어의 정의

- 1) 개념/지식분류체계 내에서 잘 한정된 부류 내에서 정의
 - 2) 상하위, 동위어에 의한 논리적 정의
 - 3) 일련의 지식단위와 속성의 집합에 의한 정의
- cf. 음소=변별자질의 집합
- 4) 핵심적 변별적 지식+ 부차적 지식/속성+ 실용적 지식+(참조, 관련 지식)
 - 5) 외연적 정의로 보완: 사물/사태에 대한 전형성에 의한 지시

6. 사례분석

6.1 <농생명과학대사전>/<개방형 한국어지식 대사전>

-현재 구축 준비중.

6.2 분야:

- 1) 전통적 분야: 작물, 원예, 축산, 임업
- 2) 최근: 농경제, 농경영, 농촌개발, 농교육, 농촌사회학, 식품학, 농공학...

6.3 생명과학 및 생태, 환경과의 지식체계 공유:

- 1) 의학, 식물학, 동물학, 수의학, 유전학, 질병학, 화학, 약학...
- 2) 인간과의 관계
- 3) 환경과의 관계

6.4 사례: 작물, 과수

- 1) 기존 사전의 정의문을 분석
- 2) 지식단위별로 부류로 분석, 부류를 태깅
- 3) [과수]를 특징짓는 핵심적, 부차적, 실용적 지식은 무엇인가?
- 4) 과수의 [종류]를 특징짓는 지식자질/속성은 무엇인가?
-공통 자질과 구별자질
- 5) 지식자질/속성에 의한 체계적, 관계적 정의 기술:
- 6) 정의의 구조화/패턴화/형식화

6.5 과실

- 1) 배, 복숭아, 포도의 정의 분석
- 2) 수형의 정의 분석

6.5.1 배의 품종(일부)

	[분류]	[선발]	[재배]	[형태]	[부분]	[재배상황]
감로	우리나라에서 육성한 배 품종 중의 하나.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서 1986년에 신고와 신수를 교배하여 1996년에 최종 선발하였다.	[재배] >[숙기] 숙기가 나주에서 8월 중순으로 신수보다 늦고, 행수보다 1주일 빠르다.	과실 모양은 원편원형이며, 과면 전체에 5개의 골이 나타나기도 한다.	[부분]>[과실/열매] [숙성=무게] 과실 무게는 310그램 전후로 소과이다. [과실/열매]>[과피] [숙성=색깔] 과피는 선황갈색으로 착색이 잘 되고 수려하다. [과실/열매]> [과육] [숙성=강도] 육질은 유연하고 [과즙] 과즙이 많으며, [숙성=당도] 당도는 13.8도로 감미가 높고, [숙성=맛] 석세포가 적어 식미가 우수하다.	[재배상황] 초기에 도입된 품종임에도 아직까지 인기가 좋다.
황금배	우리나라에서 육성한 동양배 품종 중의 하나.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서 1967년에 신고에 이십세기를 교배하여 1984년에 최종 선발하였다.	[재배]>[숙기] 중생종으로 나주에서 9월 중순에 수확한다.		[부분] > [과실/열매] [숙성=무게] 과실 무게는 430그램 전후로 [숙성=크기] 중과종이다. [과실/열매]>[과피] [숙성=색깔] 과피색은 황금색이고, [과실/열매]> [과육] [숙성=색깔] 과육은 백색이며, [숙성=강도] 육질이 유연 [과즙] 다즙하다. [숙성=당도] 당도는 14.9도로 감미가 높고, [숙성=맛] 산미는 극히 적어 식미가 우수하다.	

6.5.2 복숭아의 품종(일부)

	[분류]	[선발]	[재배]	[부분]
천홍	유도 복숭아 품종의 하나.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서 가든 스테이트의 자가교배 실향으로 부터 육성하였다.	[재배] > [숙기] 숙기는 7월 하순에서 8월 상순이다.	[부분] > [과실/열매] [형태] 과실은 타원형이고, [숙성=무게] 무게가 240그램 정도로 [숙성=크기] 다른 유도 품종에 비해 큰 편이다. [과실/열매] > [과피] [숙성=색깔] 과피는 진홍색으로 착색이 잘 되고, [과실/열매] > [과육] [숙성=색깔] 과육은 황색으로 핵 주위가 때로 붉게 착색되기도 한다. [숙성=분리성] 핵은 육질과 분리가 잘 된다. [숙성=당도] 당도가 12도로 높은 편이며, [숙성=향] 향기가 많고 [숙성=맛] 신맛이 적어 식미가 우수하다.
백도계	복숭아 품종의 하나.	1981년에 일본 오카야마현(岡山縣)의 대구보중오랑(大久保重五郎)이 육성하였다.	[재배] > [숙기] 8월 하순에 익는데,	[부분] > [과실/열매] [형태] 과실은 원형이고 [숙성=무게] 무게가 260~300그램으로 균일하다. [과실/열매] > [과피] [숙성=색깔] 과피는 유백색이고, [과실/열매] > [과정부] [숙성=색깔] 과정부가 선홍색으로 착색된다. [과실/열매] > [과육] [숙성=색깔] 과육은 백색으로 [숙성=맛] 단맛이 좋으며, [숙성=강도] 치밀하고 견고하다. [과즙] 완숙하면 과즙이 많고, 단맛이 좋아져_[숙성=맛] 품질이 우수하다. [숙성=분리성] 핵이 육질과 잘 분리되지 않으며, 핵 주위가 넓게 착색된다.

6.5.3 포도의 품종(일부)

	[분류]	[선발]	[재배]	[부분]
허니시들리스	씨 없는 3배체 포도 품종의 하나.	1968년 일본 과수시험장 안예진(安藝津) 지장에서 거봉과 쿡코드 시들리스(Concord Seedless)를 교배해서 1991년에 등록한 품종이다.	[재배] > [숙기] 8월 하순에 익는다.	[부분] > [열매/과실] > [송이] [속성=무게] 포도송이 무게가 100그램에서 150그램 정도이다, [열매/과실] > [알] [속성=무게] 포도알은 2그램 정도인데, [속성=색깔] 황록색으로 [속성=향] 여우향이 있으며, [속성=당도] 당도는 20도로 높다.
마리오	일본에서 리자마트(Rizamat)에 네오머스캣(Neo Muscat)을 교배하여_[선발] 육성한 포도 품종.		[재배] > [숙기] 숙기는 9월 하순이다.	[부분] > [열매/과실] > [과방=송이] [형태] 과방은 원추형으로 [속성=무게] 400그램 정도 된다. [열매/과실] > [과립=알] [속성=무게] 과립은 9그램 이상되는 대립종으로 [형태] 장타원형이다. [속성=당도] 당도는 18도 정도로 높고, [속성=맛] 산미는 약해 품질이 우수하다. [속성=강도] 육질은 아삭아삭하여 씹는 맛이 상쾌하다.
거봉	3배체 포도 품종.	일본의 중촌홍도(中村弘道)가 1976년 레드펠에머스캣 오브 알렉산드리아를 교배하여 육성한	[품종/시기] 조생종이며,	[부분]>[열매/과실] > [과립] [속성=크기] 자연상태에서 거의 무핵의 극소립이거나 지베렐린 처리를 하면 중립이 된다. [열매/과실] > [송이] [형태] 포도송이는 원통형이고, [열매/과실] > [알] [형태] 포도알은 난형이다. [열매/과실] > [과피] [속성=색깔] 과피색은 적갈색에서 자적색을 띤다. [과분] [속성=양] 과분은 중정도이고, [열매/과실] > [과피] [속성=두께]과피는 델라웨어보다 두껍다.

				[숙성=당도] 당도는 20도 정도로 높고, [숙성=맛] 신맛은 중간이며, [숙성=향] 향은 거의 없다. [숙성=분리성] 과피와 과육의 분리는 용이하고, [열매/과실] >[과육] [숙성=강도] 육질은 연하고 [과즙] 과즙은 많다.
네 오 머 스캇	유럽종 계통의 포도 품종.	일본에서 황 전(黃田)이 1926년 머스 캇오브알렉산 드리아 (Muscat of Alexandria) 에 갑주삼척 (甲州三尺)을 교배하여 1932년에 선 발 육성한	[숙기] 숙기 는 수원 지 방에서 9월 중하순 경으 로 중만생종 - [품종/시 기]이다.	[부분] > [열매/과실] > [과방] [형태]과방은 긴 원추형으로 [숙성=무게] 무게가 400~500그램 정도이다. [열매/과실] > [과립] [숙성=무게] 과립은 7그램 내외로 [숙성=색깔] 녹황색이며, [형태] 짧은 타원형이다. [숙성=당도] 당도는 16도 정도이고, [열매/과실]> [과육] [숙성=강도] 과육이 연하며 [과즙] 과즙이 적고, [숙성=향] 머스캇 향기가 강해 [용도] 생식용으로는 좋다.

6.5.4 지식단위(지식소/자질) 체계

1) 배

[분류]

[선발]

[재배] > [숙기]

[품종/시기]

[부분] > [열매/과실]

[속성=무게]

[속성=크기]

[열매/과실] > [과피]

[속성=색깔]

[열매/과실] > [과육]

[속성=색깔]

[속성=강도]

[과즙]

[속성=당도]

[속성=맛]

각 특성에 따른 지식단위(/자질)의 집합

[열매/과실]

> [속성=무게] = {310, 430....}

> [속성=크기] = {소과, 중과...}

[열매/과실] > [과피]

> [속성=색깔] = {선황갈색, 황금색...}

배

구성 = {과피, 과육, 과즙}

형태 = {모양, 색깔, 맛, 향, 무게, 크기, 당도, 강도...}

목적 = {식음, 껌...}

작인 = {선발, 재배, 수확, 저장, 판매...}

2) 복숭아

[분류]

[선발]

[재배] > [숙기]

[품종/시기]

[부분] > [열매/과실]

[형태]

[속성=무게]

[속성=크기]

[열매/과실] > [과피]
[속성=색깔]

[열매/과실] > [과육]
[속성=색깔]
[속성=분리성]

[열매/과실] > [과정부]
[속성=색깔]

[과즙]

[속성=당도]
[속성=맛]
[속성=향]

각 특성에 따른 지식단위의 집합

[열매/과실]
[형태] = {타원형, 원형...}
[속성=무게] = {240, 260, 300....}
[과피]
>[속성=색깔] = {진홍색, 유백색...}

복숭아

구성	= {과피, 과육, 과정부, 과즙}
형태	= {모양, 색깔, 맛, 향, 무게, 크기, 당도, 분리성...}
목적	= {식음, 잼,...}
작인	= {선발, 재배, 수확, 저장, 판매...}

3) 포도

[분류]
[선발]
[재배] > [숙기]
[품종/시기]

[부분] > [열매/과실] > [송이=과방]
[형태]
[속성=무게]

[열매/과실] > [알=과립]
[형태]
[속성=크기]
[속성=무게]

[열매/과실] > [과피]
[속성=색깔]
[속성=두께]

[열매/과실] > [과육]

[속성=강도]

[속성=분리성]

[과즙]

[과분]

[속성=당도]

[속성=맛]

[속성=향]

[용도]

[참고]

[관련]

각 특성에 따른 지식자질의 집합

[송이]

> [형태] = {원추형, 긴 원추형, 원통형...}

[알]

> [형태] = {장타원형, 짧은 타원형, 난형...}

[과피]

> [속성=색깔] = {황록색, 적갈색, 자적색, 녹황색...}

[속성=향] = {여유향, 머스캇향, 미약...}

포도

구성 = {과방, 과립, 과피, 과육, 과즙, 씨}

형태 = {모양, 색깔, 맛, 향, 무게, 크기, 당도,...}

목적 = {식음, 잼, 술, 기름...}

작인 = {선발, 재배, 수확, 저장, 판매...}

6.6 수형(정의)

분석 1) 수형

1. [임엽] > [수형]

구형 수형

둥근 공 모양으로 만들어진 수형. 자연 수형에서는 반송, 옥향나무 등에서 볼 수 있고, 인공 수형에서는 애기주목, 향나무 등으로 만든 토피아리에서 볼 수 있다.

2. [원예] > [분재]

반현애

줄기나 가지가 분의 윗면보다 아래로 뻗어 나무의 중심 위치가 분밑과 같거나 분밑보다 약간 위로 올라온 나무 모양. 기암 절벽 위에 아슬아슬하게 의지하고 사는 자연 수형을 모방한 것이다.

[작물] > [수형]

1. 분류

1.1 나무의 절단부분

1) 절간수(목)

[형태/구조]

어느 정도 연수(年數)가 경과된 굵은 나무줄기를 잘라내고, 굵은 가지도 짧게 잘라 새순이 싹트게 하여 기르는 인공 수형의 나무 형태.

2) 절지(수)목

[형태/구조]

나무줄기는 그대로 두고 가지를 짧게 잘라 그 절단부로부터 싹튼 맹아지(萌芽枝)를 키워 새 잔가지가 나오게 하는 인공 수형.

3) 절초수(목)

[형태/구조]

나무 끝부분인 초단부(梢端部)를 잘라서 여러 개의 새순을 싹트게 하는 인공 수형의 형태.

1.2 형태

구형, 원추형, 원개형, 방사형, 방추형, 세장 방추형, 배상형, 총상형

2. 종류

2.1 절단부분

1) 주간형 수형

[분류] > [적용수]

과수_교목성에서

[형태/구조]

원줄기를 영구적으로 수관 상부까지 키우고, 원가지를 상부에도 배치하여 원추 상태_[형태]가 되도록 하여 만든 나무 모양.

[효과성]

원가지수가 많고 원줄기와의 결합이 강한 장점이 있으나 관리가 불편하고 과실의 품질이 불량해지기 쉬운 단점이 있다.

2) 변칙 주간형 수형

[형태/구조]

중심되는 가지인 원줄기의 연장부를 제거하여 수관 내부를 열어주고, 그 아래 원가지를 4~5개 정도 유지하는 수형.

[분류] > [적용수]

사과, 감, 호두나무 등과 같은 교목성 과수의 유지 수형으로 적합하다.

[수세]

수세 유지와 함께

[효과성]

결실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3) 단축 주간형 (수형)

[분류] > [적용수]

감귤_교목성에서 적용하는 수형의 하나.

[형태/구조]

원줄기를 연장시켜 가며 양쪽으로 곁가지만을 만들어 간다. 곁가지는 기본 측지에 다시 측지를 두고, 그 측지에 과실이 달릴 수 있는 신초를 만들어 준다.

[효과성]

초기 결실을 앞당기고, 과실의 품질을 높이며, 생산비를 낮추는 데 효과적인 수형이다.

2.2 형태

1) 원개형 수형

[형태/구조]

나무의 모양이 가지와 잎이 옆으로 넓어지면서 둥근 수관(樹冠)이 형성되는 수형.

[분류] > [적용수]

키큰나무(=교목)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수형이다.

2) 원추형 정지(수형)

[형태/구조]

나무의 자연 수형에 가깝게 하되 원줄기를 중심으로 원가지를 적당히 배치하고, 나무 아래쪽은 넓고 위로 갈수록 뾰족한 형태가 되게 나무 모양을 다듬는 정지법.

3) 방사형 수형

[분류] > [적용수]

배나무_교목성 수형의 하나.

[형태/구조]

덕을 가설하지 않고 나무의 모양을 양주잔과 같은 형태로 만든 모양이다. 40~50센티미터의 원줄기에 5~7개의 원가지를 방사상으로 붙이고, 각 원가지에 1~2개의 덧원가지를 발생시켜 원가지와 덧원가지에 직접 단과지군을 형성하여 결실시킨다.

[효과성]

조기 수량이 많으나 태풍에 약하고, 수고가 높아져 관리가 어려운 단점이 있다.

4) 방추형 수형

[분류] > [적용수]

물레의 가락과 비슷한 모양으로 양끝이 뾰족한 원기둥꼴의 나무 모양. 과수 수형 중의 하나이며,

[하위유형]

방추형을 변형시켜 수폭을 방추형보다 좁게 하여 만든 수형을 세장 방추형이라 이른다.

[효과성]

방추형은 수폭이 좁아 광투과율이 좁기 때문에 밀식이 가능하다.

[분류] > [적용수]

왜성 사과나무_교목성 재배에서 많이 적용되고 있다.

5) 세장방추형 수형

[형태/구조]

정지와 전정을 통해 유지하는 나무꼴의 하나. 방추형을 변형시켜 만든 나무꼴로 나무의 폭을 방추형보다 더욱 좁게 유지하는 방법으로

[적용수]

왜성 사과나무_교목성에서 이용한다.

6) 배상형 수형

[형태/구조]

식물의 전체적인 형태를 보았을 때 크고 넓적한 잔을 닮은 모양.

[분류] >[적용수]

작물, 과수, 채소, 수목, 정원수 등의 수형(樹型)이 술잔 모양이 되도록 가지치기를 해서 만든다.

[형태/구조]

주간을 일찍이 제거하고 3~4월의 주지를 발달시켜서 만든다.

7) 자연개심형 수형(개심자연형)

[분류] >[적용수]

교목성 과수의 나무 모양 관리 방법의 하나.

[형태/구조]

짧은 원줄기에 2-4개의 원가지를 배치하되 원가지와 다른 원가지 사이에 간격을 두고 비스듬하게 기울게 키워 수관 내부를 완전하게 열어주는 방법이다.

[효과성]

주지의 분기점이 동일 위치에 있어 찢어질 우려가 있는 배상형의 결점을 보완한 수형으로

[분류] >[적용수]

배, 복숭아, 감귤나무_교목성에 적용할 수 있다.

[효과성]

수관 내부가 완전히 열려 있어 햇빛의 투과가 좋고, 높이가 낮아 관리도 편리하다.

8) 총상 수형

[분류] >[적용수]

나무딸기, 개암나무와 같이 지표면으로부터 여러 개의 줄기가 자라 올라오는 관목성 과수에서

[형태/구조]

여러 줄기를 한 묶음처럼 보이도록 전정하거나 유인하여 만든 나무 모양

<<분석>>

1. [분야]에 따라 개념이 다르므로 [분야/부류] 표시

-[부류]: 임업, 작물[과수], 원예[분재]

2) 분류의 교차

(1) 자연 수형과 인공 수형

(2) 절단부분에 의한 분류

(3) 형태에 의한 분류

3. 적용 나무

교목, 관목, 만성수목

2. [정의]

1) 지식속성에 의한 내포적(intensional) 정의

2) 전형성의 예를 통한 외연적(extensional) 정의]

3. 정의에 들어간 [나무]>[부분]과 연관 개념:

주간, 주지, 측지, 기본 측지, 줄기, 가지, 곁가지, 잔가지, 새 잔가지, 원줄기, 원가지, 덧원 가지, 단과지, 신초, 새순, 맹아지, 수관, 수폭

-> 용어 정리가 필요

4. [형태/구조]의 정교화, 명시화, 체계화, 차별화

5. 정의 순서

[분야] > {[형태/구조], [수세]}(내포), {[분류]>[적용수]}(외연), [효과성], {[참고], [관련]}

분석2) 포도나무의 수형

1. 분류

1.1 포도_평덕식 수형

[형태/구조]

시령과 같이 지주 위에 철선을 열기설기 걸치고 곁과 부위를 평면으로 만들어 주는 수형.

[분류] > [적용수]

포도와 같은 만성 과수에 적용되는 수형이다.

[종류]

주지의 배치에 따라 에이치(H)자형, 엑스(X)자형, 올백형, 우산형 등이 있다.

[재배] / [지역]_[수세]

비바람이 많고 겨울에 포도를 묻어야 하는 지역에서 비교적 세력이 강한 포도 품종들에 적용되는 수형 중의 하나이다.

① 일자형 수형

[분류]

포도와 같은 덩굴성 과수의 평덕식 수형.

[형태/구조]

덕의 높이에서 원가지를 좌우로 각각 1개씩 직선으로 키워 일자형 영구 원가지를 키우는 수형이다.

[정지]

수관 확대 없이 단초 전정이 가능한 품종에 적합하다.

② 개량 일자형 수형

[분류]

포도와 같은 덩굴성 과수에서 이용하는 평덕식 수형.

[분류] > [속성=혼합]

일자형과 웨이크만형의 장점을 모아 개량한 수형이다.

[형태/구조]

일자형 수형에서 원가지를 유인하는 철선을 덕 아래에 설치하여 원가지에서 나오는 새 가지를 웨이크만식 수형과 같이 원가지의 직각 방향으로 비스듬히 덕 위에 유인하여 관리한다.

③ 에이치자형 수형

[분류]

포도와 같은 덩굴성 과수에서 사용하는 평덕식 수형.

[형태/구조]

일자형 수형에 원가지를 좌우로 각각 2개씩 분지시켜 위에서 보면 에이치(H)자처럼 원가지가 배치된 수형이다.

[재배] > [토양]/ [수세]

수관 확대가 요구되는 기름진 땅이나 세력이 강한 품종에 적합한 수형이다.

④ 엑스자형 수형

[분류]

포도와 같은 덩굴성 과수에서 사용하는 평덕식 수형.

[형태/구조]

대표적인 자연 정지법으로 원가지를 엑스(X)자가 되도록 사방으로 펼친다.

[정지]

주로 장초 전정을 한다.

[수세]

이 수형은 재식 거리를 넓혀 나무를 크게 만드는 방법으로 세력이 왕성한 품종에 적합하다.

[효과성]

수관 확대는 빠르지만 정지와 전정이 어렵고 수형의 구성에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든다.

⑤ 변형 엑스자형

⑥ 우산형 수형

[분류]>[적용수]

덩굴성 과수의 평덕식 수형.

[형태/구조]

지주의 중간에서 원가지를 3~4개를 분지시키고, 여기에 2개씩의 덧원가지를 분지시킨 후 덧원가지를 절단하여 12~15개의 곁가지를 발생시킨다. 이 곁가지를 곁과모지로 이용하여 열매가지를 발생시키면 우산살과 같은 수형이 완성된다.

[효과성]

초기의 수량이 많으나 재식 4~5년 후

[장해]

밀식 장해의 우려가 있다.

⑦ 올백형 수형

[분류]>[적용수]

덩굴성 과수의 평덕식 수형.

[재배] > [속성_장소/경사]

경사지 과수원의 포도 재배에 적합한 수형이다.

[형태/구조]

원가지를 경사의 윗방향으로 신장시키는 수형이다.

1.2 포도_올타리형 수형

정의(없음)

① 웨이크만형 수형

[분류]>[적용수]

포도와 같은 만성 과수에서 이용되는 대표적인 올타리형 수형.

[형태/구조]

지주에 철주를 가로로 대어 티(T)자형으로 고정시키고, 이 철주의 양쪽 끝과 지주의 중간 위쪽으로 3개의 철선을 늘어뜨린다. 한 쪽 방향으로 원가지를 수평으로 철선에 유인하고,

[정지]

그 위에 어미 열매가지를 2~3마디 눈으로 단초 전정을 한다. 새 가지가 나오면, 상단 철선에 유인하여 키운다.

② 니핀형 수형

[분류]>[적용수]

포도나 양다래와 같은 덩굴성 과수의 나무 모양 정지법.

[형태/구조]

지주를 울타리형으로 치고 원줄기를 적당한 높이로 세우고, 결과모지를 양쪽으로 수평으로 뻗도록 하여 열매가지를 아래로 늘어뜨리는 수형이다.

[재배]

결과모지 밑부분에 예비가지를 두어 결과모지를 매년 갱신한다.

③ 개량 니핀형 수형

[분류] >[적용수]

포도와 같은 덩굴성 과수의 울타리형 수형.

[형태/구조]

니핀(Kniffin)식과 외관적으로 비슷하나 결과모지를 갱신하지 않고 영구 결과모지로 고정시켜며,

[정지]

그 위에서 나오는 열매가지를 매년 단초 전정을 하고, 여기에서 나오는 열매가지를 수직으로 올려 철선에 유인하는 방법이다.

④ 먼슨형 수형(없음)

⑤ 개량 먼슨형 수형

[분류]>[적용수]_[장소/행정구역]

우리나라 경북 영천지역에서 많이 사용하는 울타리식 포도 수형.

[형태/구조]

지주의 중간에 원가지 유인 철선을 두고 그 위로 지주에 붙인 앵글의 양쪽에 2단 유인 철선을 두며, 그 위 지주에 3단 유인 철선을 가설하여 원가지에서 나온 새 가지를 양옆으로 2단 철선에 유인한 후 3단 철선으로 모아 유인시키는 형태이다.

[효과성]

열간 좌우 양엽으로 광투과가 가능하여 수형 내부에 잎이 무성해도 광효율이 떨어지지 않는다.

<<정의의 지식소 분석>>

수형_1

	[분류]>[적용수]	[형태/구조]	[정지]	[종류]	[재배]	[효용성]
평덕식 수형		시령과 같이 지주 위에 철선을 열기설기 걸치고, 결과 부위를 평면으로 만들어 주는 수형.	포도와 같은 만성 과수에 적용되는 수형이다.	주지의 배치에 따라 에이치(H)자형, 엑스(X)자형, 올백형, 우산형 등이 있다.	[품종] > [속성=기후/수세] 비바람이 많고 겨울에 포도를 묻어야 하는 지역에서 비교적 세력이 강한 포도 품종들에 적용되는 수형 중의 하나이다.	
일자형 수형	포도와 같은 덩굴성 과수의 평덕식 수형.	덕의 높이에서 원가지를 좌우로 각각 1개씩 직선으로 키워 일자형 영구 원가지를 키우는 수형이다.	[정지] 수관 확대 없이 단초 전정이 가능한 품종에 적합하다.			
개량 일자형 수형	포도와 같은 덩굴성 과수에서 이용하는 평덕식 수형. [분류] > [속성=혼합] 일자형과 웨이크만형의 장점을 모아 개량한 수형이다.	일자형 수형에서 원가지를 유인하는 철선을 덕 아래에 설치하여 원가지에서 나오는 새 가지를 웨이크만식 수형과 같이 원가지의 직각 방향으로 비스듬히 덕 위에 유인하여 관리한다.				
에이치자형 수형	포도와 같은 덩굴성 과수에서 사용하는 평덕식 수형.	일자형 수형에 원가지를 좌우로 각각 2개씩 분지시켜 위에서 보면 에이치(H)자처럼 원가지가 배치된 수형이다.			[품종] > [속성=토양/수세] 수관 확대가 요구되는 기름진 땅이나 세력이 강한 품종에 적합한 수형이다.	

엑스자형 수형	포도와 같은 덩굴성 과수에서 사용하는 평덕식 수형.	대표적인 자연 정지법으로 원가지를 엑스(X)자가 되도록 사방으로 펼친다.	[정지] 주로 장초 전정을 한다. [효과성] 이 수형은 재식 거리를 넓혀 나무를 크게 만드는 방법으로 [수세] 세력이 왕성한 품종에 적합하다.			[효용성] 수관 확대는 빠르지만 정지와 전정이 어렵고, 수형의 구성에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든다.
변형 엑스자형						
우산형 수형	덩굴성 과수의 평덕식 수형.	지주의 중간에서 원가지를 3~4개를 분지시키고, 여기에 2개씩의 덧원가지를 분지시킨 후 덧원가지를 절단하여 12~15개의 결가지를 발생시킨다. 이 결가지를 결과모지로 이용하여 열매가지를 발생시키면 우산살과 같은 수형이 완성된다.				[효용성] 초기의 수량이 많으나 재식 4~5년후 [피해] 밀식 장애의 우려가 있다.
울백형 수형	덩굴성 과수의 평덕식 수형.	원가지를 경사의 윗방향으로 신장시키는 수형이다.			[재배/생육조건] > [숙성=토지] 경사지 과수원의 포도 재배에 적합한 수형이다.	

수형_2

	[분류]	[형태/구조]	[정지]	[종류]	[재배]	[효용성]
울타리형 수형						

웨이크만형 수형		지주에 철주를 가로로 대어 티(T)자형으로 고정시키고, 이 철주의 양쪽 끝과 지주의 중간 위쪽으로 3개의 철선을 늘어뜨린다. 한 쪽 방향으로 원가지를 수평으로 철선에 유인하고,	[분류] 포도와 같은 만성 과수_에서 이용되는 대표적인 울타리형 수형. [정지] 그 위에 어미 열매가지를 2~3마디 눈으로 단초 전정을 한다. 새 가지가 나오면, 상단 철선에 유인하여 키운다.			
니핀형 수형	포도나 양다래와 같은 덩굴성 과수의 나무 모양 정지법.	지주를 울타리형으로 치고 원줄기를 적당한 높이로 세우고, 결과모지를 양쪽으로 수평으로 뻗도록 하여 열매가지를 아래로 늘어뜨리는 수형이다. [재배] 결과모지 밑부분에 예비가지를 두어 결과모지를 매년 갱신한다.				
개량 니핀형 수형	포도와 같은 덩굴성 과수의 울타리형 수형.	니핀(Kniffin)식과 외관적으로 비슷하나 결과모지를 갱신하지 않고 영구 결과모지로 고정시켜며,	[정지] 그 위에서 나오는 열매가지를 매년 단초 전정을 하고, 여기에서 나오는 열매가지를 수직으로 올려 철선에 유인하는 방법이다_ [형태/구조].			
먼슨형 수형						
개량 먼슨형	우리나라 경북	지주의 중간에	[효과성] 열간			[효용성]

수형	영천 지역에서 많이 사용하는 울타리식 포도 수형.	원가지 유인 철선을 두고 그 위로 지주에 붙인 앵글의 양쪽에 2단 유인 철선을 두며, 그 위 지주에 3단 유인 철선을 가설하여 원가지에서 나온 새가지를 양옆으로 2단 철선에 유인한 후 3단 철선으로 모아 유인시키는 형태이다.	좌우 양옆으로 광투과가 가능하여 수형 내부에 있어 무성해도 광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는다.			열간 좌우 양옆으로 광투과가 가능하여 수형 내부에 있어 무성해도 광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는다.
----	-----------------------------	---	--	--	--	---

<<분석>>

1. 지식자질/속성

1) 분류

[과실나무] > [덩굴성] > 포도나무

2) [형태/구조]

3) 정지법

[정지/전정] > 단초전정/장초전정

4) [수세], [효과성], [참고]/[관련] 정보

2. 정의에 들어가는 용어

1) 용어 정리: 시령, 덕, 지주, 철주, (유인) 철선, 가지, 원가지, 주지, 덧원가지, 원줄기, 새 가지, 예비가지, 영구가지, 결과모지, 영구결과모지, 결과부위, 열매가지, 수관, 열매가지,

2) [형태/구조]: 기술 정교화와 차별화 기술

3. 기존 정의의 수정, 보완

1) 개념부류, 지식체계 구축

2) 지식단위/자질의 발견

3) 지식단위의 위계화: 핵심/부차/실용, 참조, 관련 지식 등

7. 맺음말

1) 개념 분류에 따른 표제어의 성질에 따른 정의의 구조 패턴화

2) 개념/지식체계 내에서 개념/지식의 자질 구축과 중요도/필수성에 따른 위계화, 순서화

3) 자질의 형식적 표상체계: 템플릿

4) 개념/지식체계 구축 및 온톨로지 구성

5) 사전학자와 전문가의 협동연구와 사전편찬의 협업 필요성.

참고문헌

개방형 한국어지식대사전_농업분야(준비중). 국립국어원.

김현권(2001) “전문용어의 언어학적특성과 사전기술의 문제”, 전문용어연구 3. pp.51-91.

김현권(2009) “설명결합사전(DEC)와 ‘시작하다’의 의미기술”, 한글 286. pp.141-188.

김현권 외(2003) “어휘의미지식 표상의 방법- 한국어 ‘사다/팔다’의 프레임 의미론적 접근”, 한글 262호. pp.171-214.

류수노 외(준비중). 농생명과학대사전. 한국방송통신대학출판부.

BARRIÈRE, C.(2004). "Building a concept hierarchy from corpus analysis". *Terminology*. Vol. 10, n° 2. pp. 241-263

BLANCHON, É.(1997). "Point de vue sur la définition". *Meta*, vol. 42, n° 1. pp.

168-173.

- CABRÉ, T.(1994). "Terminologie et dictionnaires". *Meta*, vol. 39, n° 4. pp. 589-597.
- CABRÉ, T.(1998). *La terminologie. Théorie, méthode et applications*. Paris: A. Colin.
- CONDAMINES, A.(1994). "Terminologie et représentation des connaissances". *Didaskalia*, n° 5. pp. 35-51.
- FABRE, C.(1997). "La polysémie dans la langue générale et les discours spécialisés". *Sémiotiques*, n° 13. pp. 15-31.
- GAUDIN, F.(1995). "Dire les sciences et décrire les sens : Entre vulgarisation et lexicographie, le cas des dictionnaires de sciences". *TTR*, Vol. 8, n° 2. pp. 11-27.
- JOUIS, C., MUSTAFA, W., BISKRI, I., LE PRIOL, F.(1997). "Vers la spécification et l'extension des relations terminologiques : typologie et insertion dans un système de significations des relations". *Lexicomatique et Dictionnairiques. Actes des IVème Journée Scientifique du réseau thématique « Lexicologie Terminologie, Traduction »*. Universités Francophones, pp. 203-216.
- LARIVIÈRE, L.(1996). "Comment formuler une définition terminologique". *Meta*, vol. 41, n° 3. pp. 405-418.
- LEHRER, A. & KITTA, E. F. (1992). *Frames, Fields and Contrasts*. Hillsdale: Lawrence Erlbaum Ass.
- L'HOMME, m.-C.(2004). "A lexico-semantic approach to the structuring of Terminology". *Proceedings of 3rd International Workshop on Computational Terminology*. pp.7-13.
- LERAT, P.(1990). "L'hyperonymie dans la structuration des terminologies". *Langages*, 25e année, n° 98. pp. 79-86.
- LERAT, P.(1997). "Approches linguistiques des langues spécialisés". *ASp*, 15-18/1997. URL <http://asp.revues.org/2926>.
- MELCUK, I.(1988) "Semantic description of lexical units in ECD: basic principles and heuristic criteria". *International J. of Lexicography*. 1:3. pp.156-188.
- MELCUK, I. et al.(1995). *Introduction à la lexicologie explicative et combinatoire*. Paris: Duculot.
- NIRENBURG, S. and RASKIN, V.(2004). *Ontological Semantics*. Cambridge: MIT Press.
- PEETERS, B.(ed.)(2000). *The Lexicon-Encyclopedia Interface*. Amsterdam, N.Y.: Elsevier.
- PORTELANCE, C.(1990). "Définition et potentiel de dénomination d'une nomenclature". *TTR*, Vol. 3, n° 1. pp. 99-124.
- PUSREJOVSKY, J. (1995). *The Generative Lexicon*. Cambridge: MIP Press.
- PUSREJOVSKY, J. (1991). "Generative lexicon". *Computational Linguistics* 17:4. pp.409-441.
- ROCHE, C.(2009). "Le terme et le concept : fondements d'une ontoterminologie". *Actes de la conférence TOTh* (Annecy, 4-5 juin). pp. 1-22.

- SEPPÄLÄ, S.(2005). "Structure des définitions terminographiques : une étude préliminaire". *Actes de la conférence Terminologie et Intelligence Artificielle* (Rouen, 4 et 5 avril). pp. 19-29.
- SEPPÄLÄ, S.(2008). "La définition en terminologie : typologies et critères définitoires". *Terminologie & Ontologies : Théories et Applications : Actes de la première conférence*, (Annecy, 1er juin). pp. 23-43.

‘전문용어사전의 정의와 지식표상’에 대한 토론문

조태린
(대구대학교)

이 논문은 일반어와는 다른 전문용어의 특성에 주목하면서 전문용어를 사전학적 고려 하에 전문지식표상의 단위로서 정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의 구성이 갖는 이질성과 다양성을 극복하기 위해 지식의 성분을 분류하여 순서화와 위계화를 시도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문용어의 정의를 개념 분류체계에 따라 구조화하고 유형화하고자 한 것은 전문용어사전의 체계적 기술을 위한 방법론을 모색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

특히 이 논문은 그동안 전문용어의 의미 기술과 사전 기술에 대해 많은 연구를 수행했고, 이를 위해 필요한 어휘 의미 관련 이론과 사전학 이론들을 적용하고 발전시켜 온 발표자의 기존 연구에 기반해 있기에 논의의 폭과 깊이가 남다를 수밖에 없다. 이에 이 분야에 대한 지식과 공부가 매우 부족한 토론자는 발표자의 생각을 좀 더 깊이 이해하려는 차원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하는 것으로 말은 바 소임을 갚음하고자 한다.

1. 이 논문에 따르면, 전문용어를 전문지식표상으로서 정의할 때에는 그 개념/지식의 성분을 핵심적 (속성) 지식, 부차적 (관계) 지식, 실용적 (응용) 지식 등으로 분류하여 위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러한 지식 성분들이 모두 전문용어사전에 담아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전문용어사전의 목적, 대상, 크기 등에 따라 포함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 이에 대한 발표자의 보충 설명을 바란다.

2. 이 논문에서는 전문용어의 정의에 생성어휘부 이론을 응용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는데, 토론자의 좁은 소견으로는 해당 이론의 모든 요소를 적용하기에는 분석 및 기술의 양이 너무 많아지지 않을지 우려되며, 특히 참여자의 논항구조나 특질구조의 작인력 등의 요소는 적용할 수 있는 대상 전문용어가 극히 제한될 듯하다. 이에 응용의 현실성과 효과성의 측면에서 생성어휘부 이론의 우선적 적용 요소를 선별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이에 대한 발표자의 의견을 듣고 싶다.

3. 이 논문은 전문용어를 위계화되고 순서화된 전문지식표상으로 기술해야 할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기술 모형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최종적인 모습은 아니더라도 가안으로서의 기술 샘플을 제시한다면 더 발전적인 논의가 가능할 듯하다. 혹시 대표적인 샘플을 하나 정도 제시해 줄 수 있을지 조금 성급한 요청을 해 본다.

4. 마지막으로 다소 근본적이고 너무 초보적인 질문일 수 있는데, 이 논문에서는 전문용어사전의 기본적인 독자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일반인? 관련 분야 종사자? 전문가? 그리고 그 대상에 따라 전문용어사전이 달라져야 한다면, 그것들 간의 핵심적인 차

이는 어떤 측면이어야 하는지 발표자의 생각을 듣고 싶다.

이상 토론자의 무지로 인한 우문이 발표자의 노고에 누가 되지 않았기를 바라며, 발표자의 너그러운 양해와 귀한 가르침을 기대한다.

<개방형 사전>에서의 전문용어 표제어 선정과 처리에 관하여

-경제 전문용어를 중심으로-

방영심
(이화여자대학교)

1. 머리말

전문용어¹⁾는 일상의 언어 생활에서도 일반어와 더불어 중요한 요소이다. 이를 반영하듯 전문어 사전이 아닌 일반 사전에서도 각 분야의 전문 용어들을 표제어로 등재하고 있다. 기존 종이사전뿐만 아니라 인터넷상의 사전들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종이사전과 인터넷상의 사전은 사전 제공 환경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종이사전의 기준을 적용하여 전문용어 표제어를 선정하고 풀이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사전에서 전문용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관한 여러 연구들도 국어학적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²⁾

그러나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정보가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환경에서 일반인들도 전문용어에 노출되는 빈도가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전문용어를 접했을 때 바로 사전을 검색해 볼 수 있는 환경이 됨으로써 전문용어는 해당 전문 영역에 한정된다는 경계가 모호해지게 되었다.³⁾ 특히 경제 전문용어의 경우, 경제 활동이 대부분 사람들의 일상에서 중요한 개념이고 이러한 개념이 뉴스 등을 통해 일상생활 속으로 전해짐으로써 일반어와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용어의 선정과 사전적 기술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여전히 기존의 국어학적 기준, 기존의 사전 기준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사전 체계 안에서의 일관성을 중시하여 일반인들의 이해도를 떨어뜨리는 경우도 많았다. 이러한 점들이 현재 국립국어원에서 제작하고 있는 개방형 사전(우리말샘)에도 그대로 이어지게 된다면 ‘수요자 중심의 한국어 자료를 집대성’한다는 개방형 사전

1) ‘전문용어란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은 지금까지 여러 연구에서 정의되어 왔다. 유승국(1997)에서는 ‘전문용어란 특정 사회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말로, 특히 전문 직업을 같이 하는 사람 사이에서 사용되는 말’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강현화(1998)에서는 ‘해당 전문 분야에서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 통용되는 말. 즉, 전문용어는 학문의 분화 및 전문화로 비롯된 새로운 지식이나 개념에 대한 표현을 위해 새로 만들어지거나 도입된 용어들’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김양진(2006)에서는 중사전에 포함될 전문어 표제어 선정에 대한 논의에서 ‘특수한 직업 집단에서 특별한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 중에서 일반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단어’라고 한정하고 있다. 『표준』에서는 ‘전문 용어’를 ‘특정한 전문 분야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어’라고 풀이하고 있으며,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 전문용어 분과 집필 지침에서는 ‘일반인이 쉽게 그 뜻을 파악하기 어렵고, 일부 전문 계층에서만 통용되는 언어를 말하는 것으로 전문적인 개념을 지니고 있는 것과 일반어이지만 전문적인 쓰임을 보이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본고는 전문용어의 정의와 범위를 새로 설정하고자 하는 바는 아니지만 전문용어를 ‘해당 전문 분야의 특정 개념을 기술하고자 만들어진 용어’로 정의하고자 한다.

2) 대표적인 논의로 강현화(1998)를 들 수 있다. 강현화(1998)에서는 전문용어에 대한 언어학적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전문용어 사전을 만들 때 국어학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로 ‘첫째, 분야별 소 분류의 필요성, 둘째, 관련어의 표기, 셋째, 의미 기술의 문제, 넷째, 용례의 제시, 언어 정보, 다섯째, 용언의 체계화 필요성, 여섯째, 잘못 사용되는 용어의 표시’ 등을 들고 있다.

3) 전문용어에 대한 비전문가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현상에 대해서는 조남호(2005:18)에서도 언급된 바 있다. 컴퓨터의 발달로 정보 검색이 활발해지고 기계 번역이 시도되면서 전문용어에 대한 비전문가들의 관심이 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식의 대중화도 전문용어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는 요인이 된다. 신문, 방송 등에서 일반 국민은 듣고 보도 모한 전문용어를 접할 기회가 많아졌다.

의 목표에 근접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⁴⁾

본고는 사전 이용자들의 전문용어 표제어에 대한 이해도와 성향을 분석하여 그것을 토대로 개방형 사전에서의 전문용어 처리에 대한 기준을 세워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인터넷 사전 주 이용자 중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인 3학년 학생⁵⁾을 대상으로 하여 인터넷 사전에서의 경제 전문어 처리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설문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본고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 해답을 찾아보고자 한다.

첫째, ‘개방형 사전에 등재할 전문용어의 표제어 선정 기준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것이다. 현재의 기준은 대부분 종이 사전에서의 전문용어 표제어 선정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개방형 사전에서 전문용어 표제어의 선정 기준은 종이사전에서의 전문용어 표제어 선정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도 가능한가? 둘째, ‘개방형 사전에서 전문용어를 제시할 때, 표제어부의 제시 방법은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다. 사전의 표제어부는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는데, 종이사전에서는 그중 많은 정보를 기호에 의존하고 있다. 종이사전은 이러한 기호를 ‘일러두기’와 같은 난을 서두에 둠으로써 사전 이용자들에게 정보를 주고 있지만 일반인들이 ‘일러두기’를 자세히 보지 않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아예 살펴보지 않는 경우도 많아 이러한 기호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그대로 묵인하고 개방형 사전에서 동일한 기호를 다시 사용해도 되는가? 셋째, ‘전문용어는 『표준』과 마찬가지로 용례와 연어 구성 등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이 적절한가?’ 하는 것이다. 넷째, ‘사전의 마지막에 제시되는 관련 어휘 정보는 유용하고 정확하게 제시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사전은 의미 정보뿐만 아니라 동의어, 어원, 상위어, 하위어 등 다양한 정보를 이용자들에게 제공한다. 전문용어는 ‘동의어, 참고어휘, 대역어’등이 제시되고 있는데 그 정보가 이용자들에게 유용한 정보인가 하는 것이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2장에서는 표제어 선정, 3장에서는 형태부, 4장에서는 어휘부에 대하여 『표준』과 개방형 사전의 처리들을 살펴보고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하여 개방형 사전에서의 처리 방안 중 고려해 보아야 할 점들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⁶⁾

2. 개방형 사전에서의 표제어 선정

2.1. 기존 사전에서의 표제어 선정 기준

- 4) ‘수요자 중심’이라는 목표 아래 ‘사전의 순환적이고 어려운 풀이 쉽게 수정, 실생활에서 사용되는 어휘 중심으로 사전 표제어 확충, 총 100만 어휘 규모의 실용 어휘 중심 사전 구축’이라는 세부 항목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세부 항목은 수요자의 편의를 위한 것이기는 하지만 웹사전의 수요자, 즉 사전 이용자의 요구와 사전 이용자의 성향 분석 등이 이루어졌는지는 의문이다.
- 5) 인문계열 20명, 자연계열 20명, 상경계열 2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각 계열별 선정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인문계열의 학생들은 다른 계열에 비해 국어사전, 백과사전 사용에 익숙한 학생들이다. 사전에 익숙한 학생들의 경우 사전 이해도가 다른 계열의 학생들보다 높을 것이라고 가정하여 사전 이해도가 높은 이용자들이 인터넷 사전에서 전문용어가 어떻게 제시되었으면 하는지에 대한 요구를 조사하고자 하였다. 자연계열의 경우 인문계열에 비해 국어사전, 백과사전 이용도가 낮고 경제 전문용어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두 번째 군으로 선정하였다. 상경계열의 학생은 인문계열에 비해 사전 이용도는 낮지만 경제 전문용어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이들 용어들에 대한 노출 빈도가 높을 것이라 예상하여 세 번째 이용자 군으로 선정하였다.
- 6) 현재 개방형 사전은 사전의 틀을 크게 ‘형태부’, ‘의미부’로 나누고 ‘형태부’에서는 ‘구분, 고유어 여부, 품사, 원어, 어원, 발음, 활용, 검색용 이형태’ 등을, ‘의미부’에서는 ‘풀이, 전문 지식, 묶음 문형, 의미 문형, 범주, 전문 분야, 학명, 대역어 용례, 의미 관계, 중요도’ 등을 제시하고 있다.

지금까지 기존 사전에서의 표제어 선정 기준에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은 여러 차례 있어 왔다.⁷⁾ 먼저 『표준』의 표제어 선정 기준을 살펴보기로 하자. 『표준』은 일반 원칙에서 “1-1. 1. 3) 전문 분야의 언어는 영역별로 선별하여 수록한다.” “1-1. 2. 2) 단어보다 큰 단위⁸⁾도 수록한다.”와 같이 원칙을 설정한 뒤 5항에서 전문용어의 선정 기준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 있다.

(1) 5-1. 일반 원칙

5-1-1. 표제어 선정 범위

1. 전문어 표제어는 북한어 전문어와 고유 명사를 포함하되, 고어·방언·속어 등과 일반 사회에서 쓰던 호칭 따위는 제외한다.
2. 기존 국어 사전들에 표제어로 등재되어 있는 전문어들은 우선 선정 대상의 자료로 삼는다.
3. 영역별로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 다룰 수 있는 정도의 전문어들을 대상으로 한다.
4. 영역별 전문어 사전과 전문 서적에서 폭넓게 나타나는 전문어들을 대상으로 한다.
5. 신어 가운데 전문어는 우리 사전에서 등재할 신어 자료 중에서 전문어 선정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2) 5-2-2. 경제

1. 표제어의 범위

- 1) 경제학(무역학) 이론, 경영학(회계학) 이론
- 2) 경제 제도, 경제 정책(소득 분배, 복지 정책), 기업 경영
- 3) 화폐, 재정, 금융(보험, 증권), 재무 구조, 유통, 부기, 회계 관련어
- 4) 주요 금융 기관, 경제 관련 공공 기관, 경제(인) 단체
- 5) 회사, 기업의 유형
- 6) 노사 관계, 근로자 복지 정책

(1)에 따르면 『표준』에서 전문용어 표제어는 ‘기존 사전 등재 표제어, 고등 교과 과정에서 사용되는 전문어, 전문 사전과 전문 서적에 올라 있는 전문어, 신어 중 일부’라고 정리할 수 있다. 또한 전문용어 표제어는 단어가 아니라 단어보다 큰 단위라고 하더라도 표제어로 선정할 필요가 있을 때 표제어의 자격을 얻을 수 있었다.

『표준』은 각 전문 영역별로 표제어 선정 기준을 설정하고 있는데, (2)가 경제 전문용어에 대한 세부 기준이다. 그러므로 (2)의 영역 안에서 사용되는 단어와 단어보다 큰 단위의 경제 용어들 중에서 (1)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제 전문용어들이 『표준』에 등재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표제어 선정 기준은 『조선말대사전』의 표제어 선정 기준과 크게 다르지 않다. 『조선말대사전』의 일러두기에 의하면 표제어를 선정함에 있어 “(1) 이 사전에는 오늘

7) 『우리말큰사전(1990)』, 『금성관 국어사전(1992)』, 『조선말대사전(1992)』, 『연세한국어사전(1998)』, 『표준』(1999), 『민중판 국어사전(1999)』 등 1990년대에 출간된 여섯 권의 사전에 대해 검토한 도원영(2000)은 이러한 사전들에서 표제어 선정의 원칙이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안의정·황은하(2010)에서는 『조선말대사전(1992)』, 『연세한국어사전(1998)』, 『표준』(1999), 『고려대한국어사대사전(2009)』의 일러두기 표제어 관련 정보를 검토하고 이들 사전의 기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8) 밑줄 필자.

날 조선말에서 쓰이고 있거나 지난달 쓰이었던 단어와 공고한 단어결합 및 성구와 속담들을 폭넓게 올리었다. …… 사회정치용어와 각 부분의 학술용어들 및 주요 사적들과 …… 독립적인 올림말로 올리었다.” “(2)각 사전에 올린 올림말의 원천은 …… ㄱ. 고전적 문헌들이 나오는 사회정치용어를 비롯한 각종 어휘부류들. ㄴ. 각 부문 과학기술 도서와 잡지 및 각급 학교 교과서들에 쓰인 과학기술용어를 비롯한 여러 어휘부류들과 그것을 고친 다듬은 말들”을 기준으로 하였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는 『표준』에서 제시한 ‘단어와 단어보다 큰 단위’, 그리고 ‘각 부문의 도서, 잡지 교과서’에 사용되고 있는 용어들을 등재한다는 원칙과 상당히 유사하다.⁹⁾

이와 같은 전문어 선정 기준은 개방형 사전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게 적용되고 있다. 국립국어원은 개방형 사전을 제작하면서 각 분야별로 표제어를 추가 선정, 집필하고 있는데, 전문 분야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각 분야의 용어집과 사전 검토, 교육 기관의 교재 검토, 전문 서적 검토 등을 통하여 표준국어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전문용어들은 선정하여 등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¹⁰⁾

그러나 표제어로 ‘단어’ 외에 단어보다 큰 단위까지 등재한다는 기준은 일관성 없이 적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는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단어와 단어 차원을 넘어서는 단위까지 표제어로 등재한다고 하더라도 전문용어의 표제어를 주로 명사 또는 명사구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사전 이용자의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다.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인터넷 사전 이용자들은 단어보다 큰 단위의 용어들에 대한 적극적인 표제어 등재를 요구했으며 명사구나 명사절뿐만 아니라 ‘명사+ 명사+ 하다’ ‘명사+ 명사+ 되다’와 같은 구성을 보이는 전문용어들에 대해서도 등재되기를 희망하였다.

2.2. 설문 조사 결과와 개방형 사전에서의 표제어 선정 제안

- 9) 『연세한국어사전』과 『고려대한국어대사전』은 표제어를 말뭉치에 근거하여 선정하였다는 점에서 『표준』이나 조선말대사전과는 다르다. 『연세한국어사전』은 ‘연세 말뭉치’에서 사용빈도가 14번 이상인 약 5만 개의 단어 및 문법 형태소를 표제어로 삼았고, 『고려대한국어대사전』은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에서 구축한 한국어 어휘 데이터베이스에서 가려 뽑은 어휘 약 39만 개를 표제어로 삼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전문용어의 표제어를 선정하는 것은 국어사전에서 전문용어 표제어의 등재를 더욱 어렵게 할 수 있다. 박동근(2006)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표제어를 선정함에 있어 말뭉치의 빈도 조사를 근거로 했을 때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고 유행어를 거르는 데 유용하지만 모어 화자가 정작 궁금해하는 저빈도 어휘를 누락할 가능성이 많다. 전문어의 경우 더욱 그러하다. 전문용어는 일반용어에 비해 사용 빈도가 낮을 수밖에 없으므로 전문용어 표제어를 선정함에 있어 빈도를 기준으로 삼고자 할 경우에는 일반균형말뭉치가 아니라 각 분야별 말뭉치 안에서 따로 빈도를 측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10) 경제 전문용어 팀에서의 발표는 없었으나 한국사전학 제20호에 실린 각 분야별 용어 구축 현황을 보면 대부분 이와 같은 기준이었음을 알 수 있다. 대표적으로 권은주(2012:33~34)에서 제시한 역사용어 팀의 표제어 선정 기준은 다음을 예로 들어 보이면 다음과 같다.

역사용어 구축을 위한 기반 자료 목록

- 1차 검토 자료: 역사용어집 및 역사사전
- 2차 검토 자료: 온라인 사전 및 교육기관 교재
- 3차 검토 자료: 사서, 전문 서적

이를 기반으로 최종적으로 걸러진 역사용어 표제어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기준은 다음 두 가지로 하였다.

① 역사용어 표제어는 일반 대중의 교양에 필요한 역사용어를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② 2000년대 이후 새롭게 정리된 역사용어 및 역사학계에서 통용되는 용어의 형태를 선정·제시한다.

먼저, 단어 차원을 넘어서는 용어의 표제어 선정에 관하여 살펴보자. 경제 전문어를 교정 교열하면서 용어의 의미가 표제어 구성 성분 의미의 단순 합이라는 이유로 전문용어 표제어에서 삭제한 다음 표제어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 | | | | | | | |
|---------------------|----------|-----|-----|------|-----|-----|
| (3) ㄱ.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 (반드시 등재) | 48명 | 80% | /미등재 | 12명 | 20% |
| ㄴ. 기업과 소비자 간 전자 상거래 | (반드시 등재) | 42명 | 70% | /미등재 | 18명 | 30% |
| ㄷ. 졸업생 취업률 | (반드시 등재) | 37명 | 62% | /미등재 | 23명 | 38% |

(3ㄱ)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로, ‘관형절+명사’ 구조로 이루어진 용어이다. 이와 같은 구조의 용어에 대해 반드시 ‘등재되어야 한다’가 80%, ‘등재될 필요가 없다’가 20%로 나타났다. 동일한 구조이면서 개방형 사전에 등재된 ‘시장 가격에 따른 가격 결정(83%), 경쟁 입찰에 따른 가격 결정(81%)’ 등과 유사한 비율을 보여준다. 이는 사전 이용자들이 ‘명사+명사’의 구조보다는 ‘관형절+명사’ 구조의 용어를 더 난해하게 느끼고, 그것이 비록 구성 성분들의 단순 의미합일지라도 표제어로 선정되어 사전에 있기를 바라는 바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ㄴ)과 (3ㄷ)은 용어의 의미가 구성 성분의 단순 의미 합이므로 굳이 표제어로 선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여 제외된 명사 구 구성의 용어들이다. 그런데 동일하게 구성 성분의 의미 합으로 보이는 명사구라고 하더라도 구성 성분의 복잡성에 따라 의미 응답자가 느끼는 의미의 투명도가 달랐고 이에 따라 표제어로 등재해야 한다고 답한 비율도 달라졌다. (3ㄴ)과 같이 구성 성분이 많아 용어가 긴 경우 더 어려운 전문용어로 인지했고 이에 따라 반드시 등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도 높아졌다. 명사구라고 하더라도 (3ㄷ)과 같이 ‘명사+명사’ 구성이면서 의미 투명도가 높을 경우에는 반드시 등재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현금 급여(55%)’, ‘헬스 산업(60%)’, ‘구매 행렬(47%)’, 고용자 수(23%), 객석 수(18%)’ 등은 개방형 사전에 경제 전문용어로 등재하였으나 설문조사에서는 오히려 ‘반드시 등재되어야 한다’는 비율이 각 괄호 안의 수치와 같이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이처럼 단어 차원을 넘어서는 표제어 선정에 관해서는 사전 편찬자와 사전 이용자의 기준이 다를 수 있다. 사전 이용자는 ‘두 개 이상의 단어가 모여 새로운 의미’를 반드시 생성하지 않더라도 그 구성 자체가 하나의 용어로 굳어져 특정한 개념을 지칭할 때는 전문용어의 표제어로 등재되기를 희망하는 비율이 높으며, 특히 표제어 구성 성분이 복잡할수록 표제어로 등재되기를 희망하는 비율이 높다. 김성진·정동열(2001:148)에서는 사전편찬학(lexicography)과 전문용어기술학(terminography)을 구분하면서 “전문용어기술학은 사전편찬학이 단어(word)를 대상으로 하는 것과 달리 용어(terms)를 대상으로 한다. 용어란 어떤 주제 분야에서 하나의 특정한 개념을 표현하는 기호 체계로서 하나의 단어 혹은 여러 개의 단어로 구성된다. 전문용어의 특성에서 살펴 보았듯이 전문용어는 구 형태가 하나의 개념을 나타내는 일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용어의 처리 문제를 고심하여야 한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개방형 사전은 기본적으로 사전편찬학적인 기준을 유지해야겠지만 전문용어 표제어 선정에서는 사전 이용자의 요구와 더불어 전문용어기술학적인 기준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둘째, 동사나 형용사, ‘명사+명사+하다’의 구성에 대한 등제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강현화(1998)에서도 주장된 바와 같이 전문용어가 체언에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 『표준』을 비롯한 국어사전에서는 그동안 전문어의 주표제어가 ‘명사+ 명사’의 구일 경우 ‘명사+ 명사+ 하다’의 구성이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표제어로는 등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와 같은 구성이 빈도 높게 사용될 경우 표제어로 등재해 주어야 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 | | | | | | | |
|----------------|----------|-----|-----|------|-----|-----|
| (4)ㄱ. 지원 활동 하다 | (반드시 등재) | 35명 | 58% | /미등재 | 25명 | 42% |
| ㄴ. 공개 매수 하다 | (반드시 등재) | 47명 | 78% | /미등재 | 13명 | 21% |
| ㄷ. 성별 직종 분화 되다 | (반드시 등재) | 50명 | 83% | /미등재 | 10명 | 17% |

(4)는 ‘명사+ 명사+ 하다 (또는) 되다’의 구성으로 이루어진 용어들이다. 이러한 용어들은 그 쓰임이 있더라도 사전에 표제어로 등재하지 않았었다.¹¹⁾ 그러나 개방형 사전과 같은 웹 사전에서 ‘하다’ 또는 ‘되다’가 결합한 형태를 굳이 사전 표제어로 배재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쓰임이 확인되는 이러한 부표제에 대하여 ‘반드시 등재되어야 한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전의 체계에서 이러한 유형은 등재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용자의 요구와 편의를 고려한다면 쓰임이 확인되는 이러한 부표제어의 등재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셋째, 동일한 의미를 지닌 ‘-제/제도’, ‘-비/비용’, ‘-법/방법’ 등과 같이 이음절 한자어와 의미가 동일한 일음절 한자 접사가 모두 결합 가능한 용어의 등재 여부이다. 개방형 사전에서는 『표준』에 ‘-제’가 결합한 표제어가 등재되어 있을 경우 ‘제도’가 결합한 형태를 등재하지 않는 방식을 취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이형태를 적극적으로 반영한다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전 이용자들에게도 편리성이 높지 않다. 예를 들어 ‘개인 퇴직 계좌 제도’가 아니라 ‘개인 퇴직 계좌제’를 접한 사람이 사전에서 ‘개인 퇴직 계좌제’를 검색하여 찾지 못했을 경우 이러한 표제어 자체가 없다고 생각하거나 ‘제도’가 결합한 형태를 생각해 낸다 하더라도 다시 표제어를 입력하여 검색해야 하는 수고를 하게 된다. 이처럼 ‘-제/제도’와 같은 짝을 지닌 용어에서 둘 중 하나만을 취사선택하여 등재하는 것은 사전 이용자에게는 편리하지 않는 형식임에 틀림없다.

(5)는 이와 같은 용어들에 대해 어떤 표제어가 사전에 등재되었으면 하는가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이다.

- | |
|--|
| (5)ㄱ. 개인 퇴직 계좌 제도(8%)/개인 퇴직 계좌제(5%)/둘 다(87%) |
| ㄴ. 납입 비용(10%)/납입비(5%)/둘 다(85%) |
| ㄷ. 배당금 지급 방법(9%)/배당금 지급법(4%)/둘 다(87%) |

(5ㄱ)은 ‘제도’와 동일한 의미를 지닌 ‘-제’가 결합된 용어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이고 (5ㄴ)은 ‘비용’과 동일한 의미를 지닌 ‘-비’가 결합한 표제어, (5ㄷ)은 ‘방법’과 ‘-법’이 결합한 용어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이다. 이와 같은 용어들에 대해서는 둘 다 표제어로 등재되어야 한다는 비율이 압도적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일음절 한자가 결합된

11) 전문용어는 명칭(name), 지시대상물(denoting objects) 개념지시자의 역할을 하는 기호(signs)에만 관심을 갖는다. 그러므로 일반명사와 명사구, 그리고 개념적 내용이 명사화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 일부 동사나 형용사만 해당되고 그러한 기능을 하지 않는 발음표시기호, 소유형용사, 시공간 부사, 문법적 단어, 어의 변형어는 제외된다.(Rey 1995, 29; 김성진·정동열에서 재인용)

용어보다 이음절 한자가 결합한 형태를 더 선호함을 할 수 있다.

넷째, 개념에 대한 명명이 전문분야나 국어학적으로 확정되었으나 잘못 표기된 예가 계속적으로 빈도 높게 쓰이는 경우 그 잘못된 용어의 처리에 관한 것이다. 강현화(1998:313)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용어의 명명에 대해서는 국어학적 역할이 있어야 한다.¹²⁾ 그러나 명명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잘못 쓰이고 있는 용어들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다.¹³⁾

(6)ㄱ. 에너지 밸런스(40%)/에너지 발란스(7%)/둘 다(53%)

ㄴ. 크로스 라이선싱(18%)/크로스 라이선싱(10%)/둘 다(72%)

(6)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두 형태를 표제어로 등재하기를 바란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으며, 외래어 표기에서 혼동이 있는 경우 더욱 ‘둘 다’의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이유를 묻는 난에 실제로 ‘헛갈려서’라는 답변이 많이 나왔다. 외래어 표기나 맞춤법이 헛갈리는 형태가 실제로 사용되고 있을 경우 두 형태를 모두 등재하여 올바른 표기로 유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경제 전문용어 등재에 관하여 사전 이용자들의 등재 요구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았다. 이승재(2012:123)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전 편찬과 이용자의 상황은 상당한 변화를 겪어 왔다. “컴퓨터와 인터넷의 발달, 그리고 소통 체계의 개선으로 지식의 생산자가 소수 전문가에서 일반 대중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이에 덧붙여 필자는 사전의 지식 이용자 또한 다양화, 대량화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전문용어의 경우, 종이사전에서 전문용어 풀이를 찾아보는 사람이 과거에는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었다면 현재는 인터넷 등의 대중매체에 노출된 전문용어에 접근하는 사람이 다양화, 대량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해당 전문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의 종사자, 일반인, 학생, 주부 등 다양한 사람들이 더 많이 더 자주 웹사전의 전문용어에 접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종이사전을 주로 이용하던 시기에 비해 사전 이용자 또한 변화하였다는 상황을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개방형 사전에서는 『표준』과 달리 대표형 중심의 항목 선정 제공 대신 다양한 이형태, 파생어, 고유명사, 오류형 등을 적극 반영하고¹⁴⁾ 대표형 중심으로 뜻풀이를 제공하는 대신, 일상 생활에 나타나는 이형태를 다양하게 표제어, 뜻풀이에 반영한다는 취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취지는 전문용어의 표제어 선정에도 적극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3. 형태부의 특수문자 사용

『표준』에서 사용하는 특수문자는 다음과 같다.

12) 강현화(1998:313)에서는 “비슷한 전문 분야에서 혼용되고 있는 용어의 통일이나 새로운 개념이 들어와 명명을 할 필요가 있을 때, 한국에서 새로이 생겨난 전문용어를 명명할 때, 낱은 전문용어의 개정이 요구될 때, 기존의 전문용어가 국어학적으로 비정상적 조어 방식을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일반인이 그 의미를 이해하기 난해한 경우”에 국어학적 역할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3)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개방형 사전의 감수 과정에서 외래어 표기에 관한 규범 표기에서 벗어난 통용 표기를 표제어로 선정할 경우, 뜻풀이의 맨 뒤에 한 칸을 띄어 쓴 뒤 “⇒외래어 표기법에 따르면 ‘○○○’이다.”와 같이 표준형에 대한 정보를 주고 있다.

14) 이승재(2012:125)

(7) 2-1. 일반 원칙

3. 표제어는 ‘-’, ‘^’, ‘.’과 같은 기호를 사용하거나 띄어 쓰는 방법으로 표제어의 직접 구성 성분을 보여 준다.
- 1) ‘-’를 사용하여 단어 내부의 구조와 접사, 어미와 같은 비자립 형식을 보여 준다.
- 2) ‘^’을 사용하여 띄어쓰기 단위와 결합 구조를 보여 준다.
- 3) ‘.’을 사용하여 표제어 내부의 구조를 보여 준다.
- 4) ‘띄어쓰기’를 통해 표제어의 구조를 보여 준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표준』은 표제어부에서 다양한 특수 문자들을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특수 문자는 일반인들의 사전 이해도를 떨어뜨리고 있다. 먼저, 표제어 구성에서 사용되고 있는 특수문자를 살펴 보자. 『표준』과 개방형 사전은 단어가 합성이나 파생일 경우 붙임표로 단어 구성을 나타내며 구일 경우 ‘^’을 활용하여 띄어쓰기에 대한 정보를 보여준다. 필자는 사전 이용자들이 붙임표(-)와 ‘^’ 표시에 대한 이해를 얼마나 정확하게 하고 있는지 설문 조사를 통하여 알아보았다.

‘-’는 『표준』에서 직접 구성 성분(IC) 분석의 결과를 나타내거나 원어가 한자나 외래어가 아닌 고유어인 경우, 발음이 표제어와 동일한 경우 등에 사용하였다. 그러나 설문 조사 결과 이러한 쓰임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의 쓰임에 대해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알지 못한다’라는 답이 87%였으며 알고 있다고 응답한 답변자 중에서도 ‘띄어쓰기’ 표시로 알고 있는 등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다. 또한 ‘뗏목-하역’과 ‘뗏목^하역’에서 ‘-’과 ‘^’이 차이를 아느냐는 질문에 ‘알지 못한다’라고 답변한 비율이 89%였으며 그나마 ‘알고 있다’라고 답변한 학생들은 모두 인문학부 학생들이었다.

구 표제어의 띄어쓰기를 표시하는 방법에 대한 질문에는 다음과 같은 응답 결과가 나왔다.

(8) ㄱ. 뗏목^하역	4%
ㄴ. 뗏목 ∨ 하역 (또는) 뗏목하역	37%
ㄷ. 뗏목 하역(원칙적 띄어쓰기) 뗏목하역(허용적 띄어쓰기)	59%

표제어를 제시하는 방법에 대한 질문에서 현재의 방식인 첫 번째 방식은 선호하지 않았다. 응답자들은 ‘^’를 이해하지 못하고 ‘붙여쓰기’ 기호로 오해하기도 하였는데, 이처럼 사전에서 사용된 기호를 이해하지 못한 것과 (8ㄱ)의 비선호는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있을 것이다. 이용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기호보다는 (6ㄷ)과 같이 표제어의 띄어쓰기를 직접 제시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만하다.

(9)는 원어를 제시하고자 할 때 가장 적절한 방법이 무엇인지를 질문한 것이다.

(9) ㄱ. 뗏목^하역^크레인(뗏목荷役crane)	73%
ㄴ. 뗏목^하역^크레인(--荷役crane)	14%
ㄷ. 뗏목^하역^크레인(~荷役crane)	11%

ㄹ. 뗏목^하역^크레인(荷役crane) 2%

‘원어(原語)’는 외래어 언어가 차용된 경우 차용된 언어의 본래 표기와 그 의미를 밝히는 일을 말한다. 한자일 경우 한자어, 영어로 대별되는 서구 언어일 경우 해당 언어를 제시하면 된다. 그러나 (9)와 같이 고유어와 한자어, 고유어와 외래어가 혼합된 혼종어일 경우 고유어를 어떻게 제시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표준』에서는 차용어가 고유어와 합성된 단어나 구일 경우 고유어 위치에 자판에 있는 기호 ‘-’를 음절 수만큼 반복하는 (9ㄴ)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응답자들은 원어를 제시하는 방법에서 첫 번째의 방법을 가장 선호하였다. (9ㄴ), (9ㄷ)과 같이 고유어에 기호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슷한 비율로 선호 응답이 있었으나 (9ㄱ)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또한 (8ㄹ)처럼 고유어에 해당하는 원어 부분에 아무런 기호도 사용하지 않는 방법도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개방형 사전에서는 『표준』과 달리 (9ㄱ)과 같은 방식으로 원어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바뀌었는데 이는 매우 적절한 수정이라고 할 수 있겠다.

4. 의미부의 문제

4.1. 용례와 연어 구성 제시

『표준』이나 개방형 사전은 원칙적으로 전문용어 표제어에는 용례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¹⁵⁾ 그러나 전문용어라고 하더라도 용례와 연어 구성 등을 적절히 제시하는 방안이 있어야 한다. 전문용어라고 하더라도 표제어가 일정 어휘와 함께 쓰이는 경우, 용례(usage)와 연어(collocation)를 제시해야 한다는 논의는 여러 차례 있었다. 표제어가 함께 쓰이는 용언이나 관형절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해당 전문용어의 개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그 쓰임을 익히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방영심·이혜용(2013:99)에서 분석된 대학생들의 글쓰기 오류 유형에 의하면 ‘열광이 분다, 성공에 임박하다, 한계가 도래하다’ 등과 같이 서로 어울리지 않는 어휘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개념과 용법이 익숙하지 않은 전문용어야말로 이러한 오류가 생기지 않게 하려면 뜻풀이 외에도 용례와 연어 구성 제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 (10) ㄱ. 경과 손해율이 좋다/급등하다
ㄴ. 재보험을 들다/재보험에 가입하다

4.2. 의미 관계와 대역어 제시

사전은 일반 텍스트와 달리 앞뒤 표제어와 내용이 불연속적이다. 이러한 문제는 어휘 관계에서 동의어, 반의어 등 관련 어휘 등을 제시하여 연결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15) 『표준국어대사전』 편찬지침 ‘V. 용례 1. 기본 원칙’에 의하면 “모든 표제어는 용례를 보이는 것이 원칙이지만 전문어, 고유명사, 편벽된 한자어, 방언, 순화하여 새로 만든 말 등에는 용례를 보이지 않을 수 있다.”하고 하여 일부 전문어에서만 용례를 보이고 대부분의 전문어에서는 용례를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표제어로 오른 합성어나 구는 용례를 보이지 않는다.”라는 원칙에 따라 많은 수의 전문용어 구 표제어에 용례가 실리지 않았다.

개방형 사전의 의미부에는 ‘의미 관계’가 설정되어 있는데, 이는 『표준』의 ‘관련 어휘’, ‘참고 어휘’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표준』의 ‘관련 어휘’, ‘참고 어휘’ 원칙 중 개방형 사전의 의미 관계와 연관된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1) 2. 관련 어휘

2-1. 일반 원칙

1. 관련 어휘는 용례 뒤에 본말, 준말, 비슷한 말, 반대말, 높임말, 낮춤말의 순서로 배열한다.
2. 관련 어휘는 표제어에 수록된 것만을 밝힌다.
4. 관련 어휘는 뜻풀이에 쓸 수 없다. 마찬가지로 뜻풀이에 사용된 단어는 관련 어휘가 될 수 없다.

3. 참고 어휘

3-1. 일반 사항

3. 뜻풀이에 사용된 말은 참고 어휘로 제시할 수 없다.

(11)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표준』에서는 뜻풀이에 사용된 어휘는 관련 어휘와 참고 어휘로 제시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이는 뜻풀이에 나왔던 단어를 다시 관련 어휘나 참고 어휘에 제시하는 것이 중복적이라는 판단에서 내린 지침일 수 있으나 사전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친절하지 않다. 사전 이용자는 이러한 지침을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관련 어휘, 참고 어휘에 제시되지 않은 표제어는 해당 표제어와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오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개방형 사전은 뜻풀이 중 일부 어휘를 링크해 놓은 기능이 추가되어 있다. 따라서 개방형 사전에서는 뜻풀이에서 사용되는 어휘일지라도 링크되어 있지 않으면서 위의 기준에 해당하는 표제어는 의미 관계를 설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관련 어휘는 표제어에 수록된 것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항목도 재고되어야 한다. 전문용어의 경우 줄임말, 별칭이나 이칭어 등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 개방형 사전이 위키피디아 형식의 사전임을 고려한다면, 등재되어 있지 않은 표제어라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용어들이 존재할 때에는 의미 관계를 설정해 두어 해당 표제어의 등재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표준』과 달리 개방형 사전에서는 전문용어의 대역어를 제시하고 있다.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 전문용어 분과 집필 지침에서는 대역어의 처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침을 보이고 있다.

(12) 8. 대역어 (2011. 5. 11. 추가)

- 1) 표제어에 대응되는 외국어 대역어가 있는 경우 편찬 시스템 상의 ‘대역어’ 항목의 추가 기능을 이용하여 해당 언어명과 대역어를 제시한다. ……

- 3) 표제어는 우리말이나, 대역어가 약어를 일부 포함할 때, 그 약어의 본래 말은 따로 어원으로 처리하지 않고 () 처리하여 보인다.

예) 동맹^파업^폭동^소요^약관

: [대역어] SRCC Clauses (SRCC:strikes, riots and civil commotions)

(대역어의 일부 포함 된 약어의 본말은 () 처리하여 본말을 보여준다.)

4) 약어 자체가 많이 쓰인다면 그 약어 또한 대역어로 제시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그 약어는 동의어(한글)로 제시한다.

예) 보통^표준^품질^조건: [대역어] USQ(usual standard quality)

[동의어] 유에스큐

‘대역(對譯)’이란 ‘원문의 단어, 구절, 문장 따위와 맞대어서 번역함. 또는 그런 번역.’이므로 ‘대역어’는 ‘원문의 단어, 구절, 문장 따위와 맞대어서 번역한 말.’을 뜻한다. 이 정의에 따르면 (12)에 제시된 용어들은 ‘SRCC Clauses’의 우리말 대역어가 ‘동맹 파업 폭동 소요 약관’이 된다. 용어 자체가 우리말이고 그것을 영어나 기타 다른 언어로 번역했을 때 ‘영어 대역어, 프랑스 어 대역어’ 등이 될 수 있다. 현재와 같이 영어나 기타 다른 언어권에서 해당 용어가 유입되었고 그것에 대한 우리말 대역어가 생성되었을 경우 원래의 용어를 대역어로 제시하는 것의 타당성은 다시 한 번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5. 맺음말

지금까지 개방형 사전에서의 전문용어에 대한 처리를 사전 이용자의 관점에서 살펴 보았다. 사전은 사전편찬학적인 관점에서 표제어 선정부터 관련 어휘까지 학문적인 접근을 시도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열린 사전, 위키피디아형 언어 지식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시도하고 있는 개방형 사전에서는 수요자, 즉 사전 이용자의 요구를 면밀히 파악하여 이를 사전 처리에 참고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현화(1998), 「전문용어 사전에 대한 국어학적 제안-무역·경제 용어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 학술발표논문집』,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구 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원).
- 국립국어원(2000), 『표준국어대사전 편찬 지침 I, II』.
- 권은주(2012),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 전문용어의 역사용어 구축」, 『한국사전학』 제20호, 한국사전학회
- 김성진·정동열(2001), 「전문용어사전의 미시구조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5-1, 한국문헌정보학회.
- 김양진(2006), 「국어 중사전의 전문어 표제어 선정에 대하여-역사전문어를 중심으로-」, 『한국사전학』 제7호, 한국사전학회.
- 도원영(2000), 「님연 국어사전(가칭)의 표제어 선정과 그 실제에 대하여」, 『한국어학』 제12집.
- 박동근(2005), 「중사전 표제어 선정의 문제점」, 『한말연구』 제17호, 한말연구학회.
- 박형익(2000), 「국어사전에서의 전문용어의 정의와 분류」, 『전문용어연구』 2, 전문용어

언어공학연구센터.

방영심·이혜용(2013), 「대학 글쓰기에 나타나는 어문규정과 문장 오류의 유형 및 지도 방안」, 『어문연구』 158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안의정·황은하(2010), 「『연세 현대한국어사전』의 표제어 목록 구성의 이론과 실제」, 『한국사전학』 15, 한국사전학회.

유현경·남길임(2008), 『한국어사전 편찬학 개론』, 도서출판 역락.

이승재(2012), 「21세기형 사전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 『한국사전학』 제20호, 한국사전학회.

조남호(2005), 「국어 정책에서 본 전문용어 정비와 문제점」, 『수의학용어 표준화 2차 공청회』 1권, 대한수의학회.

최기선·송영빈(2000), 『전문용어연구1, 2』, 전문용어언어공학연구센터.

홍종선(2003), 「국어사전 편찬, 그 성과와 과제(3): 올림말(2)」, 『어문논집』 제48호,

홍희정(2007), 「국어사전에서의 전문용어 기술에 관한 연구-경제 용어를 중심으로」, 『언어 사실과 관점』 17-1권,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구 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원).

Sindey L. Landau(2001), Dictionaries - The Art and Craft of Laxicography(2nd edition), Cambridge Press.

R.R.K. Hartmann ed.(1983), Laxicography : Principle and Practice, Academic Press.

‘<개방형 사전>에서의 전문용어 표제어 선정과 처리에
관하여’에 대한 토론문

이승재
(국립국어원)

별 지 참 조

<연세 현대한국어사전>의 전문용어 처리의 현황과 과제

김선헬
(연세대학교)

1. 들어가기

다양한 정보를 접하며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전문용어는 더 이상 일상 밖의 요소가 아니며 학문과 기술이 눈부신 속도로 발달해 감에 따라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전문용어가 만들어지고 또 보급되고 있다. 그로 인해 전문용어에 대한 일반 사전 이용자들의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전문용어가 특정한 영역, 특정한 사람들 사이에서만 쓰이는 어휘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일상 언어의 한 부분이라는 생각에 미칠 때 우리는 전문용어 역시 언어사전에서 다루어야 하는 어휘라고 생각할 수 있다.

순수 언어사전을 지향했던 기존의 <연세 한국어사전>(1998)(이하 <연세>)은 5만 단어 규모의 소사전으로 전문용어 표제어는 가급적 배제되었고 일반 어휘 중심으로 편찬되었다. 그러나 현재 연세대 언어정보연구원에서 편찬 중인 <연세 현대한국어사전>(이하 <연세 현대>)은 12만 단어 규모의 중사전으로서, 순수 언어사전을 지향했던 기존의 편찬 철학을 유지하되 교육 과정이나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전문용어들을 수록하고자 한다.¹⁾²⁾ 이러한 변화는 사전의 규모가 커진 데에 기인하는 것도 있지만 전문용어가 일상 언어생활에서 차지하고 있는 중요성에 대한 인식에서 기인하는 면도 크다.

이 연구는 <연세 현대>(예정)가 <연세>(1998)과 비교할 때 가지는 두드러진 차이점 중 하나인 전문용어 표제어 처리의 전반적인 모습을 소개하는 데 큰 목적을 둔다. 크게는 표제어 선정에서 작게는 뜻풀이 기술과 용례의 제시에 이르기까지 <연세 현대>(예정)가 전문용어 처리에 대해 가지고 있는 태도와 세부 지침 등에 대해 소개하고 문제점과 그에 대한 사전학적인 고민까지 아울러 이야기해 보도록 한다.

2. 표제어의 선정

표제어의 선정은 크게 두 가지 차원으로 나뉘볼 수 있는데 하나는 표제어 후보들을 추려낼 자료를 선정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일정한 기준에 기대 그 후보들 가운데서 실제 기술될 표제어를 선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대개 사전 편찬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이루어지고 사전의 거시구조를 결정짓는 중요한 과정이며 <연세 현대>의 편찬에 있어서도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이다. <연세 현대>의 모태가 되고 있는 <연세>(1998)는 우리나라에서는 최초

1) <연세현대한국어사전>의 편찬 방향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얻고 싶다면 이익환·안의정(2007)를 참조할 것.
2) <연세 현대>의 예상 이용자는 고등학생, 대학생 및 일반인으로 순수 국어사전을 지향하는 이 사전의 특성상 이들의 일상 언어생활을 돕는 것이 사전의 목적이 된다. 따라서 <연세 현대>의 전문용어 표제어들 역시 고등학생, 대학생 및 일반인들이 일상적인 언어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하기 위해 존재한다. 전문용어 사전에서의 전문용어 기술과 일반 언어사전에서의 전문용어 기술의 차이에 대한 더 자세한 논의는 이현주(2007)을 참조할 것.

로 표제어를 선정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근거를 밝혔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지고 있다. 다음은 <연세>(1998)의 표제어 선정 기준이다.

- (1) '연세 말뭉치'에서 사용빈도가 14번 이상인 약 5만 개의 단어 및 문법 형태소를 표제어로 삼았다.
- (2) 흔히 쓰이는 비표준어는 '표준어 규정'(문교부 고시 제88-2:1988.01.19.)과 '표준어 모음 2(1990.09)에 근거하여 빈도수에 따라 선별, 수록하였다.
- (3) 한자어 중에서 특히 순화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일본어투 생활 용어'는 '국어 순화 용어 자료집'에 근거하여 표시하였다.

그러나 안의정·황은하(2010)에서 밝혔듯, 이렇듯 객관적인 표제어 선정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했던 것은 <연세>(1998)가 5만 단어 규모의 소사전이었기 때문으로 중사전 규모 이상의 사전의 경우, 표제어 선정에 있어 말뭉치 분석의 결과에 따른 명확한 기준을 세우기 어렵다. 따라서 <연세 현대>의 표제어 선정 기준은 기존의 <연세>와는 차이점을 갖게 된다. <연세 현대>는 시중의 대사전들이 기존의 사전 표제어 목록을 답습한 결과 등재되고 마는, 실제 언어생활에서 쓰이지 않는 이른바 '유령어'들의 등재는 최대한 배제하고 사전에는 없지만 실제 사용되고 있는 어휘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현대 국어의 총체적이고도 자연스러운 모습을 담은 '실용적' 중사전을 목표로 한다. 현재 편찬 중인 <연세 현대>의 구체적인 표제어 선정 기준은 아래와 같다.

- ▶ 1945년부터 2005년까지의 말뭉치에 나타나는 현대 국어의 어휘를 대상으로 한다.
- ▶ 일상생활에 많이 쓰이는 일상어(글말/입말)를 주 대상으로 중사전에 맞는 어휘를 선택한다.
- ▶ 빈도가 높지 않더라도 중·고교 공통 교과 과정에서 출현하는 어휘는 표제어로 선정한다.

<연세 현대>가 <연세>(1998)의 표제어 선정 방식에 대해 가지는 가장 큰 차이점은 말뭉치의 객관적 분석 자료에 기대어 표제어 선정 여부를 결정하는 거시적인 접근 방식 외에 언어학자의 직관을 이용한 미시적인 접근 방법이 함께 사용되었다는 점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표제어 선정의 기준은 사전의 규모뿐만 아니라 후보가 되는 어휘들의 범주에 따라서도 달리 적용될 수 있다.³⁾ 따라서 전문용어 표제어들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일반어 표제어와는 다른 표제어 선정 기준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사전의 표제어를 선정할 때에는 기존 사전의 목록을 검토하는 일부부터 시작하지만 전문용어와 같이 신어의 생산이 활발하고 변화가 심한 어휘들의 경우, 기존 사전의 표제어 목록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면 실제 언어생활을 반영하지 못한 죽은 사전이 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기존 사전의 표제어 목록보다 전문용어집과 같은 어휘집이나 어휘 목록, 말뭉치를 통해 추출된 어휘 빈도 자료 등을 사용하여 선정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다.

실제로 <연세 현대>에서는 기존 사전의 표제어 목록을 검토하는 일 대신 말뭉치를 활용

3) 실제로 <연세 현대>의 표제어 선정 기준은 일반어와 전문용어, 고유명사, 신어, 방언, 북한말 등의 선정 기준이 따로 마련되어 있다.

한 표제어 선정 방식을 택했는데 이는 일반 표제어들의 선정 방식에 준하는 것이다. 그런데 말뭉치를 활용한 표제어 선정에서 항상 문제시되는 것은 말뭉치의 객관성과 균형성 문제이다. 사실 기능어나 고빈도 일반 어휘의 경우 말뭉치가 일정 규모 이상의 조건만 갖추고 있다면 말뭉치의 객관성이나 균형성 역시 일정 수준 이상만 되면 된다. 그러나 전문용어나 고유명사와 같은 경우는 말뭉치가 어떠한 텍스트를 포함하고 있느냐에 따라 그 출현 빈도가 상당히 크게 달라질 수 있다.⁴⁾ 따라서 말뭉치의 객관성과 균형성 문제에 조금 더 예민하게 접근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세 현대>에서는 전문 용어 선정을 위해 교과서 말뭉치와 교과서의 색인 목록을 활용하여 목록을 보완하는 방식을 택했다. 고등학교 공통 교과목 및 대학교 교양 교재에 나타나는 어휘들을 전문용어로 적극 포함하기로 한 것이다. 다음은 <연세 현대>의 전문용어 표제어 선정 기준이다.

- ▶ 전문용어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이거나, 말뭉치와 고등학교 공통 교과목 및 대학교 교양 교재에 나타나는 것에 한한다.
- ▶ 한글 맞춤법 규정에서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구 단위의 전문용어도 구 표제어로 올린다.
- ▶ 전문용어는 말뭉치에 출현하는 빈도수를 고려하여, 중·고등학교에서 학습하는 각 전문 분야의 어휘, 대학교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학습하는 국어, 역사, 철학, 문학, 교육, 사회학, 심리학, 정치학 등의 교양 과목 등의 전문 어휘를 기준으로 선별한다.
- ▶ 교과서에 실려 있더라도 용례가 많이 발견되지 않는 어휘의 경우는 삭제할 수도 있다.

그러나 위의 지침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교과서나 대학 교재는 표제어 선정을 위한 자료일 뿐으로 표제어 후보들을 추려 낼 자료들의 선정 방법 외에 실제로 표제어들을 선정할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에서 편찬한 <고려대 한국어대사전>(2009)(이하 <고려>)는 전문용어 표제어 선정에 있어 좀 더 구체적인 선정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⁵⁾ 말뭉치에 나타난 어휘빈도에 근거하여 표제어를 선정한 <고려>는 전문용어 역시 어휘빈도에 근거하여 선정하였는데 어휘 빈도 기준을 일반어보다 높게 책정하여 유의미한 빈도수를 분석해 낸 뒤 말뭉치 빈도 7 이상인 후보 목록 중에서 선정 기준에 적합한 어휘들을 선별해 내었다. 선정 기준은 일상적 용법이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선정하였고 그 다음으로 중등 교과 과정에 실린 경우와 대학 교양 수준에 속하는 경우 표제어로 선정하였다. 다른 기준은 <연세 현대>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전문용어 표제어 선정 기준으로 말뭉치 빈도를 제시한 것은 <연세 현대>에서 고려해 볼 만한 점이다. <고려>와 <연세 현대>가 사전 편찬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말뭉치가 모두 1억 어절 정도로 규모가 비슷하다는 점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사실 <연세 현대>가 일상 언어생활에 필요한 전문용어를 선정한다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만큼 전문용어 표제어도 일반어 표제어와 동일한 말뭉치를 기준으로 선정하고 있지만 전문용어 표제어 선정을 위해 '전문용어 말뭉치'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논의에서 말하는 '

4) 강현화·김유미(2008)에서는 전문용어의 연구에서 말뭉치의 빈도 조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약점들을 고려하여 말뭉치 빈도 결과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전문가의 용어 선정 절차, 구글 사이트를 통한 빈도 분석, 분야별 전문학회의 용어사전을 바탕으로 한 용어 추출 및 전문가 집단의 중요도 판정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5) 자세한 표제어 선정 지침은 도원영(2000)을 참고할 것.

전문용어 말뭉치'란 전문 서적들을 대상으로 이를 영역별로 분류하여 구축한 말뭉치이다. '전문용어 말뭉치'는 서상규·조은경(2000)에서 '전문언어 말뭉치'로 언급된 바 있는데 텍스트 장르에 따라 구성된 말뭉치라고 볼 수도 있다. 이러한 전문용어 말뭉치를 사전의 편찬 목적에 맞게 구축한다면 표제어 선정뿐만 아니라 전문 영역의 분류에서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전문용어의 표제어 선정과 관련하여 또 다른 문제는 전문용어의 표준화와 관련되어 있다. 현대사회에서 전문용어는 폭발적으로 그 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같은 개념을 나타내는 어휘도 외국어를 그대로 음차하여 쓰는 경우와 번역하여 쓰이는 경우로 나눌 수 있고 번역하여 쓰이는 경우도 그 용어를 번역한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쓰일 수 있다. 따라서 유개념이 아닌 정말 똑같은 개념을 나타내는 어휘가 둘 이상 존재할 경우가 다반사다. 그럴 경우, 사전은 어떠한 형태를 취할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는데 선택의 기준을 세우는 일도 선택을 실제로 하는 일도 모두 편찬자에게는 까다로운 일이다.

사실 전문용어의 표준화 문제와 관련된 표제어 선정의 문제는 사전편찬자 혼자만의 힘으로 해결될 수 없고 언어학자가 해결할 수도 없는 문제다. 사전 편찬자가 할 수 있는 일은 해당 전문용어의 실제 쓰임을 관찰하여 어느 것이 더 우세한지 판단하는 일 정도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전문용어 사전이나 전문용어 어휘집이 필요하게 되는데 한국표준안이 마련되어 있다면 표제어의 선정이 좀 더 용이해질 것이다. 이렇다 할 표준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현재 사전들은 전문가의 감수 등에 의존하여 처리하거나 실제 쓰임을 관찰하여 자주 혼동되거나 혼용되고 있는 형태를 가표 처리하여 사용자의 검색 편의성을 촉진하는 정도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3. 전문용어와 일반어의 변별

<연세 현대>의 전문용어 표제어 선정 방법론은 일반어 표제어의 선정의 방법론에 준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용어 표제어 선정 작업에서 사실상 문제가 되는 것은 전문용어와 일반어의 변별이다. <연세 현대>에서 일반어와 전문용어의 변별에 관련된 지침을 간단히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⁶⁾

- ▶ 일반인이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일상어로 받아들이는 단어들의 경우는 전문용어로 표시하지 않는다. (친숙한 동·식물명, 약기 이름 등은 전문용어로 보지 않는다.)
예) 감기, 광복절, 경복궁, 국화, 컴퓨터, 개, 아랍인, 장미 등
- ▶ 사전 이용자들이 특수한 분야를 공부하거나 접할 때 사용하는 어휘를 전문용어로 기술한다. 예) 굽타 왕조, 용매, 도함수 등
- ▶ 기존 사전에는 없고, 전문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생활에서 이미 보편화된 용어인 경우 전문어 표지를 주지 않았다. 예) 다운로드, 그림판⁷⁾ 등

6) 아래에 보이는 지침은 현재 편찬 작업에 쓰이고 있는 지침으로 계속 수정, 보완되고 있어 최종 지침은 이와 크게 다를 수 있다.

7) 표준에도 '그림-판1(--板)[--]그림을 붙이는 판.도판02(圖板).', '그림-판2(--版)[--]출 활판에 쓰는 동판, 아연판, 목각판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 등재되어 있으나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그림판'의 의미는 없다. 그러나 7차교육과정 고등학교 '정보사회와 컴퓨터'에 실려 있는 용어로서의 '그림판'은 기존 사전에 나와 있지 않

그런데 위의 지침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일반인이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일상어로 받아들이는 단어’라는 개념의 자의성에 있다.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 마련이 어렵다는 것이다. 사실 일반어와 전문용어의 변별이 어려운 것은 해당 분야의 연구가 미진한 데 이유가 있다기보다 전문용어가 가지고 있는 내적 특성에 기인한 바가 크다. 조은경(2001:10)에서도 밝혔듯 현대의 언어생활을 말할 때 이 언어란 매우 일상적인 언어의 범주가 아니라 인간의 삶과 관련된 모든 특정 분야의 언어와 일상적인 삶의 내용을 담은 언어의 포괄적인 집합이다. 따라서, 전문 언어가 일반 언어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아니라, 일반 언어의 하위 언어(sublanguage)로서 의미를 가지며, 일반 언어나 일상 언어와 명백한 경계를 가지기보다는 서로 겹치기도 하고 상반되기도 하는 면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다.(조은경2001:10) 따라서 한 어휘가 전문용어인지 아닌지의 여부는 그 사용되는 맥락에 따른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또한 정보화가 급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최근에는 전문용어가 점진적으로 일반어화되는 경향이 커지고 있으며 역으로 일반어가 해당 전문 영역에서 새로운 개념을 가지게 되어 전문용어화되는 일도 있다. 이 둘의 구분이 점점 어려워지는 것이다.

전문용어와 일반어를 ‘객관적으로’ 변별해 낼 수 없다면 사전의 방향성과 목적에 맞는 ‘합리적인’ 변별 기준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연세 현대>에서는 일상적인 쓰임이 있다면 ‘되도록’ 일반어로 기술하고자 하는 태도를 취한다. 말뭉치에서의 용례를 검토하여 실제 그 어휘가 쓰이는 맥락을 살펴보고 그 전문성을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전문적인 맥락에서 쓰이는 용례밖에 발견되지 않았을 경우, 이를 전문용어로 보는 것이다. 실제 12만 단어 규모의 <연세 현대>에서 현재까지 기술된 전문용어의 수는 약 15,000개가량⁸⁾으로 전체 표제어 수의 약 12%이다. 이는 중사전의 규모를 고려할 때도 적은 수라고 할 수 있다.

4. 전문 영역의 구분

전문용어의 기술에서 이 어휘가 주로 쓰이는 전문 영역을 표시해 주는 것은 사전이 제공하는 사용역 정보의 일부라 볼 수 있다. 안의정·이종희(2008)에서는 사용역 정보를 크게 발화 상황, 사용자 집단, 사용 범위의 세 가지 기준에 따라 나뉘볼 수 있다고 했는데 이러한 기준에 따라 비춰 본다면 전문용어의 영역 표시는 그 어휘의 사용자 집단과 사용 범위를 나타내 주는 장치다. 사용자 집단과 사용 범위를 표시하는 것은 물론 사전 이용자들이 그 어휘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을 돕기 위함이다.⁹⁾ 언어사전이 전문용어를 표제어로 삼는 한, 전문용어가 쓰이는 영역의 표시도 어쩌면 필수적인 일이 된다. <연세 현대>에서도 뜻풀이의 풀이말 앞에 사용역 정보를 주고 있으며 표제어가 전문용어일 경우 사용역 정보에는 그 전문용어가 쓰이는 영역 표시가 포함된다.

다

8) 고유명사를 제외한 것으로 고유명사를 포함하면 모두 약 2만개의 표제어가 기술되어 있다. 이는 사전의 편찬 과정에서 더 늘어날 수 있다.

9) 이현주(2007)에서는 전문 영역 표기의 역할로 그 어휘 단위가 일반어인지 전문용어인지 구별하게 해 주며, 그 어휘 단위가 속하는 개념 조직의 최상위 총칭어 또는 최상위 유개념으로서 기능하여 그 개념을 범주화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들고 이 영역 표기가 사전에서 그 어휘 단위의 뜻풀이와 분리가 불가능한 하나의 정보라고 보았다.

그러나 실제 사전 편찬 과정에서 전문용어의 영역을 표시하는 일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우선 전문 영역의 체계를 설정하는 차원에서의 문제가 있고 그 체계에 맞게 개별 어휘들을 분류하여 실제 표기하는 차원에서의 문제가 있다. 이를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자.

4.1 전문 영역 체계의 설정

언어사전에 전문용어가 포함된 이래로 전문 영역 표시는 언어사전의 골칫거리가 되어 왔다.¹⁰⁾ 전문용어의 영역 분류가 복잡한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다수 중사전 규모 이상의 사전들에서 40~60개 사이의 전문 영역을 설정하는데 설정된 체계가 타당한 것인지 그 수가 적당한 것인지, 언어사전에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세밀하게 전문 영역을 분류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학계에서 이렇다 할 해결책이나 논의가 나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순수 언어사전을 지향하는 <연세 현대>는 전문용어의 영역을 지나치게 세분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교과서와 ‘한국십진분류표’¹¹⁾와 교과목 등을 참고로 하여 아래의 31개 전문용어 영역을 분류하였다.¹²⁾

건설	경제	교육	군사	기계	농업	문학	물리	민속	법률	사회	생물	수학	심리
언론	언어	역사	예술	운동	의학	전기	정치	종교	지리	지학	천문	철학	컴
퓨터	통신	행정	화학										

전문용어를 분류할 때 문헌 자료 분류의 방법론과 학문 분류의 방법론을 참고한 것이다. 이는 전문용어가 학문 체계나 문헌 자료와 갖는 관련성을 생각해 볼 때 합리적인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결과로서 위의 31개의 전문 영역의 분류가 얼마나 객관적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

우선, <연세 현대>에서 전문용어의 영역을 지나치게 세분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영역 간의 교집합 부분을 최대한 줄이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학'과 같은 영역은 다른 영역과 상당 부분 겹치게 된다. 사실 '지학'은 교과목을 참고로 하여 설정된 것인데 교과목으로서의 '지학'은 사실 '천문'과 지리학적 사실을 포괄할 수 있기 때문에 '지학'이라는 영역의 성격이 현재 <연세 현대> 내에서 매우 모호한 상태이다. 또한 '전기'와 '물리' '역시 포함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농업'은 있으나 '어업'이 없다는 점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다음은 현재까지 처리된 <연세 현대> 전문용어들의 영역별 표제어 수를 조사한 것이다.

10) 언어사전에서의 전문용어 분류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박형익(2000)에 잘 지적되어 있다. 이 논의에서는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8개의 국어사전의 전문 영역을 조사하였는데 8개의 국어사전의 전문 영역은 총 86개가 되었음에도 동일한 영역은 19개, 즉 22%밖에 되지 않았다. 또한 이들 사전에서 이러한 전문 영역 체계를 설정하고 표제어를 분류한 기준이나 이유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하고 있지 않고 일관성 있는 처리를 보이지도 않는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11) 한국십진분류법(韓國十進分類法, KDC: Korean Decimal Classification)은 한국도서관협회에서 듀이십진분류법의 주류를 바탕으로 일본십진분류법(NDC)의 용어를 가져다 한국 실정에 맞게 변형한 자료분류법이다. 모든 지식 분야를 총류(0), 철학(1), 종교(2), 사회과학(3), 자연과학(4), 기술과학(5), 예술(6), 언어(7), 문학(8), 역사(9) 따위 열 가지 주류(主類: section)로 가르고, 각 주류마다 다시 10가지로 나누어 강목(綱目: division)으로 구분한다. (위키백과)

12) 이는 추후에 수정·보완될 수 있다.

표1. <연세 현대>의 전문용어 영역별 표제어 수

영역	개수	영역	개수	영역	개수
건설	142	사회	322	정치	282
경제	841	생물	1280	종교	798
교육	72	수학	299	지리	586
군사	376	심리	73	지학	342
기계	208	언론	24	천문	230
농업	188	언어	432	철학	303
문학	540	역사	2654	통신	47
물리	633	예술	494	행정	16
민속	499	운동	539	화학	667
법률	813	의학	1238		
14,938					

이를 보면, 각 영역별 표제어의 수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각 영역별의 표제어 수가 균형적이어야 할 이유는 없다. 이러한 불균형성은 일상생활과의 관련성 때문에 생기기 때문이다. 군사 전문용어에 비해 경제 전문 용어의 수가 2배가 넘는 것이나 농업 전문용어에 비해 의학 전문용어의 수가 5배 이상 많은 것은 그 분야의 전문용어들이 사용 계층이 넓거나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데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언론’, ‘통신’, ‘행정’ 등 그 표제어의 수가 다른 것에 비해 극히 적은 것은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한다. 하나는 그 영역이 해당 사전에서 독립적으로 분리될 만큼 의의가 있지 않거나 아니면 그 영역에 대한 표제어 보충이 필요할 가능성이 있다. 물론 포함되어 있는 표제어의 수가 그 영역의 존재의 결정적 요인이 될 수는 없지만 이렇듯 표제어 수가 적은 경우 유사 영역과 통합하거나 상위 영역과 통합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전문 영역의 체계를 세우는 일은 정보의 분류 체계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하는 문제 외에도 사전의 성격이나 목적 등에 따라서도 다양한 처리가 있을 수 있다. <연세 현대>는 중사전 규모이고 순수 언어사전을 지향하고 있어 일반인에게 난해한 전문용어들은 상당 부분 배제되었고 따라서 전문 영역의 세밀한 분류가 불필요했다. 그러나 사전의 규모가 커지고 백과사전적인 표제어를 대거 등재하는 종합적 사전의 성격을 띠게 된다면 이러한 전문 영역의 설정에 있어서도 좀 더 세밀한 기준이 요구될 것이다. 박형익(2001)에서 제안했듯이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전문용어의 분류가 존재하고 이를 참고하여 한국표준 분류가 마련된다면 이 체계 안에서 사전 목적에 맞게 가공하여 사용하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가장 객관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4.2 개별 전문용어의 영역별 분류

사실 전문용어의 영역 표시에 있어 중대한 문제점은 앞서 살펴본 전문 영역의 설정보다 개별 전문용어들을 영역별로 분류하는 작업의 일관성에 있다. 김미령·시정곤(2001)에서는 일반 국어사전에서 나타나는 전문어 분류의 문제점으로 한 용어가 사전마다 각기 다른 영역으로 분류되는 문제와 동일한 사전 내에서 같은 계열의 용어가 다양한 영역으로 표기되는 문제로 나누었다. 이렇듯 전문용어의 영역을 구분할 때 처리의 일관성이 항상 문제가 되는 이유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사전 편찬자가 일관된 구분 체계와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고 둘째는 전문용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이다. 오늘날의 전문용어는 일반적으로 둘 이상의 분야에 걸쳐 있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그러나 전문용어의 영역별 구분이 필연적으로 까다로울 수밖에 없다고 해도 사전은 이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일관성 있는 처리를 해야 한다.

<연세 현대>에서는 이러한 전문영역의 분류의 일관성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하기 위해 계층적 표시와 복수 표시를 인정한다. 앞서 제시한 <연세 현대>의 31개 전문 영역은 다시 하위 영역을 가져 계층 관계를 이루고 있는데 이점이 다른 사전의 전문 영역 표시와 차별되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테면, 생물은 동물과 식물로 다시 나뉘며 예술은 음악과 미술로, 종교는 기독교와 불교, 가톨릭 등으로 나뉜다. 따라서 음악 영역의 전문용어 표제어의 경우 ‘((예술))(음악)’이라는 두 표시가 달리게 된다. 이로써 상위 개념과 하위 개념이 같은 계층에서 다루어지던 기존 사전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으며 두 가지 영역에 모두 속하는 개념일 경우 그 상위 영역에 해당하는 표시를 선택함으로써 표시의 일관성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또한 <연세 현대>는 전문용어 표시와 고유명사 표시를 분리하여 제시하였다. 사실 전문용어와 고유명사는 모두 백과사전적 표제어라는 공통점이 있으나 전문용어는 사용역을 기준으로 다른 어휘들과 변별되는 반면, 고유명사는 의미(지시물)를 기준으로 다른 어휘들과 변별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많은 국어사전들은 전문 영역의 한 하위분야로 고유명사를 설정해 왔다. 문제는 복수 표시를 인정하지 않는 기존 사전에서 이들의 영역에 대한 일관성 있는 기술이 어려웠다는 것이다. 조은경(2001:6)에서도 언급되었듯, 고유명사가 특정한 분야의 정보를 동반하여 특정한 맥락에서 사용된다면 전문용어로서의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의 영역은 중첩될 수 있다. <표준>에서도 전문용어 표시의 하나로서 ‘지명’, ‘인명’, ‘책명’, ‘고유’가 사용되고 있고 복수 표시가 인정되지 않아 그 처리의 일관성에 문제가 많았다. 고유명사이면서 전문적으로 쓰이는 영역이 존재하는 어휘의 경우, 어떠한 표시를 우선시해서 표기해야 하는지 그 기준을 합리적으로 세우기란 매우 어렵다. 실제로 ‘창의문’과 ‘창의문’의 다른 이름인 ‘자하문’의 풀이를 보면 <표준>의 전문 영역 표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쉽게 알 수 있다.

창의문02(彰義門)

「명사」 『고적』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의동에 있는 성문. 조선 태조 5년(1396)에 세운 사소문 가운데 남아 있는 유일한 것이다. 「참고 어휘」 자하문(紫霞門).

자하문(紫霞門)

「명사」 『지명』 ‘창의문02(彰義門)’의 다른 이름.

위의 풀이를 살펴보면 ‘창의문’과 ‘자하문’은 같은 대상을 지칭하는 고유명사이면서도 불구하고 전문용어 표시가 ‘고적’과 ‘지명’으로 상이하다. 역사적 건물의 이름일 경우, 그 건물의 이름은 문화재적 의의를 갖는 고유명사가 된다. <연세 현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 영역 표시와 고유명사 표시를 분리하였고 이들을 복수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실제 기술의 예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¹³⁾

13) 이는 논의를 위해 편집한 것으로 실제 출판되거나 공개되는 사전의 형식은 이와 다르다.

최현배

풀이 : ((인명)) ((언어)) 우리말 연구에 크게 힘써 <<우리말본>>, <<한글갈>> 등의 책을 남겼으며 한글 학회 이사장과 연세 대학교 부총장을 지낸 국어학자이자 국어 운동가, 교육자.[1894~1970]

예문 : 주시경의 뒤를 이어 문법을 더욱 자세하게 정리한 **최현배**의 <<우리말본>>은 대단한 업적이다. (이하 예문 생략)

그러나 ‘정확한 정보’ 못지않게 ‘풀이의 경제성’을 추구하는 사전에서 이러한 복수 표지를 남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¹⁴⁾ 따라서 <연세 현대>에서는 위에 언급했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복수 표지를 최대한 배제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둘 이상의 분야에 걸쳐 있는 전문 용어의 처리에 대해서 고민이 생긴다. 앞서 언급했듯 오늘날의 전문용어는 일반적으로 둘 이상의 분야에 걸쳐 있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소화와 같이 몸속에서 일어나는 생화학적 과정과 관련되는 전문용어의 경우, 화학, 생물, 의학 등의 전문 영역을 공유할 수 있다.

이렇듯 두 가지 이상의 영역에서 모두 사용되는 전문용어일 경우 그 구체적 쓰임에 따라 두 가지 방법으로 기술한다. 첫째는 영역에 따라 다소 다른 의미로 사용될 때는 다의어로 기술하고 각각의 의미번호에 각기 다른 전문 영역을 표기한다. 둘째로 영역 모두에서 비슷한 개념으로 사용된다면 더 자주 쓰이는 영역을 표기하는 방법이 있다. 그런데 이 때 더 자주 쓰이는 영역이 무엇인지 집필자가 직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한 판단을 도와줄 객관적인 도구로서 전문 영역별로 구축된 말뭉치의 활용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관성 있는 처리이다. 예컨대 소화액의 경우, 우선 몇 가지 대표적인 표제어를 선정하여 전문 영역별 말뭉치에서의 빈도를 살펴보고 ‘의학 관련’ 말뭉치에서의 빈도가 높다고 판단될 경우, 소화액은 모두 ‘의학’으로 통일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다.

그 외에도 전문용어의 영역을 표시할 때 해당 어휘의 시소러스를 참고하여 기술하는 방법이나 다른 언어사전이나 백과사전 내에서의 처리를 참고해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전문용어의 분류 기준이 사전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다른 사전의 분류를 참고할 때에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5. 뜻풀이와 참고 정보

사전에서 전문용어는 언어사전이나 전문용어 사전, 백과사전 등 사전의 종류와 목적을 막론하고 백과사전식의 뜻풀이를 해 온 것이 사실이다. <표준>이 각 전문 영역별 세부지침을 세우고 전문용어의 뜻풀이를 쉬운 말로 풀어쓰기 위해 노력했다고 하나 실제 기술된 뜻풀이를 검토해 보면 일반인들에게는 여전히 전문적이고 어렵다. 남길임(2008)에서 지적했듯이 실제 <표준>의 전문용어 뜻풀이는 일반인에게는 너무나 어렵고 전문가에게는 정확하지 못한 정보가 된다. 이러한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전의 뜻풀이 방향성을 집필 이전에 확고히 할 필요가 있다.

14) 실제로 전문영역 표지가 계층성을 갖는 이유 중 하나는 상위 계층만을 표시하여 표시되는 전문 영역 표지의 수를 줄이고자 하는 의도도 있다.

앞서도 여러 번 언급했지만 전문용어를 대하는 <연세 현대>의 가장 두드러진 태도상의 특징은 그 전문용어가 가지는 백과사전적 의의보다 언어학적 의의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점 일 것이다. 따라서 <연세 현대>는 전문용어의 뜻풀이는 백과사전적 풀이를 가능한 배제하고 되도록 쉽게 풀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뜻풀이는 꼭 필요한 정보만 담도록 최소화하고 그 외의 백과사전적 정보는 참고 정보에서 준다. 여기에서 ‘되도록 쉽게’, ‘꼭 필요한 정보만’이 의미하는 바는 이 어휘를 뜻풀이 할 때 되도록 일상어를 사용하며 그 개념이 일상 생활에서 갖는 의의를 중요시한다는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엑스레이’의 실제 뜻풀이를 비교해 보았다.

<표준>	엑스레이 「명사」 『물리』 파장 0.01~100옹스트롬(Å)으로 감마선과 자외선의 중간 파장에 해당하는 전자기파. 눈에 직접 보이지는 않으나 굴절, 반사, 편광, 간섭, 회절 따위의 현상을 나타내며 강한 형광 작용, 전리 작용, 사진 작용, 투과 작용 따위를 한다. 학문적으로 중요할 뿐만 아니라 실제 사용 면에서도 질병의 진단 및 치료, 금속 재료의 내부 검사, 미술품의 감정(鑑定) 등 그 용도가 매우 넓다. 1895년에 독일의 뢰트겐이 발견할 당시에는 알 수 없는 선이라는 뜻에서 엑스선이라고 불렀다.
<연세 현대>	엑스레이 1. ((물리)) 물체를 파괴하지 않고 내부 구조를 조사할 수 있어서 질병 진단, 물질 구조 연구 등에 쓰이는, 물질을 뚫고 지나가는 힘이 큰 광선. 2. 병원에서 골절이나 몸 안의 질병을 찾아내기 위해 엑스레이로 촬영을 하는 것, 또는 그러한 기계.

위의 뜻풀이를 비교해 보면 <표준>에 비해 <연세 현대>가 보다 더 일상적인 어휘들을 사용하여 풀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흔히 ‘엑스레이를 찍다’와 같은 표현에서 일상적으로 쓰이는 ‘엑스레이’는 일반어로 보고 의미번호를 갈라 기술한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생물’ 영역에 해당하는 전문용어의 경우 대부분의 사전에서 생물 분류학상의 단위인 ‘문, 강, 목’을 이용한 뜻풀이를 하는데 <연세 현대>의 경우는 이를 이러한 생물 분류학상의 단위를 이용한 뜻풀이를 최대한 배제한다. 친숙한 동물인 ‘오리’에 대한 뜻풀이를 비교해 보면 그런 특징을 잘 비교해 볼 수 있다.¹⁵⁾

<표준>	오리03 「명사」 『동물』 오리과의 새를 통틀어 이르는 말. 발가락 사이에 물갈퀴가 있으며, 부리는 편평하다. 검둥오리, 청둥오리, 흰뺨검둥오리 따위가 있다.
<연세 현대>	오리01

15) ‘오리’는 <연세 현대>에서는 전문용어 표제어가 아니지만 <표준>에서는 전문용어 표제어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부리는 길고 넓적하고 ‘뿡뿡’하고 큰 소리를 내고, 헤엄을 잘 치며, 집에서 기르기도 하는 큰 새.
--	---

물론 <연세 현대>의 이러한 뜻풀이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전문용어의 개념이란 매우 정교하고 정확한 것이어야 하는데 이렇듯 일반어의 처리에 준하는 뜻풀이는 정보의 손실뿐만 아니라 왜곡을 가져올 수도 있으며 유개념을 가진 다른 전문용어를 뜻풀이를 가지고 변별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다소 부족할 수 있는 전문용어의 뜻풀이를 보조하기 위해 <연세 현대>는 참고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예컨대 ‘수학’ 영역에 해당하는 전문용어의 경우 구체적인 수식 등이 개념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참고 정보에서 이를 기술하도록 한다.

나머지 정리

((수학)) 인수분해나 방정식의 근을 구할 때 이용되는 것으로, 다항식의 나눗셈에 대한 나머지를 구할 수 있게끔 해주는 정리.

참고 : 다항식 $f(x)$ 를 $x-a$ 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는 $f(a)$ 의 값과 같다.

이밖에도 화학 분야 전문용어에서 화학식은 참고 정보로 넣으며 원자 기호나 표기 방법, 약칭, 각종 단위의 기호 등의 정보도 참고 정보에서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사실 <연세 현대>가 전문용어를 처리함에 있어 일반어에 준하는 접근 방식을 보인다는 것을 여러 번 강조했지만 전문용어를 표제어 목록에 포함시키는 이상 이들의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기술이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가 된다. 게다가 비교적 안정적인 일반어 표제어들에 비해 전문용어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가 심하다. 전문용어가 사용되는 영역의 발전과 변화가 그대로 전문용어에 투영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문용어를 정보의 왜곡 없이 정확히 기술하는 일은 사전편찬자나 언어학자가 단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이에 대한 각 영역 전문가들의 감수는 필수적이다. <연세 현대> 역시 이러한 전문가들의 감수에 대한 구체적 계획과 실행이 필요할 것이라 본다.

6. 용례

<연세 현대>가 가지는 큰 특징 중 하나로 모든 표제어에 용례를 준다는 점을 들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에서 개발한 1억 어절 말뭉치에서 추출된 용례들을 가지고 기술하도록 되어 있다. <연세 현대>의 전문용어 역시 모두 용례를 가지는 것을 큰 특징으로 한다. 백과사전이나 전문용어 사전의 경우에는 물론이고 언어사전에서조차 전문용어 표제어에 대해서는 용례를 제시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인 것을 생각하면 <연세 현대>의 태도는 주목할 만하다. 언어사전에 있어 용례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좋은 용례만으로도 그 표제어의 의미와 용법을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세 현대>에서 기술된 전문용어에서의 용례가 일반어의 용례와 그 성격을 완전히 같이 하는 것은 아니다. 일반어의 용례는 그 표제어의 의미는 물론이고 문법적 기능, 연어나 패턴, 적절한 사용역이나 문체적 층위를 보여주기 위해 쓰인다면 전문용어의 용례는 전문용어가 나타내는 개념의 이해를 돕는 것을 최우선의 목적으로 하는 장치이다. 또한 <연

세 현대>에서 기술하고 있는 대부분의 전문용어들은 일상생활에서의 쓰임이 있거나 실제 언어생활과 관련되기 때문에 이들의 쓰임을 문맥 속에서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연세 현대>의 용례는 1억 어절 규모의 말뭉치에서 수집된 용례를 바탕으로 한다. 그러나 전문용어의 용례는 교과서, 학습서, 관련 서적 등을 직접 찾아보거나, 해당 전문 분야에서 구축해 둔 인터넷 전문용어 사전 등을 참고하여 실어주기도 한다. 또한 숫자나 기호를 가급적 자제하는 일반어의 용례들과 달리 전문용어의 용례를 기술할 때는 기호나 숫자의 사용을 의미전달에 꼭 필요한 선에서 허용하고 있다. 전문용어와 일반어의 용법을 모두 가지고 있는, 다의어 표제어의 처리를 살펴보면 일반어와 전문용어의 용례가 가지는 차이점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¹⁶⁾

단물

1. 단맛이 나는 물.

예문 : 제철엔 실한 무화과 열매가 **단물**을 함뱍 머금고 탐스럽게 열렸다./입 안에서 꼭꼭 씹으니 참외가 시원한 **단물**과 함께 목을 넘어갔다./창자 속에는 아무것도 없고 목구멍에서는 **단물**만 솔솔 넘어왔다./표고버섯을 끓일 때 소금을 넣는 것은 버섯의 **단물**이 빠지지 말라고 그런다.

2. ((화학)) 칼슘이온이나 마그네슘이온이 많이 섞이지 않은 물.

예문 : 역시 비누는 알칼리성을 띠는 센물에는 잘 녹지 않지만, **단물**에는 잘 녹아든다./칼슘이나 마그네슘의 화합물이 많이 들어 있는 물을 센물이라 하고, 조금 들어 있는 물을 **단물**이라 한다./일반적으로 물 100cm³ 속에 산화칼슘 1mm이 들어 있을 때의 경도를 1도로 정하고, 20도 이상이면 센물, 10도 이하이면 **단물**이라고 한다.

7. 나오기

지금까지 <연세 현대>의 전문용어 표제어의 기술상 특징과 문제점을 중심으로 언어사전에서의 전문용어에 대해서 고민해 보았다. <연세 현대>가 현재 편찬 중에 있는 사전이라는 점으로 인해 여기에 소개된 고민들과 문제점은 사전을 편찬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것들이라서 실제 사용자들이 느낄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고려가 부족할 수 있다. 또한 언어사전에서 표제어로서 다루어지는 전문용어들만을 그 대상으로 하여, 언어사전에서 이들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효과적인지에 대한 논의이기 때문에 그 대상과 범위가 매우 한정적인 연구가 되었다.

그러나 여기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은 비단 <연세 현대>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이 고민들은 전문용어를 표제어로 삼는 다른 많은 언어사전들도 함께 공유하는 것이고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이다. 이 연구에서 해결책의 하나로 전문용어 말뭉치의 구축과 활용, 전문가의 감수 등을 제안했다. 또한 표제어를 선정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전문용어의 표준화 문제도 언급하였는데 이러한 해결책은 사전편찬자나 언어학자 단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바는 아니고 전문용어학(terminology)의 연구 결과에 의존해야 하는 바가 크다. 전문용어의 표준

16) 이는 논의를 위해 표제항을 구성하는 요소들 중 일부분만을 보인 것이다.

화, 개념의 명확화 등과 같은 전문용어학의 쟁점들이 해결된다면 그 연구 성과가 언어 사전에서 전문용어를 기술하는 데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사전이 항상 전문용어학에 의존적인 것은 아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언어사전이라 할지라도 일상적으로 쓰이는 전문용어의 수집과 정리, 표준화와 유통, 사용의 측면에서 사회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책임을 다 함으로써 언어사전이 전문용어학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 강현화(1998), 사전과 언어정보 : 전문용어사전에 대한 국어학적 제안, <언어정보개발연구>1, 연세대 언어정보연구원.
- 강현화(2000), 전문용어의 표준화를 위한 유형 분석-경제용어를 중심으로, <전문용어연구2>, 전문용어센터.
- 강현화·김유미(2008), 학문목적 학습자를 위한 학술 전문어휘 선정 연구, <한국어교육>19-3,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김문오(2001), 전문용어와 고유명사의 상관관계, <전문용어연구3>, 전문용어언어공학연구센터.
- 김미령·시정곤(2001), 국어사전에서의 전문용어 분류에 대한 연구, <전문용어연구3>, 전문용어언어공학연구센터.
- 김선헌(2009), 『표준국어대사전』의 고유명사 표제항들에 대한 비판적 검토, <언어사실과 관점>23, 연세대 언어정보연구원.
- 김현권(2001), 전문용어의 언어학적 특성과 사전적 기술의 문제, <전문용어연구3>, 전문용어언어공학연구센터.
- 남길임(2008), 『표준국어대사전』의 전문어 표제항에 대한 사전학적 분석, <언어과학연구>47, 언어과학회.
- 도원영(2000), 「민언 국어 사전」(가칭)의 표제어 선정과 그 실제에 대하여, <한국어학>12, 한국어학회.
- 도원영(2008), 국어사전 표제어의 사용역 정보에 대한 고찰, <우리어문연구>30, 우리어문학회.
- 도원영·차준경(2009), <고려대 한국어대사전>의 종합적 고찰, <민족문화연구>51,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 박형익(2000), 국어사전에서의 전문용어의 정의와 분류, <전문용어연구2>, 전문용어언어공학연구센터.
- 박형익(2001), 정보 분류와 전문용어의 분류, <전문용어연구3>, 전문용어언어공학연구센터.
- 서상규·한영균(1999), <국어정보학 입문>, 태학사.
- 송영빈(2000), 전문용어학의 제문제, <전문용어연구1>, 전문용어언어공학연구센터.
- 안의정·이종희(2008), 국어 사전의 사용역 정보에 관한 연구 -중사전을 중심으로-, <어문논총>48, 한국문학언어학회.
- 안의정·황은하(2010), 『연세 현대한국어사전』의 표제어 목록 구성의 이론과 실제, <한국사전학>15호, 한국사전학회.

- 유현경·남길임(2009), <한국어사전 편찬학 개론-사전 편찬의 이론과 실제>, 역락.
- 이기용·시정곤 편(2001), <정보지식혁명과 전문용어>, 전문용어언어공학연구센터.
- 이익환·안의정(2007), 연세 현대한국어사전 편찬 프로젝트, <한국사전학>9, 한국사전학회.
- 이현주(2007), 전문 영역 표기의 사전적 기능에 대하여 : 일반 언어사전을 중심으로, <한국사전학>9, 한국사전학회.
- 장유진·홍희정(2005), 국어사전의 전문용어에 관한 연구, <한글>270, 한글학회.
- 조은경·서상규(2000), <전문용어와 전문언어 말뭉치>, 전문용어언어공학연구센터.
- 조은경(2001), <전문용어의 어휘형태적 특성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홍종선(2003), 국어 사전 편찬, 그 성과와 과제(3): 올림말(2) -올림말의 선정 기준과 범위, <어문논집>48, 민족어문학회.

‘<연세 현대한국어 사전>의 전문용어 처리의 현황과
과제’에 대한 토론문

도원영
(고려대학교)

별 지 참 조

Ⅲ. 일반 발표

교육용 물리 용어의 선정 연구

윤은정, 박윤배
(경북대학교)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학교 교육 속 과학 교육은 두 가지 중요한 목적을 가진다. 첫 번째는 과학 기술의 발전을 주도할 과학 인재의 양성이고, 두 번째는 과학 기술의 시대를 살고 있는 일반 시민들의 과학적 소양을 기르는 일이다. 두 가지 모두 국가 경쟁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교육 현장의 학생들은 점점 과학을 어려워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과학에 대한 흥미가 저하되고 이공계 기피 현상으로 이어지는 등 과학 교육은 그 목적 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학생들이 과학을 어려워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그 가운데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것이 과학 용어에 대한 어려움이다. 과학이라는 학문의 특성상 과학 용어가 많이 사용되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과학을 배우는 학생들에게는 오히려 과학을 어려워하고 기피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Merzyn, 1987).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학생들에게 과학을 가르칠 때 과학 용어의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거나 쉬운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김규용, 1995; 임종효, 2004) 이는 과학 용어를 단순히 소통의 수단으로만 보는 관점에서 비롯된 주장으로, 과학 교육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부적절한 조치라 여겨진다. 학생들이 과학 용어를 어려워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선된 과학 용어를 의도적이고 체계적으로 교육하여 학생들의 과학 용어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과학에서 과학 용어가 왜 필요하며 어떤 특성과 중요성을 가지는지 등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접근에서 출발할 필요가 있다.

과학 교육을 언어 교육의 일환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있다. Wellington & Osborne(2001)은 모든 과학 교육은 언어 교육이라고 주장할 만큼 과학에서 언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과학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과학 언어라고 부르며 이는 일반적인 언어와는 다른 특성을 갖는다. 과학 언어는 복잡한 과학적 논쟁을 구성하는데 유용하도록 발달해 왔으며(Halliday & Martin, 1993) 과학적 추론과 방법론을 반영하고 있다(Argamon & Dodick, 2009). 또한 과학적 사고의 확장과 발전, 탐구와 이론 정립 등의 기능을 하여 과학의 흐름과 발전에 영향을 미친다(Ford & Peat, 1988). 따라서 과학 언어는 단순히 과학 분야의 전문가들이 의사소통을 위해 사용하는 수단으로써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과학 그 자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과학 교육에 있어 과학 언어를 교육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에 해당한다. Michaels et al.(2008)은 과학에 있어 원어민은 없다고 이야기하며 과학 교육에서 과학 언어를 외국어 교육하듯 체계적으로 교육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 바 있다.

다시 과학 용어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가서, 모든 언어 교육에 있어 어휘 교육이 중요하듯 과학 교육의 일부분으로 과학 언어 교육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과학 용어 교육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실제로 학생들은 한 문장에 여러 개의 용어가 나오면 읽기를 잘 하는 학생들조차 이해에 어려움을 겪으며(Fang, 2006), 학생들은 과학 용어를 배우는 것을 외국어 배우는 것에 비유하기도 한다(양찬호 외, 2011). Yager(1983)는 과학 시간에는 외국어 시간보다 더 많은 과학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고 이야기하며 과학 용어 교육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과학 용어를 교육하기 위해서는 어떤 용어를 교육할 것인지와 그 용어를 몇 학년에서 가르칠 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교육할 것인가에 대한 답이 필요하다. 본 고에서는 우선 첫째 이슈인 ‘어떤 용어를 교육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해 보고자 하며, 이를 위해 과학 용어 교육¹⁾을 위한 용어를 교육용 과학 용어라고 정의한다. 교육용 과학 용어는 과학 분야에서 사용하는 전체 과학 용어의 부분 집합이 될 것이다. 따라서 교육용 과학 용어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어떤 것이 과학 용어인지를 구분하고 그 가운데 교육적 필요성이 있는 용어들을 골라내야 한다. 그러나 아쉽게도 현재는 하나의 단어를 두고 이것이 과학 용어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기 위한 명확하고 공신력 있는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 각 학계에서 발간한 용어집, 국내 유일의 규범 사전인 표준국어대사전, 과학 교과서 집필을 위한 편수자료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의 감수를 거친 자료들조차 기준이 통일되어 있지 않으며, 수록된 용어들에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윤은정, 2012). 그런데, 과학 용어를 정비하고 통일한다는 것은 어느 한 개인의 연구로는 어려운 일일 뿐더러 가능하다 하더라도 타당성을 인정받는 결과물을 내기가 어려울 것이다. 또한 집단 연구를 통해서도 많은 전문가가 오랜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가능한 일이다. 그렇다고 과학 용어를 구분하기 어려우니 과학 용어 교육을 포기할 수는 없는 노릇이며 마냥 과학 용어가 통일되고 정비되기를 기다릴 수도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과학 용어를 수록하고 있는 몇 가지 자료들을 살펴보고 이들의 문제점을 짚어 본 뒤, 현실적 상황 속에서 타당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교육용 과학 용어를 선정할 수 있는 하나의 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경험적 언어학의 방법

본 연구에서는 교육용 과학 용어를 선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실제 과학 교육에서 어떤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경험적 언어학의 연구 방법을 사용하고자 하며, 연구 범위는 중학교 과학의 물리 단원 가운데 ‘힘과 운동’ 단원으로 국한하였다. ‘힘과 운동’ 단원은 물리학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내용 가운데 하나로 수 차례 교육과정의 개정에도 빠짐 없이 포함되는 단원이다. 본 연구에서 알아보하고자 하는 것은 물리학의 중요 개념인 ‘힘’과 ‘운동’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과학 용어들이 사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중학교 학생들에게 ‘힘’과 ‘운동’이라는 개념을 가르치는 것은 국가 교육과정을 만드는 과정에서 전문가들의 합의에 의해 결정 된다. 다음으로 교육과정에 따라서 현 시대를 대표하는 소수의 과학 교육 전문가들에 의해서 교과서가 집필된다. 이 때 과학 교과서에는 ‘힘’과 ‘운동’을 설명하기 위해서 많은 과학 용어가 사용되는데, 이것은 교과서를 집필하는 집필자

1) 과학 용어 교육 : 과학 용어 교육은 학습자의 과학 용어에 대한 이해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교육으로서, 과학 교육의 목표가 되는 개념을 담은 과학 용어 및 이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과학 용어들을 학습자에게 가르치는 것으로 정의한다. 이충우(1997)의 연구에서는 어휘 교육을 ‘학습자의 어휘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교육으로서, 교육의 내용·목표가 되는 어휘를 학습자에게 가르치는 것’으로 정의한 바 있다.

들의 직관에 의해서 결정된다. 교육과정에 제시되는 주요 개념어들의 경우 여러 전문가들의 합의를 통해 공표된 것이지만, 주요 개념어를 설명하기 위하여 동원되는 용어들은 그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을 뿐더러 집필자에 따라서 다른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실제로 과학 교과서에 사용되는 용어들은 출판사 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박혜진, 2008; 이상미, 2007; 최행임, 2007).

교과서에 사용된 과학 용어에는 ‘힘’과 ‘운동’과 관련된 주요 개념어에 대한 중요도 및 중학교 학생들의 인지 수준에 대한 과학 교육 전문가들의 직관이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한 권의 교과서를 분석하는 것은 소수 전문가들의 관점만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가능한 많은 자료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여러 교육과정에 걸친 자료를 분석하면 시간의 흐름에 따른 언어의 변화 및 다양한 세대의 전문가들의 직관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 가운데 공통된 관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여러 출판사의 교과서, 그리고 교육과정의 변화에도 공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용어가 있다면 이것들은 ‘힘’과 ‘운동’의 개념을 가르치기 위한 교육용 과학 용어로서의 타당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II. 연구 내용

1. 분석 자료

연구 대상은 2007 개정 교육과정과 현재 사용 중인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과학 교과서 ‘힘과 운동’ 단원이다. 2007 개정 교육과정과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과학 교과서를 각각 한 종류씩 임의로 선택하여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를 7차 교육과정에 따른 9종의 모든 출판사의 교과서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윤은정, 2012)와 비교 분석하였다.

2. 과학 용어 추출

교과서에서 과학 용어 추출을 용이하게 하고 여러 가지 분석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과학 언어 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먼저 교과서 문서를 전자 문서 형태로 변환하였다. 교과서 가운데 PDF 파일 형태로 본문을 구할 수 있었던 것은 PDF파일을 바로 한글 파일로 옮겼으며, 전자 형태의 파일을 구할 수 없는 경우는 스캐너와 OCR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한글 파일로 변환하였다. 변환된 한글 파일에서 변환 도중에 발생한 띄어쓰기 및 맞춤법 오류 등을 검토하여 원래의 자료와 완전히 일치시켰다. 다음으로 한글 파일의 텍스트를 과학 언어 분석 프로그램에 입력하였다. 과학 언어 분석 프로그램을 통해 텍스트가 어절 단위로 나누어지고 표준국어대사전에 근거하여 기본형으로 변환 처리된다.

다음으로 교육용 과학 용어를 선정하기 위하여 과학 교과서에서 사용되고 있는 과학 용어를 추출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다시 한 번 어떤 용어를 과학 용어로 볼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의 주관에 의해 과학 용어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지양하고자 기존의 자료를 활용(하고자)하였다. 즉, 기존의 자료를 최대한 폭넓게 수용하여 계량적으로 분석한 뒤 결과를 해석할 때 사용한 자료들의 편향 지침 및 자료의 특성을 고려하여 결

론을 도출하고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 대상은 과학의 영역 가운데 물리학에 해당한다. 따라서 물리학 용어 목록을 제시하고 있는 자료 가운데 학계의 전문가들이 정한 기준에 따라 용어를 수록해 놓은 물리학 용어집(한국 물리학회, 2010)과 국내 유일의 규범 사전인 표준국어대사전(국립국어원, 2008) 두 가지를 추출 근거 자료로 사용하였다. 두 자료 모두 나름의 기준을 바탕으로 물리학 용어를 선정하고 있으나 두 자료 사이의 불일치도는 큰 편이었다. 자료의 특성에 대한 분석은 뒤에 결과를 해석할 때 다시 한 번 다루기로 하고 우선 분석 과정에서는 두 자료 중에서 어느 한 곳에서라도 물리 분야의 전문어로 수록한 단어는 과학 용어로 분류하였다.

분석 결과 2007 개정 교육과정의 중학교 과학 힘과 운동 단원에서는 174개의 용어가 사용되고 있었고, 2009 개정 교육과정의 같은 단원에 183개의 용어가 사용되고 있었다. 이것을 7차 교육과정의 분석 결과와 비교하여 교육과정의 변화에 따른 용어 사용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았다. 7차 교육과정에 따른 분석은 9종 출판사의 과학 교과서를 모두 분석한 결과이고 나머지 교육과정 분석은 한 출판사의 교과서만을 분석한 결과이므로 결과 해석에 있어 이 점을 고려해야 한다.

표 1 교육과정의 변화에 따른 용어 사용의 변화

7차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에서 ‘힘’과 ‘운동’을 설명하기 위하여 사용된 물리 분야의 과학 용어
가로축, 가마, 가설, 가속도, 가정, 각, 각도, 간격, 감속, 값, 강도, 거리, 거울, 진전지, 건조, 결정, 결합법칙, 경계, 경로, 경사, 계, 계기, 고도, 고리, 고정, 고정, 고체, 골, 굵, 공, 공간, 공기, 공기저항, 공동, 공전, 공학, 파력, 파정, 관성, 관성의법칙, 관찰, 관찰자, 관측, 광섬유, 광학, 교류, 구간, 구름, 구멍, 구심력, 구조, 레도, 균열, 그네, 그래프, 그래프용지, 그림, 그림자, 극, 금속, 기관, 기구, 기능, 기동, 기록계, 기본, 기술, 기술기, 기원, 기준, 기준점, 기체, 길, 길이, 겹질, 끈, 끝, 끝질, 나머지, 나사, 나침반, 낙하운동, 남극, 냉장고, 넓이, 높이, 눈, 눈금, 뉴턴, 능력, 다발, 단면, 단위, 단위시간, 단지, 단진자, 대, 대기, 대류, 대원, 대전, 덩어리, 도구, 도르래, 도선, 도전, 도형, 둘레, 드라이아이스, 등가속도운동, 등속운동, 등속원운동, 등속직선운동, 띠, 레이더, 로켓, 마당, 마디, 마이너스, 마찰, 마찰력, 마찰전기, 막, 막대, 막대자석, 만유인력, 만유인력의법칙, 말굽자석, 메이저, 메트로놈, 면, 면적, 모눈종이, 모뎀, 모순, 모습, 모형, 뭉, 무게, 무중력, 무중력상태, 물레방아, 물리학자, 물음, 물질, 물체, 무지, 미끄럼, 밀도, 밀, 밀면, 바, 바늘, 바닥, 바탕, 반, 반대, 반사, 반응, 반지름, 받침대, 발사, 발전기, 발전, 방울, 방해, 방향, 배, 배열, 배울, 벨트, 반개, 범위, 법, 법칙, 베이킹, 변형, 별, 복사, 볼트, 부분, 부상, 부착, 부피, 북, 북극, 분류, 분산, 분석, 분수, 분포, 분해, 불꽃, 붓, 붓고되다, 브라운관, 비, 비례, 비용, 비커, 비탈, 빗면, 빗변, 빛, 빛의분산, 뿌리, 사각형, 사진, 사슬, 사이클, 사진기, 산, 산란, 산물, 삼각자, 삼각형, 삼각형법, 상, 상태, 석회암, 선, 선로, 선분, 삼광, 섬유, 세기, 세로축, 서터, 소, 소금, 소리, 소수, 속, 속도, 속력, 속력계, 수력, 수준, 수증기, 수직향력, 수평, 수평면, 순서, 순환, 스위치, 스탠드, 슬라이드, 습도, 시, 시간, 시간기록계, 시공, 식, 신호, 실선, 실험, 실험실, 안정, 안정성, 압력, 압축, 앞뒤, 액체, 양, 양력, 양팔저울, 어림, 에나멜선, 에보나이트, 에스극, 앤극, 엔진, 여기, 여단이, 역, 역수, 역학, 연결, 열, 열차, 영구자석, 영점, 온도, 왕복운동, 외적, 원주, 요소, 용수철, 용수철저울, 우주, 우주선, 운동, 운석, 원, 원기, 원돌레, 원리, 원반, 원뿔, 원운동, 원자, 원자력발전, 원점, 원주, 원통, 원판, 위성, 위치, 유리, 육면체, 윤회율, 음력, 음전기, 이동, 이론, 이산화탄소, 인공위성, 인력, 일, 자, 자국, 자극, 자기, 자기력, 자력, 자리, 자석, 자전, 자철광, 작용, 작용선, 작용점, 장, 장비, 저울, 저항, 저항력, 적외선, 전기, 전기력, 전단, 전달, 전동기, 전력, 전원, 전자, 전자석, 전자현미경, 전파, 점, 점선, 점점, 접착, 접촉면, 정도, 정리, 정사각형, 정전기, 정지, 제트, 조각, 조건, 조금, 조명, 조사, 조석, 주기, 주기운동, 주로, 줄, 줄무늬, 중력, 중력가속도, 중심, 지구, 지대, 지름, 지시대, 지진, 지표, 직류, 직사각형, 직선, 직선운동, 진공, 진공상태, 진동, 진동수, 진동운동, 진동판, 진자, 진폭, 질량, 짐, 집단, 짝, 차, 차례, 차원, 차이, 천문학, 천연, 천정, 천체, 체온계, 초, 초속, 초음속, 초음파, 최대, 최대속력, 추, 축, 축척, 출력, 충격, 충돌, 측정, 카본, 커버글라스, 컴퓨터, 크기, 클램프, 킬로그램원기, 탄력, 탄력성, 탄성, 탄성력, 탄성계, 탐사, 태양, 태양계, 터빈, 텔레비전, 톱나비귀, 투명, 투명체, 파도, 파동, 파손, 판, 팔, 팽이, 펌프, 평균, 평균값, 평균속력, 평행사변형, 평행사변형법, 평형, 평형상태, 포물선, 폭, 폴, 표, 표본, 표준, 표지, 풀이, 풍속계, 플라스틱, 플러스, 피스톤, 필름, 한계, 함, 합력, 합성, 해, 행성, 헤르츠, 현미경, 현상, 현악기, 형성, 해상, 호, 흙, 화력발전, 화성, 화학, 확대, 확률, 환경, 회전, 회전운동, 회전축, 흐름, 흡수, 회다, 힘, 힘의평형, 힘의합성
7차 교육과정과 비교하여 2007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에서 새로 등장한 용어
극한, 렌즈, 마루, 모터, 무늬, 반환점, 방식, 배경, 본, 부력, 분리, 브러시, 센서, 스트레스, 용기, 적응, 전자장치, 접속, 키, 표면장력, 필드, 형식, 흔적
7차 및 2007 개정 교육과정과 비교하여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에서 새로 등장한 용어
감지기, 구, 기호, 대표, 더미, 매듭, 버튼, 부등호, 사고실험, 수정, 알짜힘, 은하, 이슬, 자유낙하, 자침, 장력, 재생, 전하, 정의, 조작, 지구분, 코팅, 파일, 플래시, 홀

표 1에서 7차 교육과정에 따른 9종 출판사의 과학 교과서 힘과 운동 단원에 사용된 물리 분야의 과학 용어는 전체 493개이며, 2007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에서 힘과 운동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 과학 용어 가운데 새로 등장한 것은 23개였으며,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에는 25개의 용어가 새로 등장하여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같은 내용을 설명하는 데 있어 집필자들이 상당 부분 공통된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집필자에 따라 설명 방법이나 설명에 사용하는 예시 등을 다르게 사용함으로써 일부 다른 용어를 사용하기도 함을 확인할 수 있다.

추출된 용어들의 활용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 빈도를 조사한 뒤 그 결과를 표 2에 나타내었다. 표 2는 각 교육과정 별로 빈도 순위 30위 이내의 용어들이며 해당 교육과정에서만 사용된 용어를 음영으로 표시하였는데, 7차 교육과정에서는 다른 교육과정에서 사용되지 않은 용어가 하나도 없었고 2007 개정 교육과정에는 ‘부력’,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알짜

힘'으로 각각 1개씩 있었다. 특히 2007 개정 교육과정과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빈도 100이 넘는 고빈도어가 6개 있었는데, 이 6개의 용어는 모든 교육과정에서 상위 빈도 6위 이내에 차지하고 있어 '힘과 운동' 단원의 필수 과학 용어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힘', '운동', '물체', '속력', '방향', '작용'이 여기에 해당하였으며 학생들이 이 6개 용어의 개념을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다면 중학교 '힘과 운동' 단원의 학습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표 2 빈도 순위 상위 30위의 용어

7차 교육과정			2007 개정 교육과정			2009 개정 교육과정		
순위	용어	빈도	순위	용어	빈도	순위	용어	빈도
1	힘	2313	1	힘	297	1	힘	264
2	운동	1709	2	운동	199	2	물체	225
3	물체	1623	3	물체	188	3	속력	172
4	속력	1287	4	방향	148	4	방향	157
5	방향	1071	5	작용	148	5	작용	151
6	작용	932	6	속력	130	6	운동	138
7	그림	772	7	크기	60	7	크기	79
8	시간	597	8	중력	54	8	시간	75
9	크기	400	9	시간	53	9	그림	73
10	거리	338	10	공	47	10	합력	53
11	용수철	327	11	합력	43	11	그래프	43
12	합력	288	12	그래프	42	12	거리	41
13	공	274	13	마찰력	36	13	용수철	37
14	추	243	14	위치	34	14	마찰력	35
15	질량	238	15	지구	30	15	중력	35
16	실험	232	16	무게	29	16	이동	33
17	무게	222	17	그림	26	17	탄성력	32
18	지구	222	18	각	24	18	알짜힘	31
19	중력	219	19	상태	22	19	지구	28
20	길이	208	20	반대	20	20	반대	27
21	마찰력	208	21	부력	19	21	자석	27
22	과정	188	22	속	19	22	공	24
23	상태	179	23	구간	18	23	관성	23
24	용수철저울	177	24	용수철저울	16	24	무게	22
25	위치	173	25	실험	15	25	질량	22
26	정지	170	26	기구	14	26	구간	21
27	자석	155	27	바닥	14	27	길이	20
28	정리	145	28	배	14	28	전기력	19
29	초	141	29	부분	14	29	용수철저울	18
30	점	134	30	자기력	14	30	모습	17

다음으로 모든 교육과정에서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용어들을 추출해 보았다. 110개의 용어가 여기에 해당하였으며 그 목록을 표 3에 제시하였다. 이 용어들은 '힘'과 '운동'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대부분의 교과서 집필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용어에 해당하며 학생들에게 용어 교육을 실시할 필요성이 높은 용어에 해당할 것이다. 수업 시수와 중학교의 단원 분포를 고려하여 '힘과 운동' 단원의 수업을 대략 15~20차시 정도에 걸쳐 실시한다고 가정했을 때 한 차시에 6~7개씩 배당된다.

표 3 세 교육과정의 ‘힘과 운동’ 단원에 공통적으로 사용된 용어

각, 각도, 간격, 값, 거리, 공, 공간, 과정, 관성, 관찰, 구간, 그네, 그래프, 그림, 극, 기구, 기울기, 기준, 길, 길이, 끝, 나침반, 높이, 눈, 눈금, 단위, 도구, 등속운동, 등속직선운동, 마찰, 마찰력, 막대, 모눈종이, 모습, 무게, 무중력상태, 물질, 물체, 바닥, 반대, 방향, 배, 변형, 부분, 북극, 분류, 분석, 빗면, 빛, 상, 상태, 선, 세기, 속, 속력, 시간, 실험, 왼쪽, 요소, 용수철, 용수철저울, 우주, 운동, 원리, 위치, 유리, 이동, 일, 자, 자기력, 자석, 작용, 작용점, 저울, 전기, 전기력, 점, 접촉면, 정도, 정지, 조각, 줄, 중력, 중심, 지구, 직선, 질량, 차, 초, 추, 충돌, 측정, 컴퓨터, 크기, 탄성, 탄성력, 탄성체, 태양, 평균속력, 평행사변형, 평형, 표, 플라스틱, 합, 합력, 합성, 해, 현상, 회전, 힘

3. 물리학 용어집과 표준국어대사전의 물리학 용어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 과학 교과서 물리 단원에서 사용되는 과학 용어를 추출하는 기준으로 물리학자들이 정한 기준에 따라 용어를 수록해 놓은 물리학 용어집(한국 물리학회, 2010)과 국내 유일의 규범 사전인 표준국어대사전(국립국어원, 2008)을 사용하였다. 두 자료 모두 나름의 기준을 바탕으로 물리학 용어를 선정하고 있으나 두 자료 사이의 불일치가 큰 편이다. 물리학 용어집은 총 15,373개의 용어를 물리학 용어로 수록하고 있으며, 표준국어대사전에는 10,906개의 용어를 물리학 또는 전기 분야의 전문어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두 자료 사이에 공통 용어는 2,322개에 불과하다.

물리학 용어집은 학회의 용어 심의 위원회를 조직하고 위원회에 속한 물리학자들이 두 번의 합숙과 서른 여덟 번의 회의를 거쳐 용어 하나 하나 심의하여 수록하였으며, 이후 800여명의 물리학회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 단계를 거쳐 만든 것이다(한국물리학회, 2004). 표 4는 물리학 용어집의 용어 수록 기준이다.

표 4 물리학 용어집의 용어 수록 기준(한국물리학회, 2004)

1. 자료는 모두 전산화 한다.
2. 물리학의 발전에 따라 생겨난 새로운 용어를 최대한 수용한다.
3. 일상 용어는 수록하지 않는다.
4. 로마자도 한글로 표기한다.
5. 용어의 분야는 표기하지 않는다.
6. 물리적 내용에 충실한 풀이를 고른다.
7. 될 수 있으면 토박이말을 용어로 사용한다.
8. 북한에서 쓰이는 용어, 교육부 편수자료 및 인접 학문 분야의 용어를 참조한다.
9. 외래어 표기는 교육부에서 제정한 기준을 따른다.
10. 복합어는 될 수 있으면 토박이말은 토박이말끼리, 한자어는 한자어끼리 짝을 짓는다.
11.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글 용어에도 붙임표를 사용한다.
12. 한자는 표시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표준국어대사전의 편찬 지침을 살펴 보면 우선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전문어를 표 5와 같이 정하고 있다.

표 5 표준국어대사전의 전문어 정의(국립국어원, 2000)

-
1. 전문어는 일반인이 쉽게 그 뜻을 파악하기 어렵고, 일부 전문 계층에서만 통용되는 언어를 이른다. 여기에는 전문적인 개념을 지니고 있는 것과, 용어 자체가 전문적인 쓰임을 보이는 것이 있다.
 2. 전문적인 개념을 지닌 표제어들 가운데 일반 언중들 사이에서 그 쓰임이 일반화한 것은 일반어로 처리한다.
 3. 표제어로서의 각 영역명은 모두 일반어로 처리한다. 단 기독교 불교 따위의 종교명은 각 종교 영역에서 처리한다.
 4. 직업명은 전문 직종과 관련된 경우라도 일반어로 처리한다. 단 전문 직종과 관련되면서 일반 언중들 사이에서 쉽게 파악하기 어려운 직업명은 전문어로 처리한다.
 5. 어떤 표제어를 복한 사전에서만 전문어로 판단한 경우에는 그 표제어의 뜻풀이 내용을 확인한 뒤 일반어 여부를 판단한다. 하지만 남한에서 쓰는 의미와 다른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다의어로 처리한다.
-

또한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전문어를 선정하는 일반 원칙을 표 6과 같이 정하고 있다.

표 6 표준국어대사전의 전문어 표제어 원칙(국립국어원, 2000)

-
1. 전문어 표제어는 북한어 전문어와 고유 명사를 포함하되, 고어·방언·속어 등과 일반 사회에서 쓰던 호칭 따위는 제외한다.
 2. 기존 국어 사전들에 표제어로 등재되어 있는 전문어들을 우선 선정 대상의 자료로 삼는다.
 3. 영역별로는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 다룰 수 있는 정도의 전문어들을 대상으로 한다.
 4. 영역별 전문어 사전과 전문 서적에서 폭넓게 나타나는 전문어들을 대상으로 한다.
 5. 신어 가운데 전문어는 우리 사전에서 등재할 신어 자료 중에서 전문어의 선정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

두 자료의 성격과 선정 기준을 살펴보면 표준국어대사전의 전문어 분류는 물리학 용어집의 부분집합이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표준국어대사전의 전문어 선정 원칙을 보면 영역별 전문어 사전에 수록된 단어를 수용하되 그 수준을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 다룰 수 있는 정도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장의 의미만을 생각하면 물리학 용어집에 수록된 용어들 가운데 고등학교 교과 과정 이하에서 다루고 있는 용어들을 물리 분야의 전문어로 분류하고 있어야 한다. 이에 비추어 보면 현재의 두 자료 사이의 불일치도는 심각한 수준이라 여겨진다. 전체 자료(표 1)에서 수록된 물리 분야의 과학 용어 504개 가운데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물리 분야의 전문어로 분류하고 있는 용어는 185개였고 물리학 용어집에 수록된 용어는 456개 였으며, 이 가운데 두 자료에서 공통으로 과학 용어로 구분하고 있는 용어는 136개 였다(표 7 참조). 이러한 결과는 어느 하나의 자료에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기 힘들다. 표준국어대사전은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용어들 가운데 고등학교 이하의 교육과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들에 대해서는 해당 용어의 과학적인 의미를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고 여겨지며, 물리학용어집 또한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물리 분야 전문어로 분류하고 있는 용어들을 검토하여 수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표 7 물리학용어집과 표준국어대사전의 수록 용어

표준국어 대사전	공통	물리학용어집
관성의법칙, 뉴턴 단위시간, 도전 등속직선 운동, 마이너스, 만유인력의법칙, 무중력상태, 물음, 바, 볼트, 붕괴되다, 비용, 빛의반산, 사이클, 선로, 수준, 스위치, 슬라이드, 시공, 안정, 압력, 여기, 왕복운동, 원자력 발전, 자극, 자력, 작용점, 전단, 전자장치, 주로, 중심, 진동운동, 초속, 초음속, 최대속력, 카본, 커버, 글라스, 키, 탄력, 탄력성, 투명, 파동, 팔, 폴, 플러스, 합력, 헤르츠, 회다	가속도, 강도, 고체, 골, 공간, 공기저항, 파녀, 관성, 광섬유, 광학, 구심력, 겹질, 나침반, 낙하운동, 남극, 단진자, 대류, 대전, 도르래, 등가속도운동, 등속운동, 등속원운동, 레이더, 마디, 마루, 마찰, 마찰력, 마찰전기, 만유인력, 말굽자석, 모터, 무중력, 물질, 밀도, 반, 발전기, 발전, 배울, 변형, 복사, 부착, 복극, 분류, 분산, 분해, 불꽃, 붕괴, 브라운관, 밧면, 상, 상태, 세기, 속도, 수력, 수직항력, 수평, 습도, 시, 시간, 안정성, 액체, 양력, 에나멜선, 에스극, 역학, 영구자석, 영점, 온도, 우주, 우주선, 운동, 원기, 원운동, 원자, 원점, 음전기, 인력, 일, 자기, 자기력, 자유낙하, 자침, 작용, 저항, 저항력, 적외선, 전기, 전기력, 전동기, 전력, 전원, 전자, 전자석, 전자현미경, 전파, 접착, 정전기, 정지, 제트, 조각, 주기, 주기운동, 중력, 중력가속도, 직류, 직선운동, 진공, 진공상태, 진동, 진동수, 진동판, 진자, 진폭, 질량, 차원, 초음파, 출력, 충돌, 탄성, 탄성력, 탄성계, 투명체, 펌프, 평균속력, 평형, 표면장력, 표준, 합성, 현미경, 화력발전, 화성, 회전운동, 회전축, 힘, 힘의 평형, 힘의합성	가로축, 가마, 가설, 가정, 각, 각도, 간격, 감속, 값, 거리, 거울, 건전지, 건조, 결정, 결합법칙, 경계, 경로, 경사, 계, 계기, 고도, 고리, 고장, 고정, 곱, 공, 공기, 공동, 공진, 공학, 과정, 관찰, 관찰자, 관측, 교류, 구간, 구름, 구멍, 구조, 궤도, 균열, 그네, 그래프, 그래프용지, 그림, 그림자, 극, 금속, 기관, 기구, 기능, 기동, 기록계, 기본, 기술, 기울기, 기원, 기준, 기준점, 기체, 기호, 길, 길이, 끈, 끝, 끝점, 나머지, 나사, 냉장고, 넓이, 높이, 눈, 눈금, 능력, 다발, 단면, 단위, 단지, 대, 대기, 대원, 대표, 덩어리, 도구, 도선, 도형, 둘레, 드라이아이스, 띠, 로켓, 마당, 막, 막대, 막대자석, 메이리, 메트로놈, 면, 면적, 모눈종이, 모둠, 모순, 모습, 모형, 뭇, 무게, 물레방아, 물리학자, 물체, 뭉치, 미끄럼, 밀, 밑면, 바늘, 바닥, 바탕, 반대, 반사, 반응, 반지름, 받침대, 발사, 방울, 방해, 방향, 배, 배경, 배열, 앨범, 번개, 범위, 법, 법칙, 베어링, 별, 부분, 부상, 부피, 복, 분리, 분석, 분수, 분포, 비, 비례, 비커, 비탈, 빗면, 빛, 뿌리, 사각형, 사건, 사슬, 사진기, 산, 산란, 산물, 삼각자, 삼각형, 삼각형법, 석회암, 선, 선분, 섬광, 섬유, 세로축, 셔터, 소, 소금, 소리, 소수, 속, 속력, 속력계, 수증기, 수평면, 순서, 순환, 스탠드, 식, 신호, 실선, 실험, 실험실, 압축, 앞뒤, 양, 양팔저울, 어림, 에보나이트, 엔진, 여단이, 역, 역수, 연결, 열, 열차, 외적, 왼쪽, 요소, 용수철, 용수철저울, 운석, 원, 원둘레, 원리, 원반, 원뿔, 원주, 원통, 원판, 위성, 위치, 유리, 육면체, 윤회유, 음력, 이동, 이론, 이산화탄소, 인공위성, 자, 자극, 자리, 자석, 자전, 자철광, 작용선, 장, 장비, 저울, 적응, 전달, 점, 접선, 접점, 접촉면, 정도, 정리, 정사각형, 조건, 조금, 조명, 조사, 조석, 줄, 줄무늬, 지구, 지대, 지름, 지시대, 지진, 지표, 직사각형, 직선, 짐, 집단, 짝, 차, 차례, 차이, 천문학, 천연, 천정, 천체, 체온계, 초, 최대, 추, 축, 축척, 충격, 측정, 컴퓨터, 코팅, 크기, 클램프, 길로, 그래프, 탐사, 태양, 태양계, 터빈, 텔레비전, 톱니바퀴, 파도, 파손, 판, 팽이, 평균, 평균값, 평행사변형, 평행사변형법, 평형상태, 포물선, 폭, 표, 표본, 표지, 풀이, 풍속계, 플라스틱, 피스톤, 필름, 한계, 합, 해, 행성, 현상, 현악기, 형성, 형식, 해상, 호, 홈, 화학, 확대, 확률, 환경, 회전, 흐름, 흡수

III. 맺음말

이상에서 교육용 과학 용어를 선정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으로 과학 교과서를 이용하여 과학 교육에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과학 용어들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로 제시된 ‘힘과 운동’ 단원에서 교육의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된 용어들은 계량적인 분석에 의해 제시된 목록이다. 이는 과학 용어 교육을 실시하는 데 있어 어떤 용어를 교육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기 위한 근거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용어 교육을 실시하게 위해서는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해당 용어들의 교육적 중요도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 과학에서의 개념 위계, 하위 학년에서 다루는 용어들 등을 추가적으로 조사하여 종합적인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물리 분야 하나의 단원에 국한하여 다루었으나 과학 용어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같은 연구가 물리 분야의 나머지 단원 및 과학의 나머지 분야로 확대되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연구 과정에서 물리학 용어집과 표준국어대사전의 물리 분야 전문어 사이의 불

일치가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두 자료의 용어 선정 기준에 의하면 표준국어대사전의 전문어 분류는 전문 용어집의 부분 집합이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물리학 용어집의 용어를 수용하는 비율이 매우 낮았다.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용어를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모두 수용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표준국어대사전의 편찬 지침에도 나와 있듯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들에 대해서는 해당 분야의 전문적 쓰임을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덧붙여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전문어를 ‘일반인이 쉽게 그 뜻을 파악하기 어렵고, 일부 전문 계층에서만 통용되는 언어’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2005년 공포된 국어 기본법에서도 전문 용어를 전문가들만의 은어가 아닌 국민의 생활의 일부로 언급하고 있듯이(국립국어원, 2007) 전문어를 좀 더 폭넓게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같은 맥락에서 ‘전문적인 개념을 담고 있으나 일반 언중들 사이에서 쓰임이 일반화된 것은 일반어로 처리한다’는 지침은 그 기준도 모호할 뿐더러, 과학 기술이 생활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시대적 상황에 적용하기 부적절해 보인다. 예를 들어 ‘텔레비전’과 ‘전기’를 비교해 보면,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텔레비전’을 과학 개념을 담고 있으나 그 사용이 일반 언중들 사이에 일반화 되었으므로 일반어로 구분하고 있다. ‘전기’ 또한 일반 언중들 사이에 널리 보편화 되어 사용되고 있는 단어이다. 그러나 표준국어대사전은 ‘전기’는 전문어로 분류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화에 대한 구분 기준이 모호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현대인의 일상생활에서 과학 기술을 분리하여 이야기하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는 만큼 일반화된 과학 용어들에 대해서도 그 과학적 개념을 표준국어대사전이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교육용 과학 용어와 표준국어대사전의 전문어는 그 범주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표준국어대사전은 본 연구와 같은 연구의 결과물들을 유심히 검토하여 수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끝으로 과학 용어에 대한 연구는 과학적 지식과 언어학의 지식 모두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연구가 보다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직접 모여서 활발하게 논의하고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여겨진다.

참고 문헌

- 국립국어원 (2000). 표준국어대사전 편찬 지침. 국립국어연구원.
- 국립국어원 (2007). 전문 용어 연구. 태학사.
- 국립국어원 (2008). 개정 표준국어대사전. <http://stdweb2.korea.go.kr>.
- 김규용 (1995). 중학교 물리 분야 학습에 활용되는 용어 분석. 과학교육, 12(1), 143-166.
- 박혜진 (2008). 지구과학 I 교과서 어휘 등급 분석.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양찬호, 김지영, 신필여, 위햇님, 신명환, 강도영, 김소요, 민현식, 김찬중, 노태희(2011). 과학 학습 과정에서 나타나는 중간언어의 유형 및 과학 언어에 대한 이해수준 변화에 따른 중간언어의 특징. 한국과학교육학회지, 31(5), 745-757.
- 윤은정 (2012) 초중등 과학 교과서 물리 단원에 수록된 과학 용어의 등급화 연구.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상미 (2007). 9학년 과학교과서의 물리영역 어휘 등급 분석.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충우(1997). 국어 어휘 교육론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1: 어휘 교육의 이론과 실제. 국어교육, 98, 75-103.
- 임종효 (2004). 초등학교 과학과 물리 영역의 용어에 대한 학생들의 개념 조사. 한국교원대

- 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행임 (2007). 10학년 과학교과서의 지구과학영역 어휘 등급 분석.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국물리학회 (2004). 물리학용어집. 청문각.
- 한국물리학회 (2010). 2010 수정 물리학용어집. <http://www.kps.or.kr>.
- Argamon, S., & Dodick, J. (2009). Understanding scientific methodology in the historical and experimental sciences via language analysis. *Science education*, 18(8), 985-1004.
- Fang, Z. (2006). The language demands of science reading in middle school. *International Journal of Science Education*, 28(%), 491-520.
- Ford, A., & Peat, F. D. (1988). The role of language in science. *Foundations of Physics*, 18, 1233.
- Halliday, M. A. K., & Martin, J. R. (1993). *Writing science : Literacy and discursive power*. London and Washington, DC: The Falmer Press.
- Merzyn, G. (1987). The language of school science, *International Journal of Science Education*, 9(4), 483-489.
- Michaels, S., Shouse, A., & Schweingruber, H. (2008). *Ready, Set, Science. Putting Research to work in K-8 Classrooms*. Board on Science Education, Center for Education, Division of Behavioral and Social Sciences and Education. Washington, D. C: The National Academies Press.
- Wellington, J., & Osborne, J. (2001). *Language and literacy in science education*. Open University Press.
- Yager, R. E. (1983). The importance of terminology in teaching K-12 science. *Journal of Research in Science Teaching*, 20(6), 577-588.

‘교육용 물리 용어의 선정 연구’에 대한 토론문

안의정
(연세대학교)

앞선 선생님의 발표는 교육용 과학 용어 선정을 위해 실제적인 작업을 수행하신 것으로, 구체적인 목록 비교 방법을 수행하셨으며, 분석 범위를 최대한 좁혀 정밀하게 수행된 작업으로 실용도가 높은 연구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교재 편찬에 관여하는 연구자나 저와 같이 사전 편찬 작업을 실제 진행하고 있는 편찬자에게 전문어의 개념과 판별 근거에 대한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선생님의 발표를 들으면서 내용 중 미처 이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몇 가지 질문과 간단한 제언을 드리는 것으로 토론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첫째 전체적으로 계량 작업에 대한 정보가 조금 더 기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축하신 3개의 하위 말뭉치의 크기가 어떻게 되는지, 빈도 추출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기술해 주시면 향후 비슷한 작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계량 분석의 결과를 보인 <표2>와 같은 경우도 7차 교육과정 말뭉치의 크기로 인해 직접 비교가 힘든 면이 있습니다. 빈도수 비교를 정확히 할 수 있도록 정규화하여 상대빈도로 제시해 주신다면 결과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둘째 발표에서도 문제점을 언급하고 있지만 과학 용어의 기준으로 삼은 준거 자료들의 차이를 어떻게 극복하는 것이 좋을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목록에서 보이는 “그림, 정리, 상태..”와 같은 일반어들을 전문어로 분류하신 것도 준거 자료들에 의한 것인지요. <표준국어대사전>의 경우 친밀성(familiarity)을 제1 기준으로 삼고 있으나 이러한 기준은 객관성의 보완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셋째 본 발표의 결과를 토대로 과학용어의 등급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 이에 본 발표는 어떤 부분에 기여를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이 때 빈도만 고려해서 되는지, 전체 텍스트에서의 사용률을 고려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연구에서 자문가 자문 등과 같은 질적 분석으로 계량 자료를 보완하실 계획이신지, 어떤 방식에 의해 이 작업을 수행하실 것인지에 대한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문으로 구성하는 영어사전

2013.07

* 본 문서는 Daum체로 작성되었습니다.
Daum체 [다운받기](#)

1. 영한사전에서 어떤 정보를 주어야 할까



- 대다수의 사전 사용자들은 [[book - 책, 예약하다]] 정도의 정보만을 필요로 함
- 스마트폰 화면은 한계가 있음
- 웹사전 다수는 종이사전을 웹으로 옮긴 것에 불과
- 종이사전의 뜻풀이나 대역어 제시는 전반적으로 장황

➔ 과연 사전에서 뜻풀이가 핵심인가

뜻풀이로 맥락을 드러내느니 예문을 다수 제시하는게 더 직관적이지 않은가

➔ 웹사전 십년 만들면서 가장 많이 들어왔던 원성이

'예문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 뭔가 매체(웹)와 내용(종이사전)의 불일치가 존재

기표는 기의를 놓치고, 뜻풀이는 맥락을 놓치고, 웹은 종이사전을 놓치고...

➔➔ 사전의 중심에 뜻풀이 보다는 예문을 두어야겠다!

그나저나 예문을 어떻게 묶어서(clustering) 보여준다...

2. 예문 병렬말뭉치를 자체적으로 확보

찾기

☒ 전체
 ☐ 번역없는예문
 ☐ 원문없는예문

아이디로 찾기

찾기

영문으로 찾기

찾기

문장ID	원문	번역	출처	난이도	병음파일
exko10191744	China mentioned the issue in 2006 without directly criticizing Japan, but this time, Beijing referred to Tokyo on the matter.	중국은 2006년 회의 때 위안부 문제를 거론하면서도 일본을 비칭칭하는 직접적인 표현은 결함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직접 일본을 거론했다.	월	검역 예	H
exko10191743	Seven countries criticized Japan over the sex slaves in the meeting, up from five in 2006.	이번 회의에서 위안부 문제와 관련된 일본을 비난한 국가는 7개국으로 2006년(5개국)보다 늘었다.	월	검역 예	H
exko10191742	Each member state is subject to review every four years, and the latest meeting was the second on Japan after one in 2006.	각 회원국은 4년에 한 번 검토 검토를 받는다. 일본을 대상으로 한 UPR 회의는 2006년에 이미 두 번째다.	월	검역 예	H
exko10191741	Introduced in 2005,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meeting reviews the human rights situations of U.N. member nations and makes recommendations on improvements.	2005년 도입된 UPR는 유엔 회원국의 인권상황을 회원국 이 서로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권고하는 제도다.	월	검역 예	H
exko10191740	Japanese delegates said their government was aware of the issue, reiterating Tokyo's claim that compensation for the victims was covered by the 1951 San Francisco Peace Treaty and other agreements with relevant countries.	일본 대표단은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있다고 피해자들에게 대입 보상 금액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및 다른 국과의 조약으로 해결했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월	검역 예	H
exko10191739	The delegates used the term 'sex slaves' instead of 'comfort women' coined by Japan to refer to the sex slaves, emphasizing the forced nature of Japan's mobilization of the women.	대표단은 위안부(comfort women)라는 표현 대신 성노예라는 표현으로 일본의 위안부 동원 강제성을 부각시켰다.	월	검역 예	H
exko10191738	Dutch representatives said Japanese textbooks no longer mention the sexual slavery, asking what Japan is doing to teach its future generations about the issue.	네덜란드는 네 교과서에 일본군 위안부(comfort women)라는 표현이 더는 언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일본의 다음 세대가 이 문제에 관해 알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 물었다.	월	검역 예	H

3

3. 대역어쌍의 확보 (1)

He said, "I have absolutely no fears or anxieties. It's an exciting time for me and I just look forward to the experience."

그는

"나는 전혀 두렵거나 걱정스럽지 않아요. 나에게 흥미진진한 시간이며 나는 그저 그 실험을 학습고대하고 있을 뿐이에요."라고 말했다.

- 옳은 쌍 [실선]
 - [[he-그는]]
 - [[look forward to-학습고대하고]]
- 그른 쌍 [점선]
 - [[no-나는]]
 - [[exciting-실험을]]
- 수십만개의 문장에서 대역어 쌍을 만든다음 빈도를 세면 옳은 쌍이 많이 나와 걸러질 것이라는 가정

4

4. 대역어쌍의 확보 (2)



두산동아

1 대답, 회답, 답신 || 2 해답 || 3 상당[대응]하는 사람[것] || 4 응답, 반응; 응보, 보복 || 5 해결책, 대처법 || 6 해명; 변명 || 7【법】|| a 답변 || b 회답 || 8【음악】 응답 악구 || 1 대답[회답]하다 || 2 응하다, 응답하다 || 3 책임을 지다 || 4 보증하다 || 5 이취운 대로 도움이 되다, 쓸 만하다, 들어맞다 || 6 일치[합치]하다 || 1 답[대답]하다 || 2 응하다, 받다 || 3 응수하다, 반론하다;...으로 보답하다 || 4 들어주다, ...에 응하다; 부합하다 || 5 풀다 || 6 효과가 있다, 당해내다 || 7 완수하다; 갚다 || 8 대가를 치르다

금성 뉴에이스

【명사】 || 1. 대답, 회답, 응답, 답장 || 2. 정해, 정답; 해결; 해답 || 3. 보복 || 4. 변명, 해명. || 5. 회답, 답변; 응답. || 6. 상응하는 사람. 【자동사】 || 1. 대답하다, 대답을 하다, 해답을 내다, 밀대꾸하다, 항변하다 || 2. 응하다, 반응을 나타내다 || 3. for A 책임을 지다; 해명하다; 보상하다, 벌충하다 || 4. to A || 1. 일치하다, 딱 들어맞다, 합치하다 || 2. ...의 지휘하에 있다, ...의 명령에 따른다. || 5. 쓰이다, 쓸모있다, 쓸 되어 가다, 성공하다 || 6. 보증하다, 책임지다 【타동사】 || 1. 대답하다, 답하다; 답하다; 답하다, 대꾸하다, 반론하다 || 2. 응하다, 응답하다, 반응하다; 따르다 || 3. 풀다, ...의 답을 내다 || 4. 쓰이다, 쓸모 있다. || 5. 다하다, 갚다; ...의 보상을 하다 || 6. ...에 합치하다 || 7. 응하다, 들어주다, 보답하다

- 하지만 시간이 없으니 여러 영한 사전들에 중복된 대역어들을 뽑도록 하자
(원래 사전 만들기는 온고지신이다!)
- 그리고 문제가 있는 경우는 이후 검토해서 고쳐보도록 한다

5

5. 예문 빈도순으로 정리



sound (ekw000156269)

단어: 소리, 울린다, 음, 소리를 낸다, 들린다

한국어: 소리 (명사)

한국어: 소리 (명사)

한국어: 소리 (명사)

한국어: 소리 (명사)

한국어: 소리 (명사)

한국어: 소리 (명사)

한국어: 소리 (명사)

한국어: 소리 (명사)

한국어: 소리 (명사)

한국어: 소리 (명사)

한국어: 소리 (명사)

한국어: 소리 (명사)

한국어: 소리 (명사)

한국어: 소리 (명사)

한국어: 소리 (명사)

한국어: 소리 (명사)

한국어: 소리 (명사)

한국어: 소리 (명사)

한국어: 소리 (명사)

한국어: 소리 (명사)

한국어: 소리 (명사)

한국어: 소리 (명사)

한국어: 소리 (명사)

한국어: 소리 (명사)

한국어: 소리 (명사)

한국어: 소리 (명사)

한국어: 소리 (명사)

한국어: 소리 (명사)

한국어: 소리 (명사)

한국어: 소리 (명사)

한국어: 소리 (명사)

한국어: 소리 (명사)

한국어: 소리 (명사)

한국어: 소리 (명사)

한국어: 소리 (명사)

한국어: 소리 (명사)

한국어: 소리 (명사)

한국어: 소리 (명사)

- 적절한 대역어쌍을 예문에 집어넣고
- 그 빈도순을 의미번호로 갈음하자

6

6. 적용 결과

1. 소리

To our ears this **sounds** like a distinct crack or bang. ㄱ
우리 귀에 이것은 딱 콧웃 무언가가 부딪히는 **소리**는 달 하는 **소리**로 들린다.

Although all fish can hear, not all can make **sounds**. ㄱ
비록 모든 물고기가 **소리**들을 들을 수 있지만, 모두가 **소리**들을 낼 수는 없습니다.

Yes, it is that weird **sound** coming from the stadium. ㄱ
있다. 그것은 경기장에서 나오는 기이한 **소리**이다.

The **sound** has practically silenced everything else in the soccer stadium. ㄱ
그 **소리**는 축구 경기장에서 모든 것을 실제로 침묵시켰다.

When he sat down, it made a really loud fart **sound**! ㄱ
이해가 없었을 때 정말로 큰 방귀 **소리**가 났지!

여론더보기

2. 들리다

2nd Statement: The opposition makes science **sound** like a threat to mankind. ㄱ
그 반대는 과학을 인류에 대한 위협처럼 **들리게** 한다.

The swelling had gone away a week later, but she still **sounded** strange. ㄱ
일주일 뒤에 부기가 사라졌지만 그녀는 여전히 이상하게 **들었다**.

It **sounds** very strange, but some people do experience this weird situation. ㄱ
그것은 매우 이상하게 **들리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기이한 상황을 (실제로) 겪는다.

Some people say she **sounds** like she has a Swedish or British accent. ㄱ
어떤 사람들은 그녀가 스웨덴 혹은 영국 억양을 쓰고 있는 것처럼 **들린다고** 말한다.

여론더보기

3. 음

Torturing Sea Mammals with **Sound** ㄱ
바다 동물들에게 심한 고통을 주는 **소리**

When they hear the **sound** of angry bees coming the elephants flee from the **sound** and make a low rumbling **sound** to warn others. ㄱ
성난 벌레들이 코끼리에게 다가오는 소리가 들리면, 코끼리들은 달아나며 저주파의 경고음을 냅니다.

Over the past 50 years, **sound** intensity underwater has gone up 20 decibels on average. ㄱ
지난 50년 이상 동안, 바다 밑 **소리** 강도는 평균 20 데시벨이 올라갔습니다.

여론더보기

4. 소리를 내다

It made a beautiful **sound** whenever I moved my arm. ㄱ
내가 팔을 움직일 때마다 아름다운 **소리를** 냈었지.

Sea animals such as whales and dolphins **also** make unique **sounds**. ㄱ
고래와 돌고래 같은 바다 동물들도 독특한 **소리를** 냅니다.

여론더보기

5. 건전한

Have you ever heard of the saying: "A **sound** mind in a **sound** body"? ㄱ
"건강한 신체에 건전한 정신이 깃든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세요?

I hope all of them are safe and **sound**. ㄱ
저는 그들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여론더보기

6. 사운드

7. 들리다

7

7. before and after

sound 1 ***

미 [saund] 영 [sau]

문법정보 [명사], 자동사

【의사】

- [종] 소리, 음: 리: (기기(機器)의 소리)는 no
- [종] [가] 잡음: the sounds of a L. 만인 하인 지리이
- [종] [가] 잡음: pronounce a soul
- [종] [가] 잡음: The sentence na

【자동사】

- [종] [가] 잡음: The sentence na
- [종] [가] 잡음: The sentence na
- [종] [가] 잡음: The sentence na
- [종] [가] 잡음: The sentence na

sound 2 ***

미 [saund] 영 [sau]

문법정보 [명사], 자동사

【의사】

- [종] [가] 잡음: The sentence na
- [종] [가] 잡음: The sentence na
- [종] [가] 잡음: The sentence na
- [종] [가] 잡음: The sentence na

【자동사】

- [종] [가] 잡음: The sentence na
- [종] [가] 잡음: The sentence na
- [종] [가] 잡음: The sentence na
- [종] [가] 잡음: The sentence na

VS

sound 1 ***

미 [saund] 영 [sau]

문법정보 [명사], 자동사

【의사】

- [종] [가] 잡음: The sentence na
- [종] [가] 잡음: The sentence na
- [종] [가] 잡음: The sentence na
- [종] [가] 잡음: The sentence na

【자동사】

- [종] [가] 잡음: The sentence na
- [종] [가] 잡음: The sentence na
- [종] [가] 잡음: The sentence na
- [종] [가] 잡음: The sentence na

sound 2 ***

미 [saund] 영 [sau]

문법정보 [명사], 자동사

【의사】

- [종] [가] 잡음: The sentence na
- [종] [가] 잡음: The sentence na
- [종] [가] 잡음: The sentence na
- [종] [가] 잡음: The sentence na

【자동사】

- [종] [가] 잡음: The sentence na
- [종] [가] 잡음: The sentence na
- [종] [가] 잡음: The sentence na
- [종] [가] 잡음: The sentence na

8

8. 사전인가?

DOLM 영어사전
apple
검색

주요뜻 > ① 사과 ② 애플 ③ 사과나무 ④ 뉴욕

ap'ple ★★★

미 [æpəl] 영 [æpl]

문법정보 [명사]

1. 애플	512건
2. 사과	189건
3. 뉴욕	15건
4. 사과나무	4건
해석이 있는 예문	
해석이 없는 예문	

DOLM 영어사전
fuck
검색

주요뜻 > ① 도대체 ② 망치다 ③ 닥쳐 ④ 완전히 ⑤ 엇

fuck ★★★

미 [fʌk] 영 [fʌk]

문법정보 [타동사], 자동사 ...

1. 도대체	9건
2. 망치다	7건
3. 닥쳐	5건
4. 완전히	4건
5. 엇	3건
6. 벌어먹을	3건
7. 너무	3건
8. 무슨	2건
9. 뉘저러	1건
해석이 있는 예문	
해석이 없는 예문	

9



登録情報

単行本: 1117ページ

出版社: 羊土社 (2007/10/1)

ISBN-10: 4758108358

ISBN-13: 978-4758108355

発売日: 2007/10/1

商品パッケージの寸法: 18 x 13.4 x 4.6 cm

9. 선행연구(?)

*** apply** ④ 適用する／あてはまる 用例数 4,506

applied	適用される／～を適用した	3,419
apply	～を適用する／あてはまる	830
applying	～を適用する	424
applies	～を適用する	133

(applied to) の用例が多い. 他動詞として使われることが多いが, 自動詞の用例もある.

◆類義語: use, employ, utilize

■ **applied + [前]**

① applied to ~	～に適用される	1,639
• ... was applied to ~	～が, ～に適用された	296
• when applied to ~	～に適用されたとき	97
• successfully applied to: ~	～にうまく適用される	32
② applied in ~	～において適用される	129
③ applied for ~	～に対して適用される	60
④ applied at ~	～において適用される	51

① This method was applied to the identification of substrates for the protein kinase Akt, which specifically phosphorylates the RXRXXS-T motif. (J Biol Chem. 2002 277:22115)

② この方法が, ~の関定に適用された

③ Opioid peptides produce gastrointestinal inhibition and increase feeding when applied to the brainstem. (J Neurosci. 2002 22:2888)

10

10. 개선안



- 말뭉치의 균형성 확보
- 의미 중의성 해소에 한계 (ex [[dream-꿈], [[し ゃ かい-사회]])
- 단일어 사전에서는 다른 방법론 필요

11



감사합니다

‘예문으로 구성하는 영어사전’에 대한 토론문

배연경

(국제영어대학원대학교)

현재 Daum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영어사전의 예문 보기 기능의 특성 및 개발 근거에 대한 정철 선생님의 발표에 감사드립니다. 외국어 학습자들이 사전을 사용할 때 뜻풀이와 더불어 예문이 가장 빈번히 참조되고 있음은 여러 사용자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된 사실입니다. 더불어 학습자는 의미 정보 외에도 목표 단어의 연어, 결합 규칙 및 표현상의 제약에 대한 중요한 정보들을 대부분 예문을 통해 인지한다는 점 또한 기존 사용자 연구들을 통해 분명히 밝혀졌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전 표제항의 구조를 예문 중심으로 과감히 개편한 Daum 영어사전은 더욱 사용자 친화적인 사전 개발을 위한 중요한 시도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본 토론자는 이러한 대의에 대한 동감을 바탕으로, 발표상으로 확인되지 않은, 개인적으로 궁금한 점을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여쭙고 확인하는 것으로 토론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1. 제공되고 있는 예문 정보의 정확성에 대한 것입니다.

목표 단어의 의미와 사용을 효과적으로 드러내어 주는 ‘좋은 예문’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상세한 의미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동시에 어휘 결합 관계, 사용상의 제약 등이 압축적으로 드러나는 전형적인 예문이 통상적으로 좋은 예문으로 일컬어지지만, 그 바탕에는 당연히 용례의 정확성이 기본이 됩니다. 특히 국내 웹 영어사전의 광범위한 사용자층을 염두에 둘 때, 오류 없는 용례 정보 제공은 지극히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Daum의 예문 정보는 현재로서는 의미 분류상의, 그리고 번역상의 오류가 다소 빈번한 듯합니다. 우선 슬라이드에서 소개해 주신 sound의 경우만 보더라도 몇 가지 아쉬운 부분이 눈에 띕니다. 예를 들어 의미 분류 1 ‘소리’ 아래의 예문 중 첫째 것(To our ears this sounds like a distinct crack or bang. / 우리 귀에 이것은 먼 곳의 무언가가 부딪히는 소리는 탕 하는 소리로 들린다.)은 번역 오류가 두드러집니다. 둘째 것(Although all fish can hear, not all can make sounds. / 비록 모든 물고기가 소리를 들을 수 있지만 모두가 소리를 낼 수는 없습니다.)은 병렬 말뭉치로부터 표제어의 의미를 분류하는 과정에서 영어 원문의 다른 단어의 번역이 목표 표제어의 대역으로 잘못 분류된 경우로 보입니다. 즉 ‘hear-소리를 듣다’가 sound의 표제항의 예문으로 제시된 경우로 보입니다. 한편 같은 용례의 주절인 not all can make sounds 부분은 의미 분류 4 ‘소리를 내다’로 분류되어야 할 듯합니다. 의미 분류 2 ‘들리다’의 둘째 예문(The swelling had gone away a week later, but she still sounded strange. / 일주일 뒤에 부기가 사라졌지만 그녀는 여전히 이상하게 들렸다.)은 지극히 부자연스러운 한국어 번역으로 인해 그 의미가 부적절하게 ‘들리다’로 분류된 경우로 보입니다.

이렇듯 현재 제공되는 예문 정보에 산재한 의미 분류 및 번역상의 오류들은 지금 어떤 방식으로 수정·보완이 되고 있으며, 향후 어떠한 방식으로 좀 더 체계적인 보완이 이뤄질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2. 둘째로, 현재 실행되고 있는 ‘대역어 쌍에 의거한 의미 분류’ 방식이 목표 단어의 의미를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분류해 보여주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앞서 제기하신 ‘dream-꿈’의 문제는 특정 대역어의 ‘다의성’을 어떻게 구분하여 기술할 것인가의 문제로서, 이 부분에 대한 추후 보완의 필요성에 대해 크게 공감하였습니다. 한편 동시에 그 반대의 경우, 즉 대역어의 차이가 의미의 차이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 역시 사전 기술상 고려해야 할 중요한 측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례로 increase의 경우, 그 대역어는 ‘증가하다/증가되다’ ‘인상하다/인상되다’ ‘늘다/늘리다’ ‘확대되다/확대하다’ 및 ‘증가/인상’ 등 여러 가지이지만, 그 점이 increase를 ‘다의어’로 볼 근거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재 서비스되고 있는 <예문으로 구성하는 영어사전>에서는 increase의 ‘의미’가 1. 증가하다, 2. 늘리다, 3. 인상되다; 오르다, 4. 확대하다, 5. 상승하다, 6. 향상시키다... 등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대역어의 차이에 근거를 두었기에 실제 의미상의 구분 기준은 다소 모호해 보입니다. (예를 들어 예문 ... temperature is increasing ...은 ‘상승하다’가 아닌 ‘인상되다; 오르다’라는 의미 항목에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점은 단어의 의미 분류를 대역어 쌍이라는 단일 기준에 의거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여러 문제들 중 하나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보완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상 크게 두 가지 질문을 드렸습시다만, 이러한 의문이 실제 영한 병렬 말뭉치를 웹 사전 개발에 활용하는 과정에 대한 저의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조심스럽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있었다면 아무쪼록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흥미로운 발표에 감사드립니다.

신문사설에서 나타나는 어휘 사용의 증감도 분석

김혜영, 강범모
(고려대학교)

1. 서론

특정 시간 동안에 특정 대상이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시간에 따라 일정하게 측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소비자 물가지수, 국내총생산, 강수량, 기온 등은 연도별, 계절별 등 시간의 흐름에 따라 순서대로 측정하고 이를 통해서 예측할 수 있다. 이처럼 시간에 따라 관측된 자료를 시계열(time series)이라 하며 이러한 연구는 다양한 분야에서 시행되고 있다. 본 절에서는 신문 사설에서 추출한 일반명사와 고유명사가 12년 동안 어떠한 단어 빈도 변화를 보이는지를 시계열 분석을 통해 살펴보려 한다. 이를 위해서 R 패키지의 만-켄달 분석(Mann-Kendall Analysis)을 활용한다(Abdi 2007, Gries 2009).

시계열은 시간에 따라 변동성이 커지면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향이 있을 때, 함수를 이용하여 시계열을 선형화한다(이궁희·이한식 2010). 이는 주로 로그함수를 이용하여, 큰 값이나 큰 변동을 작은 값으로 만들어 주어 선형적 분석을 하도록 해준다. 또한 이러한 로그 변환은 탄력성 있는 변동을 평활화해주는 효과가 있다.

증감도 분석은 이러한 시계열 자료의 단조적인 추세에 따른 지속적인 증가와 감소 현상을 연구하기 위한 통계 기법으로, 시계열 수량 자료의 크기 순서와 시간 순서에 따라 1부터 -1까지의 값으로 선형의 추세선 기울기를 구한다. 추출 결과 타우 지수(tau value)가 1에 가까우면 증가하는 추세를, -1에 가까우면 감소하는 추세를, 그리고 0에 가까우면 추세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이 때 p값(p value)이 0.05보다 작을 때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추세가 유의미하다고 판별할 수 있다. 이는 비모수 통계 기법으로 광범위한 관찰 자료에 유용하게 연구되고, (수량의 순서를 고려하여) 서열 척도로 처리하여 통시 자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누락된 시기가 있더라도 처리가 가능하다. 또한 수치를 평활하여 일차 회기선(추세선)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단조적인 추세(지속적인 증가 혹은 지속적인 감소)를 나타낸다는 특징이 있다. 이로 인해 과장된 기울기를 피할 수 있고, 특정 시기에 지나치게 크거나 작은 값이 출현하더라도 이에 대한 민감도가 적은 편이다. R 패키지에서 이를 위한 만-켄달 분석은 Kendall 패키지를 설치하여 사용한다(홍정하 2012).

빈도 자료를 이용하여 언어 사용의 시계열 연구를 진행할 때는 충분한 시간동안에 규칙적으로 구분된 시기를 대상으로 연구하고자 하는 어휘와 빈도의 변화에 대해 변화량을 기준으로 분석할 수 있다. 과거에는 특정 시간에서 관찰되는 산술적인 수치나 차이를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데 그쳤다면(Nevalainen 2000), 최근에는 시기를 세분화하고 통계 기법

을 활용하여 추세를 논의한다. 강범모·김홍규(2011)는 2000년대 10년 동안의 신문에서 추출된 고유명사와 일반명사를 대상으로 사용이 증가하거나 감소한 명사를 분석하였다. 고빈도 명사 만개를 살펴본 결과, 증가 성향을 보이는 명사는 약 2000개, 감소 성향을 보이는 명사는 약 1700여개로,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는 명사에는 ‘오바마, 대운하, 김연아, 친노, 플루, 블로그’ 등이, 감소하는 고유명사는 ‘아태재단, 파월, 테러, 의문사’ 등이 있었다. 이러한 신문에서의 어휘 빈도의 증감을 통해 우리 사회가 문화, 생활, 교육, 환경, 노령화와 관련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김혜영 외(2012)에서는 문화 현상과 관련해서 2000년대 10년 동안 신문에 등장한 ‘트렌드’와 이의 공기어를 추출하여, 공기어가 대상어에 대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명사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2000년대의 문화 트렌드는 ‘남성’이 ‘미백, 피부, 관리법’과 관련된 단어들과 관련성이 높아지고, ‘외식’은 ‘된장찌개, 갈비’처럼 패스트푸드와 아닌 음식과의 관련성도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감성’은 ‘여가, 여행, 취미, 주말, 파티’ 등과 상관도가 높게 나타났다.

홍정하(2012)는 지금까지 통시적으로 언어 자료를 연구할 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세종코퍼스에서 20년 동안 신문텍스트 325만 어절에서 출현한 접속부사를 대상으로 만-켄달 검증을 연구하였다. ‘하지만’은 높은 증가 추세를, ‘그러니까’는 감소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리고, 그러므로, 따라서’는 비교적 높은 감소 추세를 보이는 것을 입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신문 사설에 12년 동안 등장한 일반명사와 고유명사를 대상으로 꾸준히 증가하거나 감소했던 단어를 추출하여 논의한다. 신문 사설에서 다루는 화제는 사회적인 파급력이 있는 사건이나 쟁점에 대한 것이므로 직설적이면서도 공식적인 성향을 가진다. 최근 장기간의 통시적인 자료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뽑아내기 위해서 통계적으로 처리하고 해석하는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는데, 이러한 경향을 신문 사설에 등장한 명사의 사용이 어떠한지 파악하는 데에 적용해보고자 한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는 [물결 21] 코퍼스를 주요 연구 대상으로 한다. [물결 21] 코퍼스는 대규모 신문 언어 자료를 통한 한국의 언어, 사회, 문화적 특성과 그 변화를 연구하기 위해서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에서 수행 중인 [물결 21] 사업에서 구축된 신문 텍스트이다. 이는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신문과 협약을 맺어서 2000년 이후의 전체 기사문을 제공받아 코퍼스로 구축한 것이다. 신문 기사문을 언어처리 및 주제별로 기사를 표준화하여 가공하는 작업을 거쳐서, 이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통계 기법을 통해 사회문화적 변동 추이와 방향을 모형화하고 있다(강범모·김홍규 2011)

[물결 21] 코퍼스는 현재 약 5억 어절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에서 본 연구에서 다루는 신문 사설은 기사문 수는 약 4만 천여 개, 어절 수는 약 천백만 어절에 이른다. 또한

신문 사설의 기사문 수는 전체 기사문 수의 약 1.8%를 차지하고, 어절 수는 약 2.1%를 차지하고 있다. 해마다 약 3000개의 사설을 신문사마다 생산하고 신문사 중에서는 중앙일보의 신문 사설이 제일 많다. 연구 대상인 신문 사설의 각 연도별 구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신문사별 2000~2011년의 신문 사설 어절 수

연도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신문
2000	171,336	59,552	204,128	191,446
2001	171,282	177,656	212,839	129,460
2002	208,515	192,240	212,339	206,441
2003	214,146	206,440	215,213	186,528
2004	199,007	218,445	224,208	202,327
2005	209,643	226,624	217,333	190,688
2006	218,600	240,354	214,920	227,016
2007	228,449	240,596	217,562	252,047
2008	234,518	259,520	222,817	248,567
2009	250,841	273,283	302,096	254,246
2010	257,948	265,422	287,047	235,159
2011	250,861	258,397	273,964	268,967
합계	2,615,146	2,618,529	2,804,466	2,592,892

우리는 [물결 21] 코퍼스에서 신문 사설에서 드러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고유, 일반) 명사를 추출하여 이를 대상으로 12년 동안 신문 사설에서의 어휘적, 통시적 특징을 살펴볼 것이다.

3. 신문사설에서의 명사의 추세

명사의 빈도 추세 연구는 매년 단어의 (상대화 된) 빈도를 비교하는 방법으로 이뤄진다 (강범모·김홍규 2011). 12년 동안 점차 높은 빈도를 보이게 되는 단어는 2000년대 이후에 우리 사회에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성향을 반영한 것이고, 반면,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단어는 우리 사회에서 사람들의 관심에서 점차 멀어진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본 절에서는 일반명사와 고유명사 중에서 상위 3천여 개의 목록을 대상으로 이러한 명사 사용의 증가와 감소를 분석하였다. 일반명사 중에서 이 중 의미 있게 증가하는 목록은 265개, 감소하는 일반명사 321개가 추출되었고, 고유명사는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목록이 66개(이 중 일음절 명사 ‘곽, 한, 중, 박, 유, 이, 송’을 제외하면 59개) 추출되었다.¹⁾

빈도의 증가 순으로 상위 순위를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1) 의미있게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기준은 $p < 0.05$ 에 해당하는 만-켄달 값(tau 지수) 0.5 이상의 증가와 -0.5 이하의 감소값을 의미한다.

[표 2] 12년 동안 빈도가 증가한 고유명사

	인명	지명	국가명	기관명	이슈
1	박연차	전남	영국	민노당	FTA
2	이명박	경남	유럽	삼성전자	자유무역협정
3	오바마	경기	대한민국	농협	
4	손학규	서울	인도	서울시교육청	
5	버락	경북	이란	민노총	
6	박근혜	서울시	독도	삼성	
7	김일성	세종시	중국	EU	
8		충남		론스타	
9		강원도		외환은행	
10		개성		쌍용차	
11		제주		OECD	
12		연평도		유럽연합	
13		제주도		전교조	
14				한국은행	

신문 사설에서 사용 정도가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고유명사 중에서, 인명의 경우 모두 정치인으로, 이명박이 45배로(28 ~ 908) 나타나 가장 관심의 정도가 급격히 상승한 인물로 나타났다. 지명은 주로 개발이나 경제와 관련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지역(‘세종시’)과 정치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된 지역(‘연평도’)이 등장하였다. 국가명의 경우, 신문 사설에서 ‘한국’이란 표현보다는 ‘대한민국’이란 표현이 점차 많이 쓰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핵과 관련된 이슈와 관련된 국가명(‘이란, 인도’)과 ‘독도’, 그리고 경제적 이슈와 관련된 국가들(‘영국, 유럽’)이 신문 사설에서 조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 ‘미국’이나 ‘일본’처럼 항상 많은 교류를 가지는 국가명보다는 특정 해에 더 많이 언급된 국가명들이 아무래도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나기 때문에 한정적인 국가명이 추출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기관명으로는 정당은 ‘민노당’이, 노조와 관련해서 ‘쌍용차’와 ‘민노총’이, 교육과 관련해서 ‘서울시교육청’이, 금융과 관련해서 이슈가 된 ‘농협, 외환은행, 한국은행’이 급격히 많은 관심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업명인 삼성전자와 삼성은 이미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도 2000년대에 꾸준히 신문 사설에서 언급이 많이 되었다는 점은 흥미롭다. 그밖에 지난 2000년대에 이슈가 된 ‘박연차, 자유무역협정, 론스타, 유럽연합’이 사건이 발생한 후부터 지금까지도 자주 신문 사설에서 거론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12년 동안 신문 사설에서의 사용이 점차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고유명사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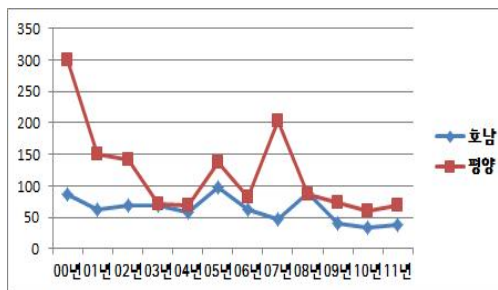
[표 3] 12년 동안 빈도가 감소한 고유명사

	인명	지명	국가명	기관명	이슈
1	부시	호남	남북한	자민련	경의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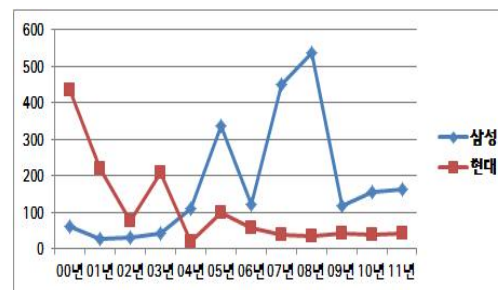
2	김대중	평양		현대	
3	이회창				
4	조지				
5	김영삼				

대체로 전직 대통령에 대한 관심은 점차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김대중, 김영삼, 부시’). 흥미로운 점은 지명의 경우 남한은 ‘호남’이 북한은 ‘평양’이 관심의 대상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앞에서 기관명 중 ‘삼성’은 빈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 반면, ‘현대’의 경우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 점도 흥미롭다. 이들의 빈도 변화는 다음과 같다.

[그림 1] 지명의 빈도 변화



[그림 2] ‘삼성’과 ‘현대’의 빈도 변화



[표 4]는 일반명사의 증감 분석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일반명사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 일반명사를 설명한다.²⁾

[표 4] 정치/경제/사회/과학/교육과 관련하여 사용이 증가한 일반명사

	정치	경제	사회	과학	교육
1	좌파	총생산	관사	과학	학업
2	소통	글로벌	목숨	과학적	교육청
3	진보	기부	압수	원자력	교과부
4	비준	저소득층	복지	벌금	학생
5	의회	업체	경찰	포털	체육
6	소속	자원	점거	기술	로스쿨
7	포퓰리즘	직원	저출산	자동차	학년
8	선진화	고용	수색	경찰관	보육
9	비핵화	수당	유죄	원전	교사
10	의결	서비스	감사	인터넷	등록금
11	조례	근무	방해	통신	사교육
12	원내	월급	형사	우주	초등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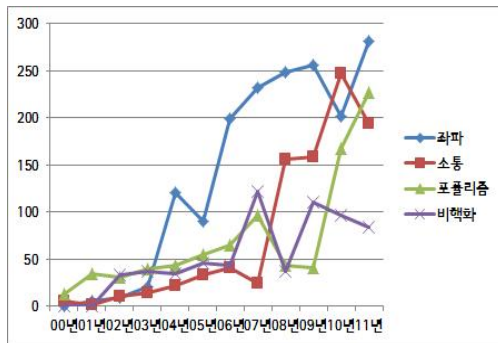
2) 주제 분류는 신문 사설의 주제에 입각하여 본 소절을 위해서 단어의 사용을 고려하여 분류하였다. 예를 들어 ‘동영상’의 경우, IT분야로 ‘과학’으로 분류할 수도 있지만, 신문 사설에서 다루는 ‘동영상’과 관련된 언급이 사회적인 문제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사회’로 분류하였다. (예시: “김 의원이 국회에서 최루탄을 터뜨리던 상황은 **동영상** 기록으로 남아 있어 혐의를 입증하는 게 어려운 일도 아니다.”). 또한 연구의 편의를 위해서 분류 시 중복을 허용하지 않았다.

13	발효	회사	미국산		학교
14	관제	서민	징계		급식
15	야권	자산	협박		평가제
16	도지사	정규직	조합원		중학교
17	재협상	감세	동영상		입학
18	수정안	퇴직	법원		외고
19	민주주의	매출	징역		반값
20	진영	보수	쇠고기		교육
21	저작권	물량	수신료		학부모
22	대운하	대기업	고령화		교육감
23	후보자	급여	광우병		학습
24	참모	부자	선고		
25	내정자	연봉			
26		중소기업			
27		채용			
28		영업			
29		저축			
30		지원금			
31		시장			
32		성장			
33		석유			
34		회원국			
35		제조업			
36		근로			
37		교역			
38		예산			
39		납품			
40		선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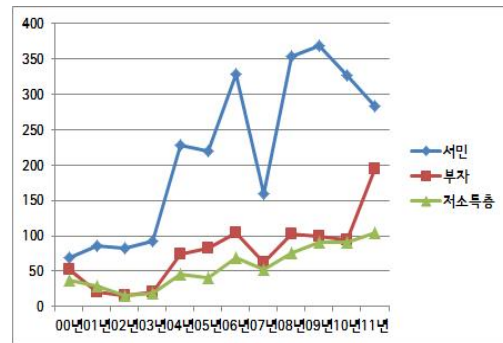
정치와 관련한 단어들은 ‘좌파, 포퓰리즘, 비핵화, 저작권, 대운하’ 등 2000년대의 정치적 이슈와 관련된 것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위에 등장한 ‘소통’이란 단어는 ‘청와대와 국회 사이의 소통’, ‘세대 간 계층 간 소통’, ‘여·야 의원들 간의 소통’, ‘문화 소통’, ‘국민과 소통’, ‘젊은 세대와의 소통’, ‘당내 소통’, ‘중국과의 소통’, ‘국제사회와의 소통’, ‘대통령과 국민의 소통’, ‘양방향 소통’ 등 계층, 집단, 사회 등 다양한 부류와 함께 쓰였으며, ‘소통’이란 단어를 통해 특정 대상과의 화합을 강조하는 내용이 2000년대 사설에는 꾸준히 많이 등장함을 알 수 있었다. 경제와 관련한 측면에서는 ‘글로벌, 기부, 저소득층, 정규직, 감세’ 등 반서민(‘부자 기부’, ‘감세 혜택’ 등)이나 친서민(‘저소득층에게 정규직 제공’ 등) 경제 정책과 관련된 단어들도 보이지만, ‘고용, 수당, 근무, 월급, 연봉, 보수, 급여, 채용, 근로, 보수, 채용’ 등 국민의 고용과 관련해서 신문 사설에서의 관심 정도가 꾸준히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서민, 부자, 저소득층’이나 ‘자산, 감세, 저축’과 관련한 명사의 사용 증가는 2000년대에 양극화에 대한 대책과 관련된 이슈가 많이 언급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밖에 경제 산업적인 측면과 관련해서 ‘대기업, 중소

기업, 제조업'이나 '총생산, 매출, 물량, 석유, 납품' 등과 같은 단어의 사용도 눈에 띄인다. 사회 부분에서 단어의 사용이 증가한 명사는 2000년대의 사회 상황을 반영하는 단어들이 주를 이룬다. '복지, 수신료, 동영상, 저출산'이나 이명박 정부의 화두였던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등이 있다. 또한 우리 사회의 항상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교육 측면에서 사용이 증가한 명사로 '로스쿨, 등록금, 사교육, 급식, 평가제, 외고, 반값, 교육감' 등이 있었다. 각 주제별로 관련한 빈도 변화 정도는 다음 그림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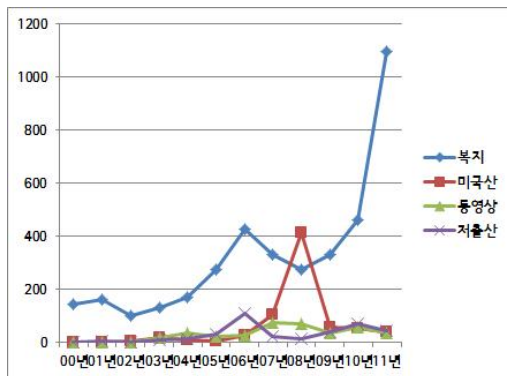
[그림 3] 정치와 관련 빈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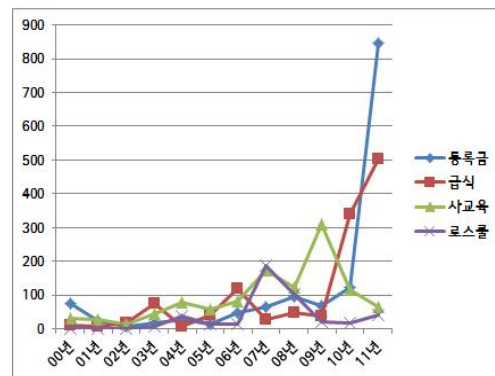
[그림 4] 경제와 관련한 빈도 변화



[그림 5] 사회와 관련 빈도 변화



[그림 6] 교육과 관련한 빈도 변화



반면, 일반명사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 목록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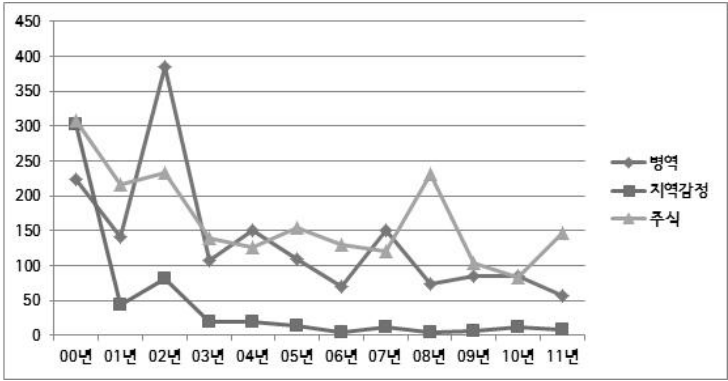
[표 5] 정치/경제/사회/과학/교육과 관련하여 사용이 감소한 일반명사

	정치	경제	사회	교육
1	집권	복권	언론사	과외
2	냉전	주식	교통	
3	정치관	증권	의문사	
4	정국	재계	단속	
5	유착	경협	병역	
6	복측		불법적	
7	대미		환경	

8	지역감정			
9	대표단			
10	정쟁			
11	장관급			
12	남북			
13	정계			
14	정치권력			
15	행정부			
16	정치인			
17	수뇌부			
18	건교부			
19	보안법			
20	자금			
21	당국자			

[표 5]를 살펴보면, 정치와 관련된 단어들이 압도적으로 많음을 알 수 있다. 과거에는 집권(‘장기집권, 영구집권, 중앙집권, 집권세력, 집권 연장’ 등), 냉전(‘냉전 시대, 냉전 극복, 냉전 종식, 냉전 논리’ 등), 정치판(‘언어폭력 난무하는 정치판, 전쟁같은 정치판, 구태 의연하게 돌아가는 정치판’ 등), 유착(‘인사유착, 정경유착, 권언유착, 정언유착’ 등), 정쟁(‘정쟁거리, 소모적인 정쟁’ 등) 부정적인 어휘들이 많이 사용되었지만 점차 사설에서 사용이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연금복권, 로또복권, 스포츠복권’ 등 복권 투자나 주식, 증권으로 인한 자산 보유에 대한 언급이 2000년초 초반에는 많았다. 특히 2000년대는 정치인 자녀들의 병역 비리나 불법 단속, 의문사 의혹에 대한 재조명이 많았다.

[그림 7] 감소하는 명사의 빈도 변화



[표 6]은 세종전자사전(홍재성 외 2007)에서 제시한 의미 분류에 입각하여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난 일반 명사를 분류한 표이다.

[표 6] 증가 추세 일반명사의 의미 분류(tau value 순)

인간	딸, 아동, 아이, 자녀, 부모, 노인, 형
----	--------------------------

관계	동료, 직원, 후배
직업	판사, 경찰, 학생, 교사, 경찰관, 경영자, 학부모, 스님
시간	어제, 지난달, 이달, 올해, 오전, 오후, 작년, 야간

2000년대는 성폭행과 관련한 범죄가 상당히 많았다. 그래서인지, ‘어린 딸들’이란 표현과, 위안부나 독립운동에 관한 사설에서는 ‘딸’에 대한 언급이 절대 빠지지 않았다. 특히 교육과 관련한 주제를 다룰 때는 ‘자녀, 아동, 아이, 부모’ 등의 표현이 꾸준히 등장하였다. 그만큼 우리 사회는 자녀 교육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고 이러한 관심은 절대 줄어들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직장 생활에서 관계를 만들게 되는 ‘동료, 직원, 후배’는 ‘동료 감싸기’, ‘현장 직원’, ‘후배 챙기기’ 등으로 사설에서 언급되었고, 직업과 관련해서는 사법, 경영, 교육과 관련한 직업이 증가 추세로 나타났다.

그밖에 추상명사 부류의 쓰임은 [표 7]과 같다.

[표 7] 증가 추세 추상명사의 의미 부류(tau value 순)

속성	그중, 뒤, 중앙
시간	어제, 지난달, 이달, 밤

‘문제가 불거진 뒤, 보고서가 나온 뒤, 끝난 뒤, 10년 뒤, 분할된 뒤, 입법한 뒤, 선고한 뒤, 정상회담 뒤’처럼 시간이나 순서 상으로 다음을 나타내는 표현이 사설에서의 사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사설에서는 사건이 순서를 뒤바꾸어 전개하기 보다는 도입에서부터 사실이나 혐의에 대해서 순서대로 담론을 구성하기 마련이기 때문인 듯하다. 이와 상반되게 지난 사건을 언급하거나 사건에 대한 의견을 나타내기 위해서 ‘어제’, ‘지난달’과 같은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를 사용함을 알 수 있었다. 이의 사용은 (1)과 같다.

(1) ‘어제’와 ‘지난달’의 사용 예시

- ㄱ. 어제 청와대 외교안보보좌관과 국방보좌관이 경질됐다.
- ㄴ. 지난달 30일에도 북측 어선이 북방한계선을 넘어 0.3마일까지 남하했을 때 우리 측이 세 번이나 호출했으나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

그밖에 증가 추세로 나타난 접사가 부착된 표현은 ‘진정성, 선진화, 과학적’이 있었다.

또한 신문 사설에서 사용이 증가하는 일반 명사 중에서 긍정적, 부정적으로 사용된 명사 부류는 다음 표와 같다.

[표 8] 증가 추세 일반명사의 긍정, 부정 분류(tau value 순)

긍정적	행복, 진정성, 도전, 덕분, 성취, 동력, 탈출, 강화, 성장, 성공, 리더십
부정적	고민, 착각, 재앙, 신호, 절반, 해고, 유죄, 방해, 눈물, 폐쇄, 선동,

	협박, 허위, 과도, 도발, 접대, 고령화, 유출, 저지, 취약, 폭탄, 핑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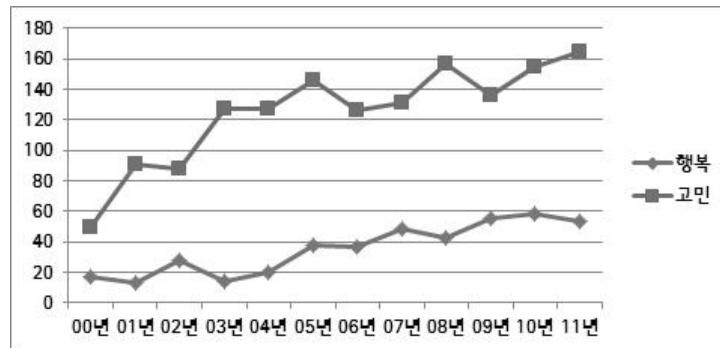
[표 8]을 살펴보면 증가하는 긍정적인 명사보다 부정적인 명사는 2배 가량 더 많았다. 또한 가장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난 긍정적인 단어는 ‘행복, 진정성’, 그리고 부정적인 단어는 ‘고민, 착각’ 등이 있었다.

(2) 긍정적, 부정적으로 사용된 명사의 사용 예시

- ㄱ. 그런 행복한 고도성장 시대는 오래 전에 끝났다.
- ㄴ. 박 전 대표는 ""이 대통령은 '꼭 그렇게 힘써 달라'면서 '당도 무엇보다 국민 앞에 진정성 있는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 ㄷ. 정부는 원칙을 지키면서도 상황을 고려하는 외교적 선택을 고민해야 한다.
- ㄹ. 언론과 만나는 걸 무슨 서비스인 양 생각하는 건 대단한 착각이다.

(2)를 살펴보면, 긍정적인 명사의 사용은 대체로 사설의 서두에서 누군가의 목소리를 통해 전달하고 있었다. 반면 부정적인 명사의 사용은 작자가 자신의 주장이나 행위에 대한 지지나 반대, 각성 요구, 사태를 평가할 때 단락의 끝부분에서 주로 나타났다.

[그림 8] ‘행복’과 ‘고민’의 빈도 추세



반면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난 일반명사의 긍정적, 부정적 의미를 구분했을 때는 부정적인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표 9] 감소 추세 일반명사의 긍정, 부정 분류(tau value 순)

긍정적	투명, 기대, 이해, 성의, 관심, 발상, 주목, 긍정적, 순수, 화해, 명예, 지향, 관심사, 진전, 겸허, 충실, 포용, 해결, 모색, 조절
부정적	문제, 시비, 여지, 실정자존심, 변명, 비판, 반전, 감정적, 문제점, 감안, 이의, 정치판, 문책, 걸림돌, 충격적, 불행, 유감, 국한, 저하, 전적, 회피, 증폭, 흔적, 차질, 유착, 불필요, 청산, 불편, 지적, 불투명, 제기, 지역감정, 악용, 권위, 인위적, 권위주의, 뒷전, 처사, 의구심, 우려, 의문사, 집착, 용납, 치부, 파문, 납득, 불신, 과제, 부재,

	조짐, 비난, 기미, 표출, 소모적, 재고, 대치, 혼선, 싸움, 축소, 부작용, 반발, 은폐, 비방, 매도, 구태, 운운, 부정적, 자의적, 화, 독점, 주시, 과장, 해명, 외면, 수법, 이기주의, 불법적, 개탄, 도피, 모순, 공방, 대립
--	--

분류 결과 긍정적 명사 : 부정적 명사 = 20 : 82로 약 4배의 차이를 보였다. 앞에서 증가하는 추세인 경우 긍정적인 명사보다 부정적인 명사가 2배 가량 많았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많다. 인상적인 점은 긍정적인 명사는 ‘화해, 포용, 해결, 모색, 조절’처럼 상반되는 의견에 대해 해결하기 위한 자세를 논의하는 단어들이 보이고, 부정적인 명사는 ‘싸움, 대치, 비방, 반발, 대립’ 등 의견이나 상황이 서로 반대되어 벌어지는 상황에 대한 단어들이 많았다. 즉, 2000년대에는 논쟁과 관련한 화제가 많아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화제가 신문 사설에서 많이 다루었지만, 점차 줄어들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10]은 감소하는 일반명사 중 접사가 포함된 어휘를 보여준다.

[표 10] 감소 추세 일반명사 중 접사류 분류(tau value 순)

적	현실적, 국민적, 감정적, 제도적, 충격적, 일반적, 인위적, 공개적, 일반적, 기본적, 일시적, 소모적, 본질적, 적극적, 전반적, 상징적, 부정적, 자의적, 결과적, 구조적, 종합적, 불법적
성	투명성, 일관성, 형평성, 심각성
력	설득력, 영향력
책	해결책
심	의구심

‘적, 성, 력, 책, 심’은 각각 ‘그러한 성격을 띠는, 성질, 능력, 대책, 마음’을 의미하는 접사로 신문 사설에서 감소 추세로 드러났다. 신문이나 전문적인 글의 경우 접사나 복합명사, 합성명사 등이 많이 쓰이는 경향이 있다(배영준 2006). 하지만 명사파생접미사의 경우, 신문 사설에서의 사용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이러한 결과가 전반적인 명사파생접미사의 추세인지, 아니면 2000년대 신문 사설의 경향인지를 판단하기에는 본 논의가 미흡하지만, 어느 정도 흥미로운 결과임은 분명하다. 또한 이러한 단어들은 대체로 부정적인 성격을 나타냈다(‘감정적, 충격적, 소모적, 자의적’ 등).

다음 표는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 추상명사를 이병모(2001)를 참고하여 분류한 것이다.

[표 11] 감소 추세 일반명사 중 추상적 대상(tau value 순)

시간	그동안, 시점, 당초, 이제, 오늘날, 과거, 향후
공간	부분, 점, 일부
양상	양상, 일관, 전제, 명분, 강조, 인식, 단적, 짐작, 부각
상태	풍조, 분위기, 시각, 경향, 풍토, 현상, 측면, 뒷받침, 배경, 자세,

	입장, 존재
의사	의미, 생각, 판단, 견해, 시각, 정서, 눈길, 제시, 설명, 해석, 제의, 관점, 맥락
관계	양측, 양쪽, 한쪽, 입장

[표 11]에서 상태나 양상, 의사를 나타내는 추상명사들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이 중 증거 추세를 나타내는 시간명사는 주로 과거의 사실을 논의한 반면, 아래의 시간명사들은 주로 작가가 언급하는 시점(기준시)으로부터 기술하는 바가 심리적인 거리가 매우 멀게 느껴지도록 의도적으로 나타낸 표현들이다(박철우 2011).

(3) 앞으로의 일을 나타내는 시간명사의 사용 예시

- ㄱ. **이제** 우리 경제가 기댈 곳은 소비심리를 살려내는 것밖에 없다.
- ㄴ. 결국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 걸쳐 일관되게 '독도는 일본 땅'이란 자기네 억지 주장을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주입(注入)시켜, **오늘날** 양국 관계의 갈등을 불러오는 데 그치지 않고 미래에 양국이 충돌할 수도 있는 감정의 씨앗을 심고 있는 것이다.
- ㄷ. 미국은 2011년도 회계연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국방예산을 **향후** 10년 동안 4000억달러 삭감키로 한 데 이어 의회의 추가 협상 과정에서 같은 기간 국방예산을 6000억달러가량 추가 삭감하는 가능성을 열어 뒀다.

또한 [표 11]에서 싸움이나 대입된 의견을 나타내는 명사의 사용이 줄어드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양측, 양쪽, 한쪽’과 같이 관계를 나타내는 명사의 사용 또한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그밖에 저자의 감정이나 논리를 나타내는 양상이나 상태, 의사를 표현하는 명사들의 사용이 신문 사설에서는 점차 줄어들고 있었다.

4. 결론

지금까지 명사의 빈도 추세 연구를 매년 단어의 빈도를 비교하는 방법으로 수행하였다. 정리하자면 신문 사설에서 사용 정도가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고유명사는 인명의 경우 모두 정치인이었다. 특히 ‘이명박’은 45배로(28 - 908) 나타나 가장 관심의 정도가 급격히 상승한 인물로 나타났다. 지명은 주로 개발이나 경제와 관련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지역(‘세종시’)과 정치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된 지역(‘연평도’)이 등장하였다. 국가명의 경우, 신문 사설에서 ‘한국’이라는 표현보다는 ‘대한민국’이란 표현이 점차 많이 쓰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관심이 줄어들고 있는 단어에는 전직 대통령(‘김대중, 김영삼, 부시’)이 있었다. 일반명사의 경우 정치와 관련된 단어들이 압도적으로 감소 경향이 크게 나타났다. 과거에는 ‘집권’(‘장기집권, 영구집권, 중앙집권, 집권세력, 집권 연장’ 등), ‘냉전’

(‘냉전 시대, 냉전 극복, 냉전 종식, 냉전 논리’ 등), ‘정치판’(‘언어폭력 난무하는 정치판, 전쟁같은 정치판, 구태의연하게 돌아가는 정치판’ 등), ‘유착’(‘인사유착, 정경유착, 권언유착, 정언유착’ 등), ‘정쟁’(‘정쟁거리, 소모적인 정쟁’ 등) 등 부정적인 어휘들이 많이 사용되었지만 점차 사설에서 이러한 어휘의 사용이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체로 증가하는 긍정적인 명사보다 부정적인 명사는 2배 가량 더 많았고, 가장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난 긍정적인 단어는 ‘행복, 진정성’, 그리고 부정적인 단어는 ‘고민, 착각’ 등이 있었다.

본 연구는 대용량의 신문코퍼스인 [물결 21] 코퍼스를 활용하여 텍스트 분석을 통계적으로 연구하였다. 특히 12년간 4대 신문사에서 다루는 어휘의 증감이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2000년대 초반에 신문사설에서 어휘 사용 변화가 어떠한지를 명사를 대상으로 알아보았다. 즉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사회적인 언어현상을 좀 더 객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다는 데에 의의가 있겠다.

참고문헌

- 강범모 · 김홍규 (2011). 명사 빈도의 변화, 관심의 사회적 트렌드: 물결 21 코퍼스 [2000-2009]. 언어학 61. 3-38쪽.
- 김혜영 · 김홍규 · 강범모 (2012). 신문 텍스트로 살펴본 문화 소비 현상의 트렌드. 정보과학 회논문지: 소프트웨어 및 응용. 39(3). 244-251쪽.
- 박철우 (2011). 화시의 기능과 체계에 대한 고찰. 한국어 의미학 36. 1-37쪽.
- 이금희 · 이한식 (2010). 예측방법론. KNOU PRESS.
- 이병모 (2001). 명사의 하위 분류에 대하여. 한글 251. 167-203쪽.
- 홍정하 (2012). 만-켄달 추세 검증과 언어 사용 추세 분석. 언어정보 14. 179-203.
- 홍재성 (2007). 21세기 세종계획 전자사전 개발 연구보고서. 국립국어원.
- Abdi, H. (2007). *Kendall rank correlation*. N.J. Salkind(ed.). *Encyclopedia of Measurement and Statistics*, Thousand Oaks: Sage.
- Gries, S. T. (2009). *Statistics for Linguistics with R: a Practical Introduction*. Berline: Mouton de Gruyter.
- Nevalainen, T. (2000). Gender Differences in the Evolution of Standard English: Evidence from the Corpus of Early English Correspondence. *Journal of English Linguistics* 28(1). 38-59.

‘신문사설에서 나타나는 어휘 사용의 증감도 분석’에 대한 토론문

손현정
(연세대학교)

본 논문은 12년간 수집된 4개 신문사의 사설 말뭉치를 대상으로 만-켄달 분석을 활용하여 어휘의 사용 증감 추세를 살펴보았습니다. 만-켄달 분석은 언어자료처럼 비정규 분포를 보이는 데이터에서 시계열 통계분석을 수행할 때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통계 기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본 연구가 적지 않은 규모의 말뭉치를 대상으로, 적절한 통계 기법을 선택하여, 어휘 사용 증감 추세를 객관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합니다. 특히 만-켄달 지수를 언어학 연구에 도입하여 활용한 연구는 기술적인 진입 장벽 때문에 매우 드문 편에 속합니다. (참고로, Eviews를 사용하면 만 켄달 지수를 비롯한 시계열 통계 작업을 좀 더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토론자로서 발표자분들께 의견을 묻고 싶은 점들입니다.

먼저, 자료 분석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 변이형 처리를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표2]의 ‘오바마’와 ‘벼락’, [표3]의 ‘부시’와 ‘조지’를 서로 다른 항목으로 간주하였는데, 이들은 같은 항목으로 간주하여 변이형 처리를 해주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 이명박, 이 대통령, 이 대표 등도 변이형 처리를 해주어야 하는데, 본 연구에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셨는지 궁금합니다.
2. 순위표에 지수값이 없습니다. 이를 보충해 주시면 독자들이 자료 분석을 이해하거나 확인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3. [표4]의 ‘호남’이 정말로 ‘유의미하게’(지수값 < -0.5 또는 0.5 < 지수값) 감소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자료 해석에 대한 의견입니다.

4. 신문 사설은 시세에 민감한 장르로서, 글을 쓸 당시의 관심사, 특히 정치, 경제와 관련된 이슈들을 주로 반영하게 됩니다. 따라서 최근에 일어난 정치 사건과 관련된 박연차, 이명박, 오바마가 증가 추세를 보일 수밖에 없으며, 시간적으로 이미 상당히 지난 사건들과 관련된 부시, 김대중, 김영삼, 이회창 등이 감소 추세를 보이는 것은 당연합니다. 따라서, 언어학 연구로서 본 연구가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인명이나 기관명 등 고유명사들은 연구에서 제외시키고, 일반명사를 중심으로 논의를 집중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신문 사설은 기사문의 원칙을 부분적으로 준수하는 장르입니다. 장르의 특성상, 사건의 시간 순서를 기술해야 하는 경우, 어제, 지난달, 이달, 올해, 오전, 오후

등의 시간 표현 명사들을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들의 증감 추세를 통계적으로 관찰한다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신문 사설이라는 장르의 언어학적 특성에 대한 이해가 선행된 후, 분석 대상을 선별하여 통계적 분석을 수행한다면 좀 더 의미 있고 정확한 해석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온라인 한중/중한 학습사전의 예문 연구

황은하
(배재대학교)

1. 서론

본 연구는 온라인 한중/중한 학습사전의 예문을 사전학적인 관점에서 검토하여 온라인사전 예문의 특징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전이 종이사전에서 전자사전¹⁾으로 미디어 형태가 변화하던 초기, 온라인사전은 “종이사전을 스크린에 그냥 펼쳐 놓은 것이나 다름없다.”(Erin McKean, 2007)²⁾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러나 차츰 컴퓨터 기술을 활용하여 온라인사전의 정보를 확장하고 활용성을 높이려는 시도들이 이어지고 있다. 온라인사전은 종이사전과 달리 즉각적인 수정이 가능하고 사용자와 편찬자와의 상호 작용이 가능한 등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 또한, 지면의 제약에서 자유롭고 검색 속도가 빠른 두 가지 특성 덕분에 사전의 미시구조 중에 특히 예문 항목이 내용과 형식에 있어 종이사전과 가장 두드러진 차이를 보인다. 종이사전에서 지면 제약으로 인해 예문을 아예 기술하지 않거나, 또는 최소한으로 엄선하여 제시하는 것이 원칙이었다면, 온라인사전은 늘어난 저장 공간 때문에 많은 예문을 제시하고 있고, 검색 기능으로 인해 예문 추출 대상 언어 자원이 다양해지고 그 규모도 확대되었으며, IT 기술에 힘입어 예문 제시의 방법이나 출전, 음성 정보 등의 부가 정보를 제시하는 등의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사전에서 예문(example, 용례, 例證)은 표제어가 쓰인 복합어, 구, 문장을 제시한 것(유현경, 남길임(2009)으로, 뜻풀이 다음으로 없어서는 안 될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정보 항목 중의 하나이다. 이개어 학습사전(bilingual dictionary)에서, 사용자가 사전의 출발언어나 목표언어 중 한 언어에 대한 지식이 불완전한 점을 감안하면, 예문의 중요성은 더욱 두드러진다. 학습사전에서 예문의 기능과 관련해 Drydale(1987)은 1) 뜻풀이에 대한 정보 제공, 2) 문맥 속의 표제어 보이기, 3) 의미 구별, 4) 문법적 패턴 보이기, 5) 전형적인 연어 보이기, 6) 적절한 사용역이나 문체적 층위를 보이기 등 여섯 가지를 제시하였다³⁾. 아울러 예문의 번역문을 제시하는 이개어 사전에서는 예문의 원문과 번역문이 함께 제시됨으로써 표제어의 다양한 대응어를 확인할 수 있어, 불충분한 대응어 정보를 보완하는 기능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최근 온라인사전들에서 제시하는 예문이 양적인 규모, 추출 대상 언어 자원, 제시 방법 등에 있어 종이사전의 그것과는 많이 달라지면서, 이에 대해 “추가 예문”(정영국, 2003), “extra example”(Cambridge Advanced Learner's Dictionary online)이라는 구별되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사전의 예문의 기능 또한 기존의 예문의 기능과 크게 다르지

1) 전자사전은 사전 내용을 종이가 아닌 CD-ROM 디스켓, 메모리칩과 같은 보조 기억 장치에 저장하여 사용하거나, 또는 서버에 저장하여 인터넷으로 서비스되는 사전 전체를 포괄하는 말이다.

2) TED TALKS에 올라온 Erin McKean(2007)의 “The joy of lexicography”에서 인용한 것이다.

3) 유현경·남길임(2009)에서 재인용한 것이다.

않고, 아울러 연구 대상인 다음, 네이버, 네이버 등 온라인사전에서 용어 “예문”을 사용하는 것을 감안하여 그대로 따르기로 한다.

지금까지 사전 예문에 대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으며, 있다 하더라도 대부분 종이사전의 예문에 대해 다루었다. 중한 사전의 예문에 관한 논의로 박종한(1999), 최태훈(2011), 도원영·범기혜(2011)이 있다. 박종한(1999)과 최태훈(2011)은 주로 중한 사전의 용례의 오류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바, 전자는 번역의 관점에서 “中韓大辭典”(고려대출판부, 1995)을 대상으로 번역에 문제가 있는 잘못된 용례를 수집하여 오류의 원인을 유형을 나누어 분석하였고, 후자는 “漢韓大辭典”을 중심으로 용례의 출전 오류를 수집하여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보였다. 도원영·범기혜(2011)는 유일하게 중한 사전의 용례 제시 원칙에 대한 사전학적 논의를 한 연구로, 기존의 중한 사전의 용례 제시 원칙을 검토하여 사전 용례가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 문법성, 적절성, 체계성, 효율성을 제안하여 사전별로 용례를 검토하고, 중한 사전의 용례 기술을 위한 기본 원칙 5가지와 관련 세칙을 정리하여 제안하였다.

한편, 온라인사전의 예문에 대한 논의는 특히 미미한 수준이다. 김서희(2005), 김미정(2011)은 온라인 중국어 사전의 거시구조와 미시구조에 대해 다루면서 온라인 중국어 사전에서 적절하지 못한 예문과 잘못된 번역 사례를 수집해 지적하고 있지만, 두 논문에서 모두 종이사전을 전자화하여 보인 초기 형태의 온라인사전의 예문 항목만을 다루고 있어, 기존의 종이사전의 논의와 다르지 않다. 정철(2006)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시각에서 사전의 온라인 서비스를 위해 사전 DB가 갖춰야 할 요소들에 대해 다루면서, 예문에 대해서 예문별 문형정보, 언어별 예문의 검색형, 언어별 예문의 표현형, 예문별 문법 설명⁴⁾ 등 네 가지 요소를 포함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영한 예문에 활용할 수 있는 언어 자료에 대해서는 “영한사전이라면 영어와 한국어 예문이 각각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서로 쌍으로 엮는 ID가 있으면 예문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며 원문과 번역문이 정렬된 병렬말뭉치의 필요성을 간략히 기술하였다.

본 연구는 온라인사전이라는 새로운 미디어 형태에서 예문의 변화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특징과 문제점을 밝히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것을 목표로, 2장에서 네이버, 다음, 네이버 등 주요 온라인 한중/중한 학습사전의 예문의 규모, 추출 대상 언어 자원 유형, 출전 표시, 배열 등의 제시 방식에 대해 자세히 비교 분석하여 문제점을 찾는다. 3장에서는 네이버 영어 사전과 온라인 옥스퍼드 사전의 예문 처리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 언어정보학적 관점에서 온라인사전 예문 항목의 효용성 향상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도한다.

2. 온라인 한중/중한 사전의 예문 비교 분석

현재 서비스되고 있는 온라인 한중/중한 사전은 다음 온라인 중국어사전(이하 ‘다음’으로 약칭), 네이버 온라인 중국어사전(이하 ‘네이버’로 약칭), 네이버 온라인 중국어사전(이하 ‘네이트’로 약칭) 등 세 개의 포털 사이트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사전 외에 만토우(滿頭)⁵⁾사에서 서비스하는 사전까지 네 개가 알려져 있다. 만토우사는 ‘네이트’에

4) 정철(2006)은 문법 설명에 예문에 대한 보조적인 설명, 출전이나 기타 설명 등을 함께 넣을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5) URL 주소가 <http://www.mantou.co.kr> 이다.

사전의 DB를 제공하는 외주 업체인 점을 감안하면 ‘네이트’와 콘텐츠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아, 본 연구의 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온라인 한중/중한 사전 예문의 면면을 비교·분석하기 위해 종이사전의 예문과는 구분되는 특징 위주로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사전별로 예문의 수, 예문 추출 대상 언어 자원 등에 대해 살펴보고, 개별 표제어의 예문을 토대로 제시 예문의 수, 유형, 배열, 부가적인 정보, 예문에 주석된 정보 유형 등에 대해 기술한다. 또한 개별 표제어의 예문에 대한 관찰을 통해 예문의 정확성, 적절성, 전형성 등을 기준으로 온라인사전 예문의 문제점을 짚어본다.

1.1. 예문의 수

온라인사전은 종이사전과 달리 지면의 제약에서 자유로워졌다. 덕분에 예문을 최소한으로 싣던 데로부터 가능한 한 많은 예문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음을 자랑하기에 이르렀고, 표제어별로도 대량의 예문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음’	‘네이버’	‘네이트’
전체 규모	미상	217,825	40만 이상
표제어 ‘우리’의 예문	미상	6,159	5,778
표제어 ‘우리’에 제시된 예문	800	6,159	1,000
페이지별 예문의 수	20	20	20

표 1. 사전별 예문의 수

표에서 보다시피, 온라인사전별로 예문의 전체 규모는 ‘네이트’가 40만 건 이상으로 1위를, ‘네이버’가 약 22만 건으로 2위를 기록하며, ‘다음’은 공개된 바가 없다. 임의로 표제어 ‘우리’의 예문을 검색해 보면, ‘네이트’는 총 5,778건이라고 검색 결과에 나타나지만 실제로는 1,000건까지만 제시되며, ‘네이버’는 6,159건이 검색되어 모두 보이고 있다. ‘다음’은 ‘우리’의 전체 예문의 수는 알 수 없었지만 800개의 예문을 확인할 수 있었고 다른 검색어의 실험을 통해 최대 800개까지 예문을 제시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세 사전은 웹 페이지별로 조회 가능한 예문은 각각 20건씩으로 확인되었다.

기존의 종이사전에서 “표제어별로 최소 한 개의 예문 제시”가 원칙이 되는 종이사전에 비해 온라인사전의 예문의 수가 비교할 수도 없이 증가한 것이다. 예문의 수가 많다는 것은 다양한 문맥과 다양한 대응어를 포함한 번역문을 보인다는 점에서 아주 긍정적이지만, 예문이 지나치게 많은 탓에 사용자가 예문을 일일이 확인할 수 없고 어떤 것이 더 나은 예문인지 고민해야 하는 새로운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1.2. 예문 추출 대상 언어 자원

예문을 대량 추출하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언어 자원이 필요하다. 온라인 한중/중한 사전들의 예문의 추출 대상 언어 자원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기존 종이사전의 예문 데이터, 병렬말뭉치, 웹에서 검색 가능한 자료가 그것이다.

‘다음’은 고려대 한중 사전과 고려대 중한 사전의 예문 데이터와 기타 병렬말뭉치 자료로 추정된다. ‘네이버’는 “교학사 중한사전”(이하 ‘교학사’로 약칭)과 “진명신세기

6) 대명사 ‘우리’는 고빈도 기초 어휘로, 명사의 동형어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임의로 정하였다.

한중사전”(이하 ‘진명’으로 약칭) 외에 학교방 사전, EECJK, IT용어사전에서 콘텐츠를 제공받아 서비스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⁷⁾ ‘교학사’와 ‘진명’에서 검색된 예문에 대해서는 예문 말미에 출처를 밝히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네이트’는 예문의 앞에 출처를 밝히고 있는데, 사전과 웹검색 두 가지 유형의 언어 자원에서 예문이 추출되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보다시피, 세 사전 모두 기존의 종이사전의 예문 데이터와 별도의 병렬말뭉치에서 예문을 추출한 것을 알 수 있다. 예문 데이터는 온라인 한중 사전과 중한 사전이 데이터를 공유하며, 예문 역시 한중, 중한 번역의 방향을 불문하고 검색이 되는 특징이 있다. 이에서 비롯되는 예문의 효용성 저하에 대해서는 2.6.에서 다시 다루기로 한다.

1.3. 예문 유형

예문의 유형을 말할 때 언어 단위와 인용 여부에 근거해 두 가지로 나누어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선, 언어 단위로 보면 예문은 단어, 구, 문장, 대화문 형식의 예문으로 나눌 수 있는데, 온라인사전들은 대부분 문장 예문에, 기존 종이사전의 단어, 구 예문을 일부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기존 문헌에서 인용하는 인용례와 사전편찬자가 작성하는 창작례(작성례)로 나뉘며, 인용례는 필요에 따라 부분적으로 가공되기도 한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온라인사전들의 예문은 기존 종이사전에 수록된 인용례와 창작례를 그대로 가져오고, 여기에 기타 병렬말뭉치에서 추출된 인용례가 더해진 것이기 때문에 인용례가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Laufer(1992)에 따르면 학습사전에서 인용례보다는 창작례가 더 효용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하나, 사전편찬학에서는 텍스트의 진정성(authenticity)이 보장되는 인용례와 부분적인 수정을 하는 가공례가 여전히 중요하게 간주된다. Laufer(1992)의 낮은 수준의 학습자일수록 창작례가 더 효과적이었다는 연구 결과는, 높은 레벨의 학습자일수록 인용례의 학습 효과가 더 크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드러내기도 한다. 따라서 인용례를 다수 포함한 온라인사전의 예문은 그만큼 학습 효과가 높은 것이라 할 수가 있다.

1.4. 예문 배열

예문의 수가 제한적인 종이사전에서부터 예문의 배열은 사용의 편의와 효용성을 위해 중요시되어 왔다. 종이사전에서는 일반적으로 예문의 길이순으로 배열되거나 또는 사전편찬자의 직관에 의해 보다 전형적인 예문이 우선 배열되어 왔다. 예문의 수가 많을수록 예문의 배열 문제가 더 중요해진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살펴본 온라인사전들은 모두 배열에 일정한 기준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내부적 기준이 있는지 확실하지 않지만, 결코 기존 사전학에서 따르는 예문의 길이순, 출전 유무에 따른 순서, 인용례의 연대순 그 어떤 것도 아니었다. 다시 말해, 고빈도 어휘의 경우, 수백 개에서 수천 개의 예문이 사용자의 편의나 수준의 고려가 없이 사용자 앞에 나열되어⁸⁾, 종이사전에서 사전편찬자가

7) 네이버 고객센터에 문의한 결과.

8) 한 온라인사전은 고객센터 문의 결과, “예문은 여러 개의 CP사에서 콘텐츠를 제공받아 서비스하고 있기 때

담당했던 예문 선별의 부담이 고스란히 사용자 몫으로 넘어간 셈이 되었다.

1.5. 예문 부가적 정보

예문에 여러 가지 정보가 함께 제시되는 것은 미디어 특성상 전자사전만이 가능한 두드러진 장점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세 온라인사전의 예문 부가적 정보는 유형은 주로 중국어 예문의 음성 정보, 중국어의 병음 표기와 예문의 한, 중 두 언어에 대한 어휘 링크 기능, 예문의 난이도, 출전 표시, 사전 예문의 경우, 예문이 원래 기술된 표제어의 표시 등이 조사되었다. 사전별로 이런 정보의 제시 여부를 표로 만들어 보이면 다음과 같다.

부가 정보 유형	다음	네이버	네이트
중국어 음성	O	O	X
병음 표기	O	X	X
한국어 어휘 링크	O	X	X
중국어 어휘 링크	O	O	X
예문의 난이도	초, 중, 고급	X	X
출전	X	출처: 교학사 중한사전(박영종 저) 출처: 진명신세기 한중사전 없음	[사전] [웹검색]
예문이 기술된 표제어	X	O	X

표 2. 사전별 예문과 함께 제시되는 부가 정보 유형

표 2.에서 보다시피 예문과 함께 제시되거나 제공되는 부가적 정보는 ‘다음’에서 가장 풍부하게 제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중국어 음성 정보는 음성 파일을 클릭하면 예문을 읽어 주는 TTS(Text to Speech)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되며 중국어 학습자의 읽기를 도우며, ‘다음’과 ‘네이버’에서 제공하고 있다.

둘째, 병음 표기 또한 한자를 많이 익히지 못한 중국어 학습자에게 효용성이 높은 정보로, 기존의 종이사전에서는 지면의 제약으로 시도할 수 없었던 부분을 ‘다음’에서 제공하고 있다.

셋째, 한국어와 중국어 어휘 링크를 통해 예문에 나타난 모든 어휘의 사전적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 동형어 구분이 되지 않는 부분이 아쉽다. ‘다음’은 예문의 한국어와 중국어 문장 모두에 어휘 링크 기능이 있으며, ‘네이버’는 중국어의 어휘 링크 기능만 가능하다.

넷째, 예문의 난이도 정보는 서로 다른 수준의 학습자에게 꼭 필요한 정보로 ‘다음’에서만 초, 중, 고급으로 나누어 제시되고 있다. 다만, 예문을 봤을 때 난이도의 기준이 무엇인지 예측이 어려웠고 난이도 등급에 선뜻 동의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문제가 있었다. 예를 들어 “물류 센터 물량 분석(物流中心物量分析)”, “물류가 원활하지 않다(货流不畅)”는 모두 물류 전문용어, 표현으로 보이는데 초급으로 분류되어 있다.

다섯째, 예문이 원래 기술된 표제어를 제시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예문의 전형성 여부를 간접적으로 알릴 수 있는 필요한 조치이며, ‘네이버’에서만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문에 여러 제공사에서 보내주신 콘텐츠대로 적용하다 보니 배열은 불규칙적일 수 있다.”는 답변을 해 왔다.

‘생활’을 검색하면 다음과 같은 예문이 맨 앞에 제시된다.

- (1) 新生活。 출처:진명신세기 한중사전
새 생활.→새

위에서 화살표 뒤의 ‘새’는 다른 아니라 해당 예문이 ‘진명신세기 한중사전’의 표제어 ‘새’에 기술된 예문임을 표시한다.

1.6. 예문 내용의 문제점 요약

이상에서 ‘다음’, ‘네이버’, ‘네이트’ 세 온라인사전의 특징을 살펴보았는데, 종이사전에 비해 발전한 부분들도 많지만, 주로 비판적인 시각에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만 추려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온라인사전이든 종이사전이든 무릇 사전이라면 정확성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문과 번역문, 문장부호, 오타자 등에 관한 오류의 출현 빈도가 아주 높았다.

예문의 원문과 번역문 오류에 관해서는 박종한(1999)에서 자세히 논의되었기에 더 논의하지 않기로 한다. 그밖에 문장부호를 누락하거나 잘못 표기하는 오류가 세 사전에서 모두 관찰되는데 주로 마침표에서 발생 빈도가 높다. ‘다음’은 예문이 완전한 문장인데도 불구하고 물음표 외에는 마침표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다. ‘네이버’에서도 문장부호 누락은 흔한 문제이다.

- (2) 우리 회사는 큰길가에 있다 중급
我们公司在大道旁边 발음 듣기
wǒmen gōngsī zài dàdào pángbiān (다음)
- (3) 生活水平相当明显地下降了.
생활수준이 꽤 두드러지게 악화되고 있었다. (네이버)

(2)는 한국어와 중국어 모두 완전한 문장인데도 불구하고 마침표를 누락한 예이고, (3)은 중국어 예문의 마침표(句號)로 고리점(.)을 표기해야 하는데 한국어에서처럼 온점(.)을 잘못 표기한 경우이다. 이런 오류는 세 사전 예문 전반에 걸쳐 발견된 것으로, 특히 정확성을 추구해야 하는 사전에서 반드시 수정되어야 한다고 보며, 수시로 수정 가능한 온라인 사전 특성상 손쉽게 수정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본다.

둘째, 동형어의 경우, 또는 형태적 중의성이 있는 경우 다른 표제어의 예문이 함께 검색 결과로 보이는 문제가 있다. 이는 종이사전의 예문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명백한 오류로 분류될 수도 있는 부분이다. 예를 들어 대명사 ‘우리’에 대한 예문 검색 결과에 ‘답 우리’, ‘차를 우리다’ 등이 섞여서 나오는 것이다. 종이사전에서는 사전편찬자의 작업을 통해 엄격하게 통제되었을 유형인데, 온라인 사전에서는 사용자가 예문을 열람하면서 불필요한 예문을 걸러내야 하는 부담이 늘어난 셈이다.

셋째, 예문 내용의 적절성에 관한 문제로, 주로 다양한 언어 자원에서 대량의 예문을 검색하여 여과 작업 없이 그대로 제시하는 데서 비롯된다. 우선, 온라인 사전이 예문 데이터를 한중, 중한 구분 없이 공유하기 때문에 대량의 다양한 예문을 검색 결과로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원문이 아닌 번역투가 다분한 번역문이 출발어 예문으로 검색되기도 하는 문제점이 있다. 다음으로, 원문과 번역문이 문장 단위로 정렬된 병렬말뭉치에서 검색한 결과에는 문맥이 없이 봤을 때 잘못된 번역으로 보일 수도 있는 적절하지 않은 예문들이 포함되는 것도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한다. 마지막으로, 기존 종이사전에서 다른 표제어에 제시된 예문을 같이 보임으로써 전형적이지 않은 예문들이 제시되기도 한다.

- (4) 组织上的一些问题可能会造成延误.
물류 문제로 지연이 되는 게 아닌가 싶다. (네이트)
(직역9): 조직상의 일부 문제로 지연이 될 수도 있다.)
- (5) 联合国到了该考虑有组织地部署额外军事资源的时候了.
유엔이 물류 차원에서 추가 군사 자원을 배치하는 것을 고려할 때다.
(네이트)
(직역: 유엔은 초과된 군사 자원의 조직적 배치를 고려해야 할 때다.)
- (6) 她将食物和医疗供给的分发描述为一个组织上的梦魇.
그녀는 식량 배급과 의약품 제공 상황을 묘사하면서 물류 악몽이라는 말을 썼다.
(네이트)
(직역: 그녀는 음식물과 의료 공급품을 나누어 주는 것을 조직상의 악몽이라고 말했다.)

(4)~(6)은 중국어 예문(번역 방향이 한중인지 중한인지 확인 불가)에 ‘물류’의 대응어가 모두 출현하지 않은 예문들이다. 텍스트 문맥상 번역되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학습자, 특히 목표어에 대한 언어적 직관이 없는 학습자에게는 혼란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넷째, 예문의 배열 문제이다. 다음은 대명사 ‘우리’에 대한 네이버 사전의 검색 결과 1위부터 5위이다.

- (7) 我等 출처:교학사 중한사전 (박영종 저)
우리.→等
- (8) 吾辈 출처:교학사 중한사전 (박영종 저)
우리들.→辈
- (9) 吾侪 출처:교학사 중한사전 (박영종 저)
우리들.→侪
- (10) 鸡罩 출처:교학사 중한사전 (박영종 저)
닭우리.→罩 출처:진명신세기 한중사전
- (11) 我们。

9)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필자가 축자적(逐字)적 번역 가까운 번역문을 단 것이다.

우리네.→-네

1~3위는 전형적이지 않고 자주 쓰이지도 않는 예문((7)~(9))이 차지했고, 4위에는 동형어의 불필요한 검색 결과(10)가, 5위에는 비로소 전형적인 단어 예문(11)이 출현한 것을 볼 수 있다. 온라인 사전들마다 많은 예문을 배열에 대한 깊은 고민이 없이 평면적으로 나열하여 제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종이사전에서 사전편찬자가 길이순, 적절성의 정도를 고민하여 배열해 보았다면, 그 공을 사용자에게 억지로 떠넘긴 꼴이다.

3. 온라인 중한/한중 사전 예문의 개선 방안 연구

앞서 살펴본 것처럼 현재 온라인 중한/한중 사전의 예문은 규모가 너무 많아 정보의 홍수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용자는 단시간 내 필요한 예문을 찾을 수 있는 효율성이 높은 사전을 원한다. 따라서 수천 개의 예문을 일일이 읽을 수도 없고 읽기를 원하지도 않을 것이며, 언어 지식이 완전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전형적이지 않은 예문들이 아무런 배열의 기준이 없이 일렬로 나열되어 제시된다는 것은 예문의 효용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게 된다. 게다가 많은 오류들까지 포함되었다면 제시하지 않느니만 못한 예문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예문 검색 대상 언어 자원에 대한 관리와 검색 결과에 대한 일정한 사전(事前) 작업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에 관해서는 온라인 옥스퍼드사전¹⁰⁾과 네이버 영어 사전의 선례 소개를 하고 나서 온라인 한중/중한 사전 예문의 효용성 향안 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한다.

우선, 온라인 옥스퍼드사전은 말뭉치 예문 제시에 앞서 사전편찬자에 의한 전처리 작업을 통해 예문의 효용성을 높인 경우다.

온라인 옥스퍼드 사전은 “예문”을 “예문 더 보기(more examples)”와 “전체 예문 보기(see all example sentences)”로 나누어 선택하여 볼 수 있게 되어 있다. 말뭉치에서 추출한 예문을 대상으로 표제어마다(다의어의 경우 의미항목마다) 20개의 정확한 예문을 선별하여 전체 예문과는 별도로 배열해 보임으로써, 사용자가 손쉽게 표제어의 실제 사용을 확인할 수 있고, 사용자가 다의어의 의미 구별을 하는 수고를 덜어준 것이다. 예문의 기술 방법은 크게 자동 선별 작업과 수작업 편집 단계로 나뉜다.

1단계는 언어 자원에서 예문을 자동으로 추출하는 작업이다. 주로 웹에서 수집한 2억 단어 규모의 21세기 영어 말뭉치(Oxford English Corpus)를 대상으로, 특정 단어나 구(phrase)의 예문을 자동으로 검색하고, 표제어별로(다의어의 의미항목별로) 예문을 할당한다. 이 과정에서 지나치게 길거나 짧은 예문, 비문은 자동으로 제거된다.

2단계는 수작업 편집 단계로, 1단계에서 걸러내지 못한 오류, 비표준어, 불분명한 어휘의 사용, 의미항목 할당이 잘못된 등의 예문을 수정한다. 주로 다음과 같은 작업이 포함된다.

- 의미항목별로 정확한 예문이 할당되었는지 검수하고 수정한다.
- 단순 오타를 제거한다.
- 문법 오류를 교정한다.
- 전형적인 문법적, 언어 패턴을 선별한다.

10) URL 주소는 다음과 같다. <http://oxforddictionaries.com/words/example-sentences>

- 예문의 수가 미국, 영국, 기타 지역별로 비슷하게 포함되도록 균형을 맞춘다.
- 어려운 어휘, 저빈도의 어휘가 포함되지 않도록 한다.
- 사용자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논쟁거리를 만들 만한 예문은 제거한다.

다음으로, 네이버 영어 사전은 검색 조건을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술적으로 사용자의 예문 선택 가능성을 높여준 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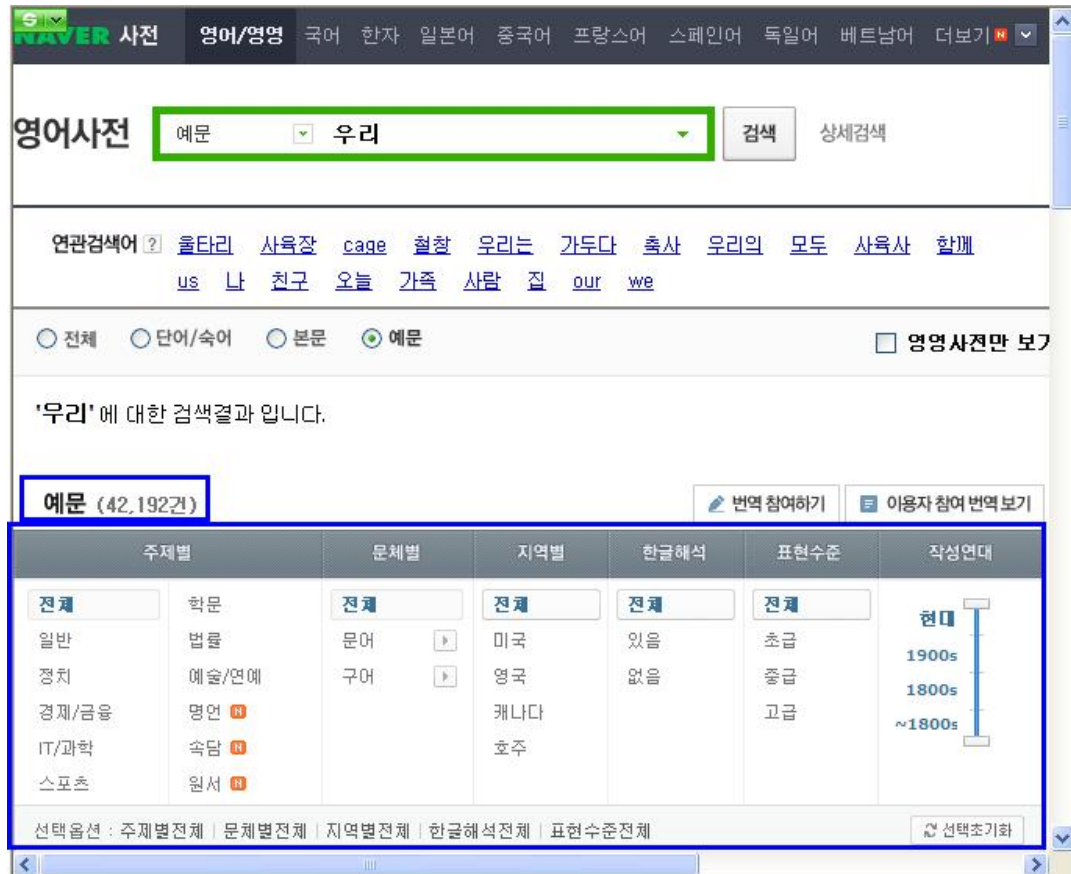


그림 1. 네이버 영어 사전의 선택옵션 보기

네이버 영어 사전은 선택 옵션을 주제별, 문제별, 지역별, 한글해석 유무, 표현 수준, 작성 연대 등 6개 유형으로, 유형별로 다시 세분화하여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용자가 본인 수요에 따라 예문을 선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대명사 '우리'에 대한 예문이 42,192개인데, 일반/문어/영국 영어/번역문이 있으며 고급 수준의 현대 영어로 한정된 결과 38건으로 예문의 수가 대폭 줄었다. 물론, 다른 조건은 그대로 두고 표현 수준만 중급으로 바꾸면 예문이 4천여 건으로 늘어나, 여전히 문제는 남아 있지만 다.

결론적으로, 온라인 중한/한중 사전의 예문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 옥스퍼드 식의 예문 데이터에 대한 전처리 작업과 더불어 네이버 온라인 영어사전과 같은 예문의 분류, 정보 주석 및 이를 토대로 한 다양한 검색 옵션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2장에서

살펴본 온라인 한중/중한 사전의 데이터 특성을 고려하고, NLP 기술의 발전 현황을 고려하여 작업 방법을 다음과 같이 4개 단계로 상세화할 수 있다.

1단계: 자동 전처리 작업(automatic pre-processing)

- 번역문의 대응어 정보를 활용한 동형어 구분(병렬말뭉치를 이용한 대역어 추출에 관한 NLP 선행 연구 참고)
- 대응어가 들어간 번역문과 대응어가 없는 번역문을 구분하기
- 동형어 구분을 위한 형태·의미 분석 작업, 동형어가 있는 표제어에 정확한 예문 할당하기

2단계: 수작업 전처리 작업(manual pre-processing)

- 부정확한 번역문 걸러내기
- 단순 오타, 문장부호 오류 등 수정하기
- 전형적인 예문을 골라 보이기
- 다의어 구분: sense-tagging(현실적으로 어려움이 큼)

3단계: 수작업 편집 단계(manual editorial stage)

- 사전편찬자에 의한 일정한 원칙을 따른 예문 선별 작업하기

4단계: 검색 옵션 강화

- 2.에서 살펴본 온라인사전의 예문 특징을 토대로 선택옵션을 극대화하여 설정하기

4. 나오는 말

참고문헌

- 김근택·황경자(1997), 「사전 용례에 관한 연구」, 『불어불문학 연구』 34, 703-722.
- 김미정(2011), 『한국 인터넷 중국어사전 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서희(2005), 『인터넷 중국어 사전의 사용실태 분석 및 개선 방안』,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도원영·범기혜(2011), 「중한사전(中韓辭典)의 용례에 대한 사전학적 검토」, 『민족문화연구』 54, 277-258.
- 박성숙(1995), 「2개어 사전의 용례 번역에 대한 고찰」, 『佛語佛文學研究』 30호 2권, 869-889.
- 박중환(1999), 「중한 사전의 뜻풀이와 용례」, 『中國言語研究』 제9집, 159-182.
- 유현경·남길임(2009), 『한국어 사전 편찬학 개론: 사전 편찬의 이론과 실제』, 역락.
- 정영국(2003), 「영영 전자 학습자 사전의 검색 방식 비교」, 한국사전학회 제4회 학술대회 학술발표자료집.
- 정철(2006), 「온라인 서비스를 위한 디지털 사전의 조건」, 『한국사전학』 제8호, 7-28.

- 최태훈(2011), 「《漢韓大辭典》의 出典例文에 나타난 誤謬 研究」, 『中國學』 38, 57-80.
- 신자영·원미진(2011),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다국어 사전의 대역 기술 방법 연구」, 『언어학』 58, 157-186.
- 황은하(2006), 「한·중(韓·中) 사전 비교 연구」, 『한국사전학』 7, 한국사전학회, 81-106.
- ?(2011), 네이버 모바일웹 영어사전, Web Korea Annual 2011, ?-?.
- Naver 다이어리, 「웹사전, 종이사전의 미래」, 네이버 블로그.
- Jöorg Didakowski, Lothar Lemnitzer & Alexander Geyken(2012), *Automatic example sentence extraction for a contemporary German dictionary*, in proceeding of Euralex 2012'.
- Hercules Dalianis, Hao-chun Xing, Xin Zhang(2010), *creating a reusable english chinese parallel corpus for bilingual dictionary construction*, in proceeding of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Language Resources and Evaluation.
- Seo Sangkyu, Jang Seokbae, Min Kyungmo(2001), *Using parallel corpora for bilingual dictionary*, ASIALEX 2001, 연세대 언어정보개발연구원·국학연구단.

온라인사전류

- 다음 중국어사전, <http://cndic.daum.net>
- 네이버 영어사전, <http://engdic.naver.com>
- 네이버 중국어사전, <http://cndic.naver.com>
- 네이트 중국어사전, <http://cndic.nate.com>
- 온라인 옥스퍼드사전: <http://oxforddictionaries.com/words/example-sentences>

기타

- Erin McKean(2007), *The Joy of Lexicography* in TED TALKS(http://www.ted.com/talks/erin_mckean_redefines_the_dictionary.html)

‘중한 웹사전의 용례 연구’에 대한 토론문

범기혜
(건국대학교)

이 논문은 다음, 네이버, 네이트 등 온라인 중국어 사전의 예문을 검토하면서 웹사전 예문의 특징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개선 방안으로 옥스퍼드사전의 사전(事前) 작업과 네이버 영어 사전의 검색 옵션을 비롯한 4개의 작업 단계를 제안하였습니다. 논문을 읽으면서 궁금했던 점과 의문이 있는 점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 온라인 중국어 사전에서 예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종이사전에서 보여주는 예문이나 사전학에서 말하는 예문과는 개념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예문 혹은 용례는 표제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표제어가 포함된 구나 문장 형식으로 뜻풀이 뒤에 표시되는 항목을 말합니다. 이런 의미의 예문은 온라인 중국어 사전에서도 ‘단어’ 또는 ‘본문’으로 검색하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논문에서 검토한 온라인 중국어 사전의 예문은 검색어가 포함된 모든 사전, 말뭉치, 심지어 웹 자료를 의미하는 것으로 검색 범위를 제외하고는 일반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하는 것과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예문 수가 많아진다고나, 배열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거나, 정확성이 떨어진다고나, 그리고 동형어 구분이 안 되는 것과 같은 문제들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단순히 검색된 예문보다 실제로 온라인 한중/중한사전에서 표제어 뒤에 나타난 예문들을 종이사전과 비교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보고 싶습니다.

2. 이 논문에서는 예문 비교 분석(2장)을 먼저 진행한 다음에 예문 검색 기능 향상 방안(3장)에 대해서 논의했는데 전자와 후자는 연관성은 있지만 결코 같은 논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논문의 주된 논의가 종이사전과 온라인 사전의 예문 비교 연구인지, 아니면 온라인 사전의 예문 검색 기능 향상 방안에 대한 연구인지 궁금합니다. 전자라면 질문1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문의 개념을 통일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후자라면 종이사전의 예문과 굳이 비교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3. 2.3에서 온라인 사전들의 예문이 기존 종이사전에 수록된 인용례와 창작례를 그대로 가져오고, 여기에 기타 병렬말뭉치에서 추출된 인용례가 더해진 것이기 때문에 인용례가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종이사전에서 그대로 가져와서 인용례로 보시는 건지, 아니면 기존 종이사전의 인용례와 창작례의 비율로 봤을 때 인용례가 더 많은 건지 그 근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낮은 수준의 학습자일수록 창작례가 더 효과적이었다는 연구 결과는 높은 레벨의 학습자일수록 인용례의 학습 효과가 더 크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드러내기 때문에 인용례를 다수 포함한 웹사전의 예문이 학습 효과가 클 거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웹사전의 예문이 고급 학습자에게는 학습 효과가

클 거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보고 싶습니다.

4. 3장에서 온라인 중한/한중사전 용례의 효용성 향상을 위해 온라인 옥스퍼드 사전과 네이버 영어 사전을 소개하셨는데 이 두 가지 사전을 모델로 삼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옥스퍼드 사전의 예문이 ‘예문 더 보기’와 ‘전체 예문 보기’로 나누어져 있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단어를 검색했을 때 그렇게 안 되어 있더라고요. 혹시 검색 방법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유료 버전이 따로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